

충청북도

자유로운 만남 긴 여정



충북관광을 하실때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043)220-3961~3966

*관광안내전화 1330

 충청북도



짧은 만남, 길게 간직하십시오

충청북도는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다양한 품종의 풍부한 농산물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명산인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이 위치하고 물 맑은 충주호에는 유람선이
운행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울러,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밸리의 '생명산업'과 솔라밸리의
'태양광산업'을 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담당한 충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테마와 즐거움이 있는 충북으로 오십시오!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의 남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생한 지역정보와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집대성한
'짧은 만남 긴 여운'을 다시 엮어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가슴 가슴마다 잔잔한 여운이 함께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충청북도지사

이야기를 찾아서

옥순봉과 구담봉	8
도단산봉과 석문	10
우뚝 선 시인암	12
남한강변의 철옹성, 온달산성	14
의령지와 의병전시관	16
청풍호반을 따라서	18
월악산과 송계계곡	20
수안보온천과 조령삼관문	22
틴금대와 중앙탑	24
괴산의 산과 계곡	26
물이 많은 고장, 읍성	28
생거진천을 노래하리	30
조정악수와 구리산성	32
천년고도 청주	34
직지와 고인쇄박물관	35
충북체육대종	36
대청호와 문의문화재단지	38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40
솔리산과 법주사	42
정지용의 고향, 옥천	44
천태산 영국사	46
민주지산 아래 삼산유곡	48
유에시무총장의 고향 행치마을	50
세계최대북 "천고"	51

명산을 찾아서

소백산	54
월악산	58
금수산	61
속리산	62
구봉산	66
충북알프스(등산코스)	67
대야산	68
조령산	69
비봉산	70
양성산과 작두산	71
민주지산	72
좌구산	73
천태산	74

맑고 깨끗한 계곡

남천계곡	76
다리안계곡	77
덕동계곡	78
동강계곡	79
용하구곡	80
송계계곡	81
화양계곡	82
선유계곡	83
쌍곡계곡	84
갈은계곡	85
괴산지역의 계곡들	85
민수계곡	86
물한계곡	87

유원지

온달관광지	88
다리안관광지	89
탁시정	90
삼탄유원지	91
옥화9경	92
징계관광지	93
승호관광지	94

동굴의 신비

고수동굴	96
천동동굴	97
온달동굴	98

온천의 고장

수안보온천	100
양성탄산온천지구	101
문강온천	102
초정악수	103

생태와의 만남

소백산 주목골락	106
영천출배수림	107
망개나무자생지	107
왕소나무숲	108
제천 망개나무자생지	108
진천 와가리반식지	109
미선나무자생지	109
가시연꽃자생지	110
두끼비생태문화관	110
옹정신품공원	110

시인묵객의 풍류를 따라

책벌레 김수온	112
관관정의 원호	113
가시문학의 정철	114
단양군수 이황	115
청풍명월의 시인 김득신	116
방랑시인 김삿갓	117
영동문향의 숲	118
감자꽃 권태옹	119
옥계폭포의 박연	120
진천의 조명희	121
임꺽정의 흥명희	122
향수의 정지옹	123
연풍현 김홍도	124
신필(神筆) 김생	125
조각가 김복진	126
운보의 집	127
탄금대의 우륵	128

역사의 숨결을 찾아

청원의 선사유적	130
단양의 선사유적	131

충주고구려비

적성비	133
관산성과 구진벼루	134
삼년산성	135
김유신 탄생지	136
송상현 출렁사	137
조령삼관문	138
의병장 조헌	139
청주성 탈환	140
진주대첩 김시민	141
임경업의 자취	142
동학의 핵성	143
자양명당과 유인석	144
의병장 이강년	145
번개대장 한봉수	146
헤이그정사 이상설	147
독립선언대표 순병희	148
민족의 스승 신재호	149
애국지사 연병호	150
무크진적국민관광지	151
옥천 육영수생가	152

그곳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

국립청주박물관	154
청주고인쇄박물관	154
충주박물관	155
난계국악박물관	155
궁금시관학교 박물관	156
충북대학교 박물관	156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157
백제유물전시관	157
수석전시관	158
한국잡식박물관	158
한독이의박물관	159
철벽물관	159
세계무술박물관	159
매고박물관	160
한병생명과학관	160
국제발효박물관	160
단양군 공예전시관	161
공공업전시관	161
비령박물관	161
증평민속체험박물관	162
대청호미술관	162
지적박물관	162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	163
능강솟대문화공간	163
증평대장간	163
한국도서박물관	164
음성큰비유얼굴조각공원	164
진천증보박물관	164
괴산고추박물관	165
진천군립생가판화미술관	165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165
청풍리조트	166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166
충북인삼유동센터	166

Contents 2

사찰의 향기를 찾아

구인사	168
신륵사	169
정방사	170
충주미륵대원지	171
각연사	172
공법사	173
미타사	174
보탈사	175
보살사	176
인심사	177
법주사	178
용암사	179
영국사	180
반야사	181

천주교 성지를 찾아

배론성지	184
언동성지	185
배티성지	186

신명나는 축제 속으로

새해맞이 희망축제	188
청남대 삼설문화예술 공연	188
청주직지축제	189
청주읍성 큰잔치	189
수안보온천제	189
청풍호벚꽃축제	190
음성품바축제	190
속리산다풍가요제 / 자용제	191
소백사사찰축제	192
증평 둘노래 축제	192
농동제 / 설성문화제	193
충주세계무술축제	194
제천국제음악영화제	194
청원문화제	19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95
청풍명월예술제	196
영동난계국악축제	196
우륵문화제 / 제천의병제	197
온길문화축제	198
생거진천문화축제	198
충주홍수축제	199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한미당	199
중봉충렬제	200
증평인삼축제	200
양성탄신온천휴양축제	200

특산물 축제

옥천이원묘목축제	202
옥천군농특산물축제	202
음성새풀맛이꽃큰잔치	203
단양 어상천수박축제	203
영동 포도축제/괴산고추축제	204
음성청결고추축제	205
충주 범축제	205
사미 맹홍산포크삼겹살축제	206
생거진천쌀축제	206
제천한방비이오박람회	207
천등산 고구마축제	207
충주 사과축제	207
청원 생명축제	208

보은 대추축제	208
영동곶감축제	208

온몸으로 즐긴다

청풍버자점프장 · 인공암벽장	210
시조리조트스키장	211
단양 조경량 비행장치	212
단양 클레이시각경	213
단양 눈썰매장	214
파라글라이딩	215
수상래프팅	216
클레이시각경	217
미동산 MTB타운	218
영동 봉벽장	219
옥천행수지전기길	220

체험속으로

방곡리 도예촌	221
한국공예관	222
외인코리아	223
난계국악기제작촌	224
신수허브랜드	225
조령민속공예촌	226
농업과학관	227
미동산수목원	228
자연탐사과학관	229
증평중학교 자연시과학관	230
옥천인터넷마을	231
진천공예마을	232
제빵왕 김탁구 전시체험장	233

농촌체험

옥천 신촌한울마을	236
옥천 정수마을	236
괴산 시암리마을	237
보은 구별령마을	237
영암 신촌생태마을	238
상대촌자생이미마을	238
옥천 안느네비우마을	239
증평민속체험박물관	239
음성 능안마을	240
제천산이초마을	241
상 · 하천마을	241
오미산촌체험관광마을	242
영암산채건강마을	242
하병명의촌	243
단장 핸드미마을	243
보은 고석 · 쌩임리마을	244
생거진천화랑촌	244
청원 고드미마을	245
보은 분저리마을	245
영동 금강모チ마을	246
장이익어기는마을	246
비단강숲마을	247
증인을 정보회미을	248
둔을 올갱이마을	248

영화 · 드라마 촬영지

KBS 촬영장 / SBS 촬영장	250
드라마 촬영지로 떠오르는 수암골	251
「나도」 「여인천하」 , 「주몽」 촬영지	252
온달관광지 영성촬영장	252

자연휴양림 · 관광농원

박달재자연휴양림	254
봉황자연휴양림	255
계명산자연휴양림	256
조령산자연휴양림	257
옥화자연휴양림	258
밀터재자연휴양림	259
장평산자연휴양림	260
민주자연자연휴양림	261
소선암자연휴양림	262
황정산자연휴양림	262
좌구산자연휴양림	263
문성자연휴양림	263
수레의신자연휴양림	264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264
소선암오토캠핑장	265
낭초골관광농원	265
서당골관광농원	266
백아지자연휴양림	266
삼흥관광농원 / 안골관광농원	267
화동관광농원 / 사담관광농원	268
총국일포스시연휴양림	269
산단이옛길	270

맛기행

충주 조돌리 민물회	272
옥천 조령리 도리뱅뱅이	272
초평 저수지 봉어찜	273
괴산 올갱이 해장국	273
옥천 생선국수 · 영동 어죽	274
속리산 산체정식	275
수안보 평요리	275
박달재 도토리毒素	276
청주 산성마을 토속음식	276
증평인삼요리	277
단양미를 오곡쌈밥	277
청주한정식	278
악재락 비빔밥	278

테마가 있는 코스

충주호반여행	280
대청호, 자동차 타고 한 바퀴	285
문학여행	286
예술여행	287
명찰여행	288
성지여행	289
역사여행	290
성곽여행	293
사랑여행	294
건강여행	295
체험레저여행	296
청남대 연계 코스	297
수학여행코스	298

정보똑딱이

금강산 도식후경	300
하루 물어 갑시다	302
학생수련원 - 단체로 갑니다	304
여기는 민박집이군요	306
특산품이 좋아요	306
시골장 구경 갑시다	307
주요 교통시설 전화번호 / 렌트카	308

청주시

천년고도 청주	34
직지와 고인쇄박물관	35
충북천년대종	36
두끼비생태문화관	110
용정신림공원	110
송상현 충렬사	137
청주성 탈환	140
번개대장 한봉수	146
국립청주박물관	154
청주고인쇄박물관	154
충북대학교 박물관	156
백제유물전시관	157
리마다플라자 청주호텔	166
보살사	176
새해맞이 회망축제	188
청주진지축제	189
청주읍성큰잔치	18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95
청풍명월예술제	196
한국공예관	222
제빵왕 김탁구 전시체험관	233
드라마 촬영지로 떠오르는 수암굴	251
청주 산성마을 토속음식	276
청주한정식	278

충주시

수안보온천과 조령심관문	22
탄금대와 중앙탑	24
월악산	58
승계계곡	81
수안보온천	100
양성탄산온천지구	101
문강온천	102
감자꽃 춘태옹	119
신필(神筆) 김생	125
탄금대의 우륵	128
충주 고구려비	132
임경업의 지취	142
충주박물관	155
수석전시관	158
세계무술박물관	159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	163
충주미륵대원지	171
미타사	174
수안보온천제	189
충주세계무술축제	194
우륵문화제	197
충주호수축제	199
양성탄산온천축제	200
충주 범축제	205
천등산고구마축제	207
충주사과축제	207
시조리조트 스키장	211
상대촌(자정이마을)	238
봉황자연휴양림	255

계명산자연휴양림

문성자연휴양림	263
충주 조동리 민물涸	272
수인보 평요리	275
충주호반여행	280

제천시

의림지와 의병전시관	16
청풍호빈을 따라서	18
월악산과 송계계곡	20
금수산	61
비봉산	70
덕동계곡	78
능강계곡	79
용하구곡	80
택사정	90
삼동유원지	91
제천 망개나무자생지	108
관련정의 원호	113
자양영당과 유인석	144
의병장 이강년	145
한병생명과학관	160
국제발효박물관	160
지적박물관	162
능강수대문화공간	163
한국도서박물관	164
청풍리조트	166
신륵사	169
정방사	170

배운성지	184
------	-----

청풍호벚꽃축제	190
---------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194
-----------	-----

제천의 명제	197
--------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미당	199
----------------	-----

제천한병비아오박람회	207
------------	-----

청풍번지 점포장	210
----------	-----

자연탐사과학관	229
---------	-----

제천산야초미을	241
---------	-----

상 하천미을	241
--------	-----

오미산촌체험관광마을	242
------------	-----

명암산체건강마을	242
----------	-----

한병영의촌	243
-------	-----

KBS 촬영장	250
---------	-----

SBS 촬영장	250
---------	-----

빅담재자연휴양림	254
----------	-----

제천 청풍호 지드락길	264
-------------	-----

빅담재 도토리목	276
----------	-----

악체락비빔밥	278
--------	-----

청원군

초정약수와 구리산성	32
대청호와 문의문화재단지	38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40
양성산과 쟁두산	71
옥회9경	92
초정약수	103
조각가 김복진	126
운보의 집	127
청원의 선사유적	130
독립선언대표 손병희	148

민족의 스승 신채호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156
------------	-----

한국전시박물관	158
---------	-----

대청호미술관	162
--------	-----

인심사	177
-----	-----

청남대상설문화예술공연	188
-------------	-----

청원문화제	195
-------	-----

청원생명축제	208
--------	-----

클레이시각경	217
--------	-----

미동산 MTB티운	218
-----------	-----

상수하이브랜드	225
---------	-----

농업과학관	227
-------	-----

미동산수목원	228
--------	-----

청원 고드미마을	245
----------	-----

옥회지연휴양림	258
---------	-----

당주골관광농원	266
---------	-----

대청호, 자동차 타고 한 바퀴	285
------------------	-----

보은군

속리산과 법주사	42
----------	----

속리산	62
-----	----

구봉산	66
-----	----

총불일포스(등산코스)	67
-------------	----

만수계곡	86
------	----

기시연꽃자생지	110
---------	-----

삼년산성	135
------	-----

동학의 활성	143
--------	-----

비령박물관	161
-------	-----

법주사	178
-----	-----

속리산단풍가요제	191
----------	-----

보은애주축제	208
--------	-----

보은 구봉리마을	237
----------	-----

보은 고석·쌍암마을	244
------------	-----

보은 분저리마을	245
----------	-----

밀티자자연휴양림	259
----------	-----

서당골관광농원	266
---------	-----

충북일포스자연휴양림	269
------------	-----

속리산 신체정식	275
----------	-----

옥천군

정지용의 고장, 옥천	44
-------------	----

장계관광지	93
-------	----

함수의 정지용	123
---------	-----

관산성과 구신벼루	134
-----------	-----

의병장 조현	139
--------	-----

옥영수생가	152
-------	-----

용암사	179
-----	-----

자웅제	191
-----	-----

중봉충렬제	200
-------	-----

온천이원모목축제	202
----------	-----

옥천군농특산물축제	202
-----------	-----

옥천향수자전거길	220
----------	-----

옥천안더미을	231
--------	-----

옥천 신촌한울마을	236
-----------	-----

옥천 장수미을	236
---------	-----

옥천 안남배비우마을	239
------------	-----

정령산자연휴양림	260
----------	-----

옥천 조령리 도리뱅뱅이	272
--------------	-----

옥천 생선국수	274
---------	-----



영동군

천태산 양국사	46
민주지산 아래 심신유곡	48
세계최대복 "천고"	51
민주지산	72
천태산	74
물한계곡	87
송호관광지	94
책벌레 김수온	112
영동문화의 숲	118
옥계폭포의 봄연	120
난계국악박물관	155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165
영국사	180
반야사	181
영동난계국악축제	196
영동포도축제	204
영동곶감축제	208
영동방벽장	219
외인코리아	223
난계국악기제작촌	224
영동 금강도치마을	246
비단강숲마을	247
민주지산자연휴양림	261
영동 어죽	274

증평군

좌구산	73
청풍명월의 시인 김득신	116
애국지사 안병호	150
증평민속체험박물관	162
증평대장간	163
총북인삼유통센터	166
증평 들노래 축제	192
증평인삼글축제	200
사미령 홍삼포크샵 겉살 축제	206
증평중학교 자연사학관	230
증평민속체험박물관	239
장이익어가는마을	246
증인글 정보화마을	248
좌구산자연휴양림	263
증평인삼묘리	277

진천군

생거진천을 노래하리	30
진천 왜거리번식지	109
가시문학의 정철	114
진천의 조명희	121
김유신 탄생지	136
헤이그정사 이상실	147

진천종박물관	164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165
보탑사	175
배티성지	186
농다리축제	193
생거진천문화축제	198
생거진천 쌀축제	206
진천공예마을	232
명암 산촌 생태마을	238
생거진천화랑축제	244
심흥관광농원 / 안끌관광농원	267
초평저수지 봉아찜	273

음성군

물이 많은 고장, 음성	28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행치마을	50
무극전적국민관광지	151
한독의안벽돌관	159
철박물관	159
매괴박물관	160
음성큰비위얼굴조각공원	164
미타사	174
음성품비축제	190
설성문화제	193
음성새봄맞이꽃큰잔치	203
음성청결고추축제	205
음성 등인마을	240
수레의산자연휴양림	264
백야자연휴양림	266

괴산군

괴산의 산과 계곡	26
대야산	68
조령산	69
화양계곡	82
선유계곡	83
쌍곡계곡	84
길은계곡	85
괴산의 계곡들	85
망개나두지생지	107
왕소나무숲	108
미선나무자생지	109
임꺽정의 흥명희	122
연봉현감 김홍도	124
조령삼관문	138
진주대첩 김시민	141
괴산고추박물관	165
각연사	172
공림사	173
연봉성지	185
괴산고추축제	204

조령민속공예촌	226
괴산 사담리마을	237
둔을 올갱이마을	248
「다모」, 「여인천히」, 「주몽」촬영지	252
조령산자연휴양림	257
회양당관광농원 / 사남관광농원	268
산낙이옛길	270
괴산 올갱이해장국	273

단양군

옥순봉과 구답봉	8
도담삼봉과 석문	10
우뚝 솟은 사인암	12
남한강변의 철옹성, 온달산성	14
소백산	54
남천계곡	76
다리안계곡	77
온달관광지	88
다리안관광지	89
고수동굴	96
천동동굴	97
온달동굴	98
소백산 주목군락	106
영천족백수림	107
단양군수 이황	115
방탕시인 김삿갓	117
단양의 선사유적	131
적성비	133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157
단양군 공예전시관	161
광공업전시관	161
구인사	168
소백산칠포제	192
온달문화축제	198
단양 어상천수박축제	203
초경량 비행장치	212
클레이시경장	213
단양 눈썰매장	214
파더글라이딩	215
수상래프팅	216
방곡리 도예촌	221
단양 핸드미마을	243
온달관광지 영상촬영장	252
소선암자연휴양림	262
황정산자연휴양림	262
소선암오토캠핑장	265
단양마늘 오곡쌈밥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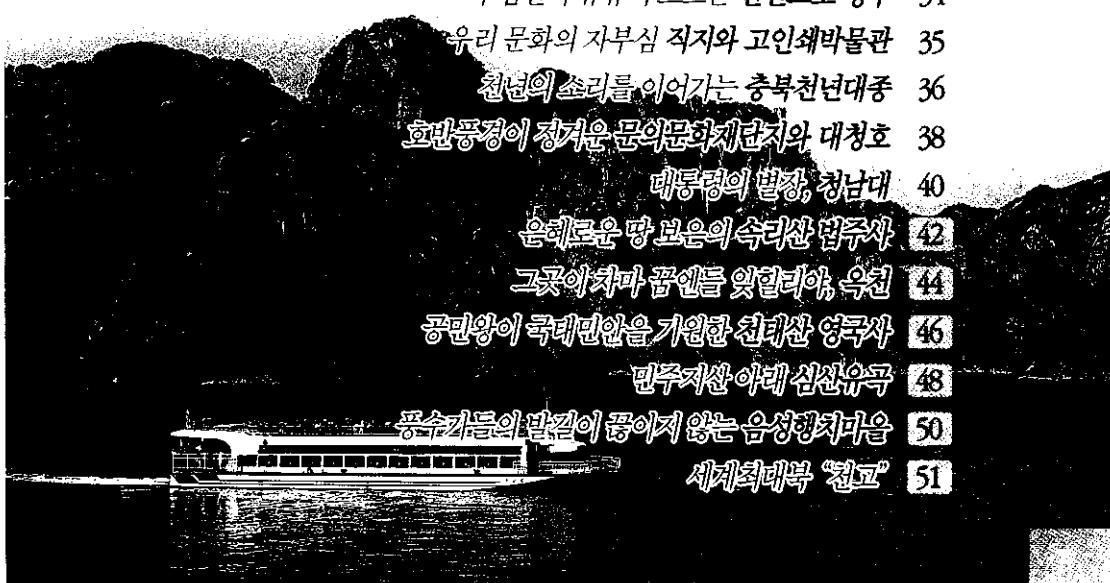


고을별로 둘러보기

이야기를 찾아서

둘러보기

뱃놀이 풍경이 일품인 옥순봉과 구담봉	8
금빛파도 너울지는 도담삼봉과 석문	10
홀로 우뚝 선 사인암	12
남한강변의 철옹성 온달산성	14
의기가 넘치는 제천	16
새로운 관광명소 청풍호반	18
천년의 전설이 어린 월악산과 송계재곡	20
물 좋고 산 좋은 수안보온천과 조령삼관문	22
가야금 소리 울리는 탄금대	24
신선이 살던 곳 괴산	26
물 많은 음성	28
김유신의 고장 진천	30
물좋은 초정약수와 구라산성	32
무심천이 유유히 흐르는 천년고도 청주	34
우리 문화의 자부심 직지와 고인쇄박물관	35
천년의 소리를 이어가는 충북천년대종	36
호반풍경이 경계운문의 문화재로 치와 대청호	38
태릉령의 별장, 청남대	40
은혜로운 땅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	42
그곳이 차마 품엔들 잊힐리야, 옥천	44
공민왕이 국태민안을 기원한 천제산 영국사	46
민주자신 아래 삼신유곡	48
풍순가들의 별길이 풍이지 않는 음성행치마을	50
세계최대부 “천고”	51



뱃놀이 풍경이 일품인

■ 가는길

▷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 →
금성 → 청풍랜드 → 옥순대교
→ 장회나루 관광선

■ 숙박

단양관광호텔	423-7070
소백산유스호스텔	421-5555
대명촌도	420-8311
청풍리조트힐관광호텔	640-7171

■ 맛있는 음식점

금강식당	423-2594
수원갈비	423-5005
포장마차	422-8065

■ 특산물

단양미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품이다.



■ 관광코스

▷ 단양 → 장회나루(유람선, 관광선) → 옥순봉, 구담봉 → 적성 산성 → 도담삼봉(유람선) → 단양

■ 관광예보

옥순봉과 구담봉은 장회나루에서 유람선, 관광선을 타고 감상하는 것이 좋다.

옥순봉과 구담봉

비가 온 뒤에 솟아나는 옥빛의 대나무숲.

남한강변에 우뚝 솟은 옥순봉은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퇴계선생이 한때 단양군수으로 있었는데, 이곳에 배놀이를 나갔다가 옥순봉의 절경에 반하여 그 길로 청풍부사에게 달려가 옥순봉을 단양으로 넘겨 달라고 청하였다. 청풍부사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며 편장을 주자, 퇴계선생은 한결음에 달려가 옥순봉 바위에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고 새겨 넣었다.

옮길 필요도 없이 옥순봉이 단양땅으로 된 것이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옥순봉 아래 사는 친구 김남포를 찾아갔더니 가난한 친구가 멀건 죽을 한 그릇 내왔다. 김삿갓이 죽 그릇을 앞에 놓고 한 수 뽑았다.

天下名山玉荀峯 世上怪漢金南圃 (천하명산옥순봉 세상괴한김남포)

四脚松盤粥一器 天光雲影共徘徊 (사각송반죽일기 천광운영공徘徊)

천하제일의 명산은 옥순봉이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김남포라.

소나무 상위에 올려놓은 죽그릇에 달빛과 구름이 비치는구나

옥순봉 옆으로 커다란 거북모양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모습이 물에 비치면 거북무늬를 띤다. 이름하여 구담봉(龜潭峯)이다. 조선 인종 때 백의재상 아지빈이 이곳에 은거할 때 구담의 양안에 칡넝쿨을 매고 비학(飛鶴)을 만들어 타고 건너다녔다고 한다.

구담봉 아래에서의 배놀이는 예로부터 최고의 홍취로 꼽혔는데, 멀리서 보면 조각배 탄 사람이 병풍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다고 한다.



둘러보기

거북모양의 구담봉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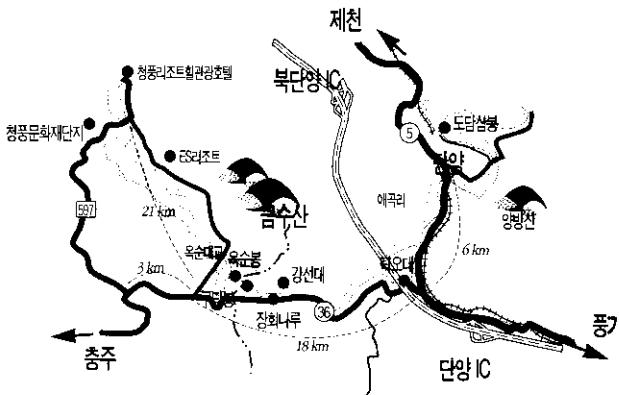
매화로 퇴계의 마음을 끈 두향

충주호의 물이 줄어들면 구담봉 옆에 널다란 강선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강선대 위에 퇴계선생을 사모했던 두향의 묘가 있다.

두향은 퇴계선생이 구담에서 벗놀이를 즐길 때 함께 거문고를 타고 선경을 즐기며 정을 깊게 하였는데,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로 가게 되자 강선대 옆에 움막을 짓고 오로지 퇴계 선생만을 그리워하며 지냈는데, 뒤에 퇴계의 부음을 접하고는 강불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후세에 사람들이 두향의 애뜻한 마음을 생각해 강선대 옆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충주호에 물이 차올라 지금은 강선대 위 양자바른 곳에 옮겨져 있다.

한편, 두향이 퇴계 선생을 흠토할 때, 그 마음을 사려고 갖가지 선물을 구해 올렸으나 청렴한 퇴계 선생은 번번이 선물을 물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속앓이를 하던 두향은 아전들을 통해 퇴계 선생이 매화를 뽑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각자에 수소문해 진귀한 매화를 구해두었다가 강선대 아래서 벗놀이 도중 퇴계선생에게 매화를 선물하여 비로소 마음을 샀다고 한다.



둘러볼 곳

도담삼봉

퇴계 선생이 단양군수로 재임시 자주 이곳을 둘러보며 청유^{淸遊}하고,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마음을 씻는 탁오대

퇴계 선생이 단양군수로 재직할 때,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선암계곡에서 손발을 씻었는데, 마음까지 씻었다 하여 바위에 「탁오대(濯吾臺)」라는 각자를 새겨놓았다. 지금은 단양수물이주기념관 마당에 옮겨져 있다.



「복도별업」을 새긴 뜻

허방리에 퇴계 선생이 보를 막았던 곳에 「복도별업(復道別業)」이라고 친필로 쓰고 글씨를 새긴 바위가 남아 있다. 단양수물이주기념관 마당에 옮겨져 있다.

비단에 수를 놓은 금수산

금수산(錦繡山)의 이름은 퇴계 선생이 둘러보고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다며 지은 이름이다.

금빛파도 너울지는

도담삼봉과 석문

가는길

단양읍 도전리에서 삼봉도로를 따라 3km, 승용차로 5분거리.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는 것이 좋다.

숙박

단양관광호텔	423-7070
대명콘도	420-8311
리버텔	421-5600
소백산유스호스텔	421-5555
모텔베니스	421-4400
아뜨리에	422-9535

맛있는 음식점

동원횟집 쏘가리때문탕	422-3457
정다리식당 시외터미널앞 산체	
비빔밥, 쌈밥	423-3960
맷나식당 선착장 부근 매일국수	
오소리김투	422-3380
경주식당 선착장 부근, 올갱이 국, 볶요리	421-0604
돌집식당 시외터미널앞, 곤드레마늘술밥, 미늘오곡쌈밥	422-2842

특산물

단양파들, 두산 감자, 어상천 수박, 자석벼루, 대강 석공예, 방곡리 도자기, 소백산 사과, 어상천 소새골 농장 미늘 환

관광코스

▶ 단양읍 → 신동문시비 → 수양개선시유물전시관 → 고수동굴 → 도담삼봉/석문

도담삼봉은 애국가가 나올 때면 으레 배경화면으로 등장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니 단양에 가면 빼놓지 말고 보아야 할 곳이다.

관광선을 타면 남한강 푸른 물에 훌러가듯 떠 있는 도담삼봉의 모습에 훌쩍 뛰어 건너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석양에 저녁놀을 둉지고 서 있는 자태는 저절로 시심이 일게 하니, 500여년전 퇴계선생의 시를 한번 읊어보자.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데
석양의 도담삼봉엔 저녁 놀 드리웠네.
별빛 달빛 아래 금빛파도 너울지더라

도담삼봉에는 그 모양새로 인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세 봉우리 중 제일 큰 봉우리를 장군봉이라고 하는데, 그 장군봉이 남편봉이고, 옆에서 남편봉을 향해 배를 불쑥 내민 봉이 첨봉(妾峯)이요, 또 옆에서 돌아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봉이 처봉(妻峯)이다. 부부는 금실이 좋았지만 아이가 없어 남편봉은 첨봉을 들이게 되었고, 아래 아이를 가진 첨봉은 남편봉을 향해 자랑하듯 배를 불쑥 내밀자, 처봉이 시샘하여 돌아 앉아 있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첨봉이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첨봉을 만지면 재물이 흥하고, 후손이 번창한다는 설도 전해진다.

장군봉에는 「삼도정」이라는 육각정자가 있는데 나룻배를 타고 이곳에 올라 앉아 있으면 누구나 절로 시심이 일 것 같다.

밤에는 조명을 밝힌 가운데 경이로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옛이야기

떠내려온 삼봉에 세금은 누가?

삼봉은 원래 강원도 정선군에 있었는데 홍수에 단양까지 떠내려 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매년 단양에 와서 세금을 받아갔는데, 정도전이 어릴 때, 세금을 받으러 온 정선의 관헌에게 달려가 말했다.

“우리가 삼봉을 정선에서 떠내려 오게 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도로 가져가던지, 아니면 우리에게 세금을 내시오”

그러자 정선에서 온 관헌은 땀만 뻘뻘 흘리다 돌아갔고, 그 뒤로는 세금을 받으러 오지 못했다 한다.

일화의 주인공인 정도전은 도담삼봉을 특히 사랑하여 호를 삼봉이라 지었는데, 뒤에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마고할미가 드나들던 석문

도담삼봉에서 상류로 200m 정도 올라가면 왼쪽 강변으로 수십 척에 달하는 무지개 모양의 석문이 나타난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마고할미가 물을 기르러 내려왔다가 젊어버린 비녀를 찾으려고 훑을 손으로 판 것이 99마지기의 논이 되었다는데, 마고할미는 주변 경치가 하늘나라보다 더 좋아 이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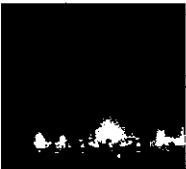


하늘로 가는 석문

돌려볼 곳

■ 도담삼봉 음악분수

도담삼봉 옆의 음악분수는 노래를 부르면 음정에 따라 36가지의 다양한 모양으로 분수를 분출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데이트 코스로 인기.



■ 도담삼봉 관광선 안내

- ▷ 석문코스(소형보트) : 소인 4,000원 대인 6,000원(7분소요)
- ▷ 석문관광선 : (30분 소요)
 - 소인 2,500원 대인 5,000원
 - ▷ 문의 : 422-5593

■ 양백폭포

단양읍 건너편 남한강변의 암벽에 높이 70m의 거대한 폭포가 만들 어졌다. 매일 2회(12:00, 20:00) 운행되며, 여기에는 빨강, 파랑, 녹색의 조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겨울에는 빙벽타기코스가 된다.



우뚝 선 사인암 홀로서도 두려운 것이 없다

깊고 푸른 계곡물을 끼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높이 70m의 기암절벽이 사인암이다. 꼭대기에는 노송까지 곁들여 있고, 암벽에 바둑판처럼 상하좌우로 줄이 있어서 더욱 이채롭다.

고려말 단양 태생 대학자인 역동(易東) 우탁(禹倬) 선생이 정4품 사인벼슬에 있을 때 이곳에서 휴양하였다고 하여 '사인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다.

사인암에는 많은 시인묵객들이 친필로 쓴 시가 새겨져 있다.

탁이 불 군(卓爾不群) 확 호 불 발(確乎不拔)
(뛰어난 것은 무리에 비할 것이 아니며 확실하게 빼지 못한다)

독립 불 구(獨立不懼) 돈 세 무 민(遜世無閑)
(홀로 서도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에 은둔하여도 근심함이 없다)

사인암 일대는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그윽한 풍치를 자아내는데, 주변의 골짜기를 운선9곡(雲仙九曲)이라 부르기도 한다.

■ 가는길

▷ 단양→북하삼거리(충주방면)→적성
산성→하방리 삼거리 좌회전→삼선9곡

■ 특산물

단성마늘, 두산 감자, 어상천 수박, 자석
벼루(423-7071), 대강 석공예, 방곡리 도
자기, 소백산 사과

■ 숙박

대잠농원 421-1464
(주말은 1~2 달전에 예약이 끝난다)

■ 관광코스

▷ 단양→단양적성산성→하선암→사인
암→중선암→상선암→방곡도예촌

■ 맛있는 음식점

사인암 근처에서는 염소탕과 전골 전문
식당이 있다
수원가든 숯불갈비 422-5666

■ 관광예보

- 인근 도락산(964m), 황정산(959m), 수
리봉(1019m) 등산에 좋은 명산이다.

우뚝선 사인암



둘러보기

옛이야기

// 상선암 //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린 우탁

우탁선생은 고려말 단양군 적성면 품달촌에서 태어났는데 학문이 깊었고, 성품이 올곧아서 많은 일화를 남겼다.

1308년 충선왕이 왕에 오르고 얼마 뒤 충선왕이 선왕인 충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와 밀통하는 일이 있었다. 모두들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우탁선생은 흔웃에 거적을 메고 도끼를 든 채 입궐하여 죽기를 자정하고 상소을 올렸다.

우탁선생은 끝내 왕이 듣지 아니하자 관직을 버리고 안동지역으로 내려가 학문에 몰두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우탁선생은 경서에 정통하고 역학에 깊어 정주학을 스스로 연구하고 해독하여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에 중국의 학자들이 역(易)을 동(東)으로 옮겼다고 하여 역동(易東)이라 불렀다고 한다.

우탁선생이 지은 탄로가(嘆老歌) 두 편이 유명하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일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웠더니
백발이 새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청산애 눈 녹인 바람 건 듯 불고 간데 없네
저은 듯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라우고자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



둘러볼 곳

■ 신선들의 연회장 하선암

봄철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가을에
는 단풍이 어우러진 장관은 속세
를 떠난 별천지이다.

■ 신선과 학이 놀던 상선암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 수암 권상
하가 이곳 정취에 취해 소박한 초
가정지를 짓고 시를 읊었다.
「신선과 놀던 학은 간 곳이 없고 /
학같이 맑고 깨끗한 영혼이 와 닿
는 / 그런 곳이 바로 상선암일세」

■ 방곡도예촌

조선시대 민수용 도자기의 집산지
였던 곳으로 지금은 전통도예의
맥을 잇는 많은 업체들이 도자기
를 구워내고 있다.(421-5020)





남한강을 굽어보는 온달산성

■ 가는길

▷ 단양 IC→단양→고수대교→
가곡→항산→영춘교→구인사
방면→온달산성

■ 숙박

백문장 여관 423-7259
남천계곡에 민박 및 아영장
단양관광호텔 423-7070

■ 맛있는 음식점

태화산가든 423-3026
금강식당 산체재방반, 도토리빙면
423-2594

■ 특산물

단양마늘, 두산감자, 자식벼루
소백산 산체재(죽령) 421-0322

■ 관광코스

▷ 단양→항산석탑→온달산성
→온달동굴→북벽→구인사→구
봉팔문→남천계곡

■ 관광예고

- 영춘에서 래프팅이 가능하다.
천지연 423-5566
단양레저 423-5600
- 온달산성 아래 온달관광지세
트장이 조성되어 있다.
- 매년 10월 중순 온달문화축제
가 열린다.

남한강변의 철옹성

온달산성에 올라서

영춘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남한강을 굽어보는 산중턱에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온달산성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항간에는 온달장군이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성의 모양이나 성을 쌓은 방법을 볼 때, 단양의 적성산성과 비슷하여 신라의 성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온달장군은 신라의 세력이 커져 한강유역의 고구려 땅을 차지하자 왕에게 청하여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였는데, 이곳 온달산성에서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삼국사기』에는 아단성에서 전사하였다고 전하는데, 영춘지역의 옛지명이 바로 을아단이다.)

주변에 온달장군이 무예를 닦았다는 온달동굴이 있고, 자연마을의 명칭도 장군목, 대진목, 방터, 말동, 군관 등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온달산성은 해발 427m의 산봉우리를 반달모양으로 휘감아 쌓았는데, 가파른 비탈을 이용하여 성을 쌓아 성의 안쪽은 높이가 1m밖에 되지 않지만, 바깥쪽은 10m가 넘는 특이한 형태이다. 성밖에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철옹성인 것이다.

온달산성에 올라서면 휘감아도는 남한강의 물줄기와 인근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멀리 소백산맥의 줄가들이 파노라마처럼 들어오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온달산성 주변에는 고구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영춘 북쪽의 남한강변에는 웅장한 절벽총인 북벽이 있고, 소백산 자락으로는 청정계곡인 남천계곡이 있다. 또, 가까운 곳에 천태종의 본 산인 구인사가 있는데, 영힘이 있는 절로 소문이 나 있다.



옛이야기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온달산성 전투에서 온달장군이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는데, 영구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아 부하 장병들이 애를 태우고 장례를 지내지 못했다. 뒤늦게 달려온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죽고 사는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자, 돌아갑시다.”라고 밀하자 관이 움직였다고 한다.

온달장군을 자극히 사랑한 평강공주는 온달의 시신을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으로 옮기고, 직접 무덤을 꾸며 자신의 자리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장군의 무덤은 평양시 외곽에 있는 ‘진파리무덤’의 하나인 ‘제4호무덤’으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합궁무덤이라는 설이 있는데,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온달산성 인근의 태성이묘가 온달장군의 묘라고 한다.

공주와 평민의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과 죽어서도 함께 하고자 하는 깊은 부부애의 기운이 천오백년이 지난 지금도 온달산성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돌려불공

■ 병풍처럼 둘러친 - 복벽

남한강기에 깎아낸 듯한 석벽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루는데, 봄가을의 철쭉과 단풍이 그 풍광을 더해 준다. 가장 높은 봉우리를 「청명봉」이라고 하며, 마치 매가 막 날아 오르는 모습이라 하여 「응암」이라고 부른다.

■ 목호자의 사리가 봉안된 항산석탑

가곡면 항산리에 있다. 신라 늄지왕(435년)때 목호자가 항산사를 창건하였고, 목호자가 열반 후 제자들이 텁을 건립하고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 남천계곡

소백산 깊은 지락에서 훌러내리는 남천계곡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청정계곡으로, 물이 깨끗하고 경치가 좋아 최근 들어 찾는 이들이 많다.





국가명승 제20호 의림지

■ 가는길

▷ 중앙고속도로 제천 IC→충주 방면→박달재 터널 우회→박달재 고개 방면

■ 숙박

박달재수련원	652-9222
박달재파크텔	652-6655
산체건강마을	653-7788
아름다운세상(펜션)	651-5251
제천관광호텔	643-4111

■ 맛있는 음식점

- ▷ 박달재 정상 후계소의 등동 주와 도토리묵이 일품이다.
▷ 의림지 주변에 공어회를 맛 볼 수 있는 식당이 많다. 백운에는 박달재 한우마을이 있다.
진성기든(津成基店) 652-9400
밤나무골가든(오리) 642-0328

■ 특산물

제천사과, 금성 토종흑염소 종탕, 목공예, 수석, 박달재 한우고기, 생고추장

■ 관광코스

- ▷ 제천 의림지→배른성지→자양영당→박달재→박하사
탕 활영지

■ 광역관광코스

- ▷ 제천에서 원주방면으로 나서면 치의산 산행도 할 수 있다.
▷ 관련정을 둘러보면 영월로 넘어가 장릉과 청령포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의기가 넘치는 제천

의림지와 의병전시관

제천은 예로부터 의기가 넘치는 고장이니, 제천의 옛이름이 ‘의’ 이고, 제천의 가장 오래된 유적인 ‘의림지(義林池)’는 본래 ‘임지’라 하던 것을 후에 ‘의(義)’ 자를 붙인 이름이다.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만들어져 현재도 이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악성 우륵이 용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막아 둑을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우륵대 바위와 우륵의 우물도 남아 있다.

대중가요로 잘 알려진 박달재는 고려 때는 김취려 장군이 거란의 10만 군대를 물리친 곳이며, 동고군의 침입 때도 제천지역의 별초군이 적군을 물리친 곳이다.

제천의 의기는 구한말 의병운동을 통해 더욱 크게 분출하였는데, 구한말 자양영당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나 한때 제천중심의 북부지역은 의병천하를 이루기도 하였다. 자양영당은 봉양읍 공전리에 있는데, 옆에 의병전시관이 새롭게 세워졌다.

1907년 군대해산이후 분출된 후기 의병운동때도 제천이 중심지가 되었는데, 의림지의 영호정은 후기 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강년 대장이 의병장으로 추대된 곳이다. 의림지 한 쪐에는 끝까지 스승의 곁을 지키며 항거하다 순절한 소년 의병 홍사구의 묘도 있다.

일제는 제천지역의 의병운동을 쉽게 막을 수가 없자 초토화를 자행하여 당시 제천 일대에는 성한 마을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다.

강산이 바뀌어 그 상처는 걸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산하 그 인물의 의기는 여전히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양영당과 의병전시관



돌려보기

옛이야기

애恸한 박달과 금봉의 사랑

울고 넘는 박달재

조선조 중엽 경상도의 젊은 선비 박달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도중 백운면 평동리에서 금봉이라는 처녀를 만나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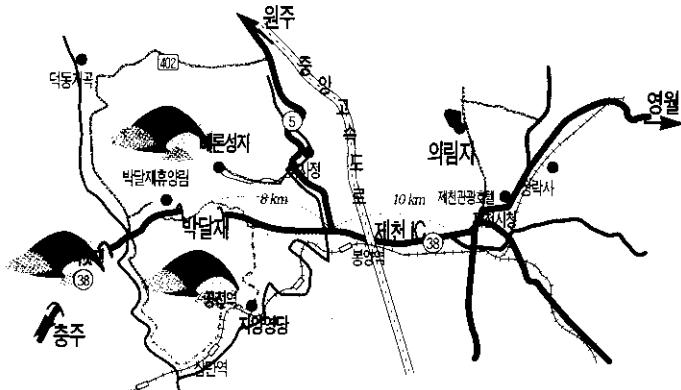
갈길이 바쁜 박달은 과거에 급제한 후 백년기약을 맺기로 굳게 약속하고 한양길로 내달렸으나 금봉과의 상념에 젖어 과거에서 그만 낙방하고 말았다.

나방거사 박달은 금봉을 볼 낮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곧바로 평동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한편, 날마다 장원급제를 빌던 금봉은 박달을 기다리다 그만 상사병이 깊어 한을 품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박달이 어렵게 마음을 추스려 평동에 돌아왔더니 막 금봉의 장례가 치러진 뒤였다.

박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금봉의 환영을 보게 되고, 금봉의 환영을 쫓던 박달은 고갯마루에서 금봉을 끌어안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만다.

그 후로 박달이 죽은 고개를 박달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돌려볼곳

도심속의 휴양지 의림지

- 국가명승 제20호[2006.12.4]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영호정과 경호루, 솔밭공원, 용두산 산립 옥장, 물안이골 생태체험로, MTB 경기장 등이 마련된 시민 휴식 공간이 있다.

지양영당과 의병전시관

봉양읍 공전리에 있다. 구한말 제천의병의 죽이 틈 곳으로, 지양영당 옆에 의병전시관이 세워졌다.

배튼성지

봉양읍 구학리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며, 흥사령이 토굴에서 천주교 박해의 백서를 쓴 곳이다.



덕동재곡

백운면 덕동리에 있는 맑은 물과 비위, 나무숲이 잘 어우러져 피서지로 좋은 계곡이다.
구수애에 아들바위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다.



청풍호반의 전경

산좋고 물좋은

■ 가는길

- ▷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청
풍 방면 10km
- ▷ 충주→수안보 방면→살미
삼거리에서 좌회전(단양 방면)
→ 수산삼거리 좌회전(제천 방
면)→청풍문화재단지

■ 숙박

ES리조트클럽 648-0480

청풍리조트레이크힐호텔 640-7000
드림레이크관광펜션 648-6380
화현아름마을펜션 647-7080
블루밍데이즈펜션 642-4600
수산관광농원 648-2277

■ 맛있는 음식점

월악산체식당
(용하구곡 입구) 653-7505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횟집
남한강횟집 643-4458

■ 특산물

청풍 생고추장(남제천농협 기금공장)
647-7400
월악산 더덕 651-6532
청풍생강 647-1004

■ 관광코스

- ▷ 남제천 IC→금월봉→KBS
제천촬영장→청풍랜드→청
풍문화재단지→SBS촬영장
→청풍나루관광선

청풍호반을 따라서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에서 82번 도로를 따라 청풍쪽으로 나서는 길은 가장 각광받는 관광코스이다.

금성의 높은 다리를 넘으면 길옆에 기암들이 모여있는 금월봉이 보이고, 원편 작성산 아래 무암골에는 기암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커다란 남근석에 얹힌 사연이 많다.

청풍호반을 따라 태조왕건의 개경 벽란도포구를 촬영했던 KBS제천 촬영장이 있다. 국민연금리조트 부근 청풍랜드에는 국내 최고의 번지 점프장과 인공암벽시설이 갖춰져 있고, 만남의 광장 뒤쪽으로 호젓한 산책로와 조각공원이 있어 관광의 묘미를 더해준다.

청풍호반에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관광선이 달리고, 때때로 하늘로 씨를 드는 수경분수가 쏘아올려진다.

청풍호 건너편에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매의 형상을 한 비봉산이 있으며, 그곳에서 청
풍호를 내려다보며 하늘을 날 수 있는 활공장이
있다.

청풍호반을 따라가면 그림같은
ES리조트가 있고, 옥순
대교도 장관이다.

금수산의 단풍이 제일이
라듯이 청풍의 가을은
더욱 숨이 막힌다.

누군들 생각지 않겠는
가! 청풍에 살고 싶다고….





돌려보기

단지

선조들의 향기 청풍문화재단지

청풍은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기 전만 해도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였으며, 일찍부터 도호부가 설치된 행정의 중심지였다. 그만큼 많은 문화유산이 있었는데, 충주댐으로 물속에 잠기게 되자, 언덕 위로 이전하여 복원하였다.

입구인 팔영루를 들어서면 연자방아와 함께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민가 4채가 나타난다. 지곡리, 후산리, 도화리, 황석리에 있던 고가들인데, 사립문짝과 돌담, 외양간, 농기구 등 볼거리가 많다.

고가 위쪽에 있는 청풍석조여래입상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네가 코를 베어 갔다고 전해진다. 청풍호가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관아의 연회장으로 건립된 한벽루가 서 있고 그 옆에는 공무차 내려온 중앙 관속들이 객사로 사용하던 응청각이 있다.

청풍부의 동헌으로 부사가 집무하던 금병헌과 관아를 드나들던 아문인 금남루 등 격조 높은 전각들과 볼거리들이 많다.

매년 4월에 열리는 청풍호벚꽃축제에서 청풍부사 행렬이 재현된다.

돌레볼곳

■ 162M 높이 치솟는 고사분수

청풍호반을 배경으로 하늘 높이 치솟는 시원한 분수가 자연과 인공의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 하루에 4~5회 장관을 연출한다.

■ 국내 최대의 번지점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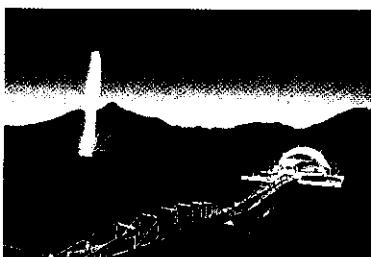
청풍호반에 높이 62m로 국내 최대 최고의 번지점프대와,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2인용, 3인용 점프대가 있다.

■ 산에 오르는 색다른 맛 - 금수산

이름 그대로 가을이면 비단에 수를 놓은 듯 고운 단풍과 산세가 아름다운 명산이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일음풀이 있다.



■ 제천수상아트홀



국내 최초로 청풍호반 수상에 설치된 다목적 공연시설로 700석 규모의 객석, 무대, 수상후게실, 연습실, 분장실과 진입부교에 경관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한낮의 은빛 천란한 전경과 눈이 부실 듯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 금성 무암계곡의 남근석

금성면 무암계곡에는 기암이 많이 있어 이채로운 풍광을 연출하는데, 그중 남근석은 특히 아들을 소망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호수에서 바라본 월악산 영봉

천년의 전설이 어린

월악산과 송계계곡

■ 가는 길

-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JCT) → 충주 IC → 용천삼거리에서 좌회전 → 월악교 지나 우회전 → 월악산 매표소
- ▷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 → 청풍문화재단지 → 충주방면 → 송계계곡 → 월악산 매표소

■ 숙박

- 월악파크 휴게소 856-2334
월악산유스호스텔 651-7001
수안보자역 호텔
송계계곡 민박, 용하구곡 민박

■ 맛있는 음식점

- 대장군식당 846-6076
김나무집 846-0608
송강매운탕 651-8115
징검다리가든 651-0934
명산아래어가 651-1944

■ 특산물

- 월악산 더덕 651-6532
송계양파 653-0677



■ 관광코스

- 황강영단 → 덕주산성 → 덕주사
→ 월악산 영봉 → 사자빈신사지
석탑 → 미륵대원자 → 수안보

그 옛날 백두대간이 남으로 뻗어 태백과 소백을 지나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다가 문득 백두산 영봉이 그리워 다시 북으로 치솟으며 이 루어 놓은 산이 바로 월악산이다. 해발 1,097m의 정상은 높이 150m, 둘레 4km의 거대한 암반으로 되어 있다.

신록과 가을 단풍이 어우러질 때 특히 아름다우며, 정상에 올라서면 탁 트인 충주호반과 고산준령이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룬다.

그 옛날 월악산에 오른 마의태자는 “월악 영봉이 강물 위에 비치는 날 구국의 한이 풀리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호수가 생겨 강 물에 월악의 영봉이 비치니, 마의태자의 한은 이루어졌는지….

월악산 자락의 송계계곡과 용계계곡은 맑은 물과 바위가 어우러져 곳곳에 천혜의 쉼터가 만들어져 있어 여름철에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월악산 입구의 덕주산성과 덕주사는 빼놓을 수 없는 불거리이고, 건너편의 사자빈신사지석탑,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덕주사부근의 마애 불상과 미륵리사지의 석불은 애써서 찾아가 볼 만하다.



옛이야기

마의태자와 덕주공주

신라 경순왕 9년(935), 왕이 군신들을 불러모아 나라를 고려에 넘길 것을 의논하자 마의태자가 간곡히 만류하였다.

“나라의 존망(存亡)은 반드시 천명에 있는 것이니, 충신의사로 더 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굳게 지키다가 힘이 다한 연후에 이를 의논함이 옳을 것이거늘 어찌 천년 사직을 하루 아침에 경솔하게 남에게 주는 것이 옳으리오.”

태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순왕은 곧 항복의 글을 고려 태조에게 전했고, 왕자는 통곡하면서 왕과 이별하고 누이 덕주공주 일행과 함께 금강산으로 향한다.

태자 일행이 월악산 계곡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왕자는 관음보살을 만나는 신기한 꿈을 꾸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서천에 이르는 큰 터가 있으니 그 곳에 절을 지어 석불을 세우고 복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의 영봉을 골라 마애불을 이루면 억조창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리니….”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 역시 같은 꿈을 꾸었고, 태자와 공주가 관음보살의 계시대로 따르니 석불을 세운 곳은 미륵사요. 마애불을 세운 곳은 덕주사이다.

하지만 마의태자는 금강산을 향해 떠났고, 공주는 절에 몸을 담았다고 한다.

미륵리 석불입상은 마의태자의 얼굴을, 덕주사 마애불은 덕주공주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데, 덕주사 마애불은 북향하고 있는 석불입상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

돌려볼곳

권상하의 황강영당

송계계곡 입구에 조선후기의 대학자였던 수암 권상하가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던 곳이 있다.

사자빈신사지석탑

외봉대 서쪽 계곡에 네마리의 사자상과 비로자나불이 있는 석탑이 있다. 고려 현종때 물살 적들이 아주 없어질 것을 기원하며 세웠다.

대원사의 월악산 조망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마의태자와 덕주공주가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신라천년사직을 뜻하는 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다.



덕주사 마애불상

상덕주사 위쪽 바위에 새겨진 불상으로 덕주공주가 미륵리의 불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한다.





물좋고 산좋은

■ 가는길

영동고속도로 여주JCT → 중부
내륙고속도로 → 충주 IC → 충주
→ 수안보

■ 숙박

수안보상록호텔 845-3500
수안보조선관광호텔 848-8833
수안보파크호텔 846-2331
수안보화학코도 846-8211
수안보한국콘도 846-0451
사조마을ユース호스텔 846-7660

■ 맛있는 음식점

향니무식당 846-2813
주정산가든 846-7791
감나무집 846-0608
온천부부식당 846-0087

■ 특산물

신풍한지 011-482-9995
월악산고본주 653-0251

■ 관광코스

- ▷ 수안보온천 → 수옥폭포 → 조령산자연휴양림 → 조령삼관문
- ▷ 수안보온천 → 미륵대원지 → 덕주시 → 월악산
- ▷ 수안보온천 → 수옥폭포 → 연풍성지 → 흥명희생기

수안보온천과 조령삼관문

수안보는 땅에서 저절로 온천이 솟은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으로 일찍부터 다양한 휴양시설이 개발된 중부 내륙 최고의 휴양지이다.

수안보온천은 고려시에까지 그 기록이 나오는데 각종 질병에 효험 이 있다 하여 전국에서 사람이 몰렸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운집 한 욕객들로 언제나 붐비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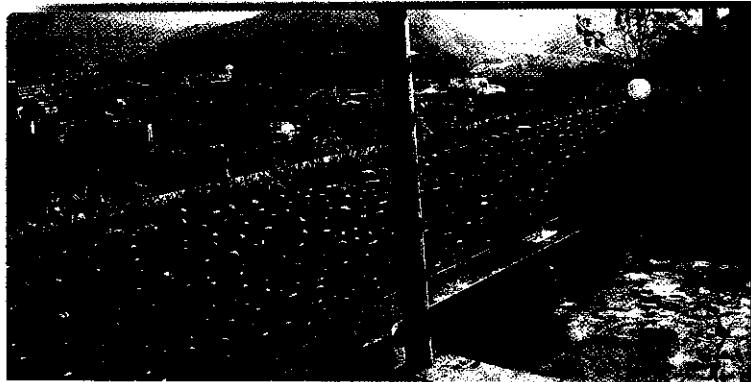
겨울에는 사조리조트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고 온천수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 즐기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조령삼관문, 마파봉, 신선봉 등의 수려한 산들이 있어 등산과 온천욕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찾는다.

조령은 백두대간을 넘는 고개로 조선시대에는 영남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을 통해 충주로 넘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립 장군에게 조령을 지킬 것을 건의했으나 신립장군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 임진왜란 이후 조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3중의 관문을 완성하였다.

조령삼관문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산행을 겸하여 둘러보기 좋고, 문경쪽으로 내려서면 이관문과 일관문까지가 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다. 삼관문 옆에 있는 세재약수는 사계절 수온이 일정하여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백수영천으로 유명하다.

소조령을 넘어서면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수옥폭포와 수옥정이 있고, 3번 국도를 내쳐 달리면 천주교성지가 있는 연풍에 닿게 된다.



돌리보기

노화를 지연시키는 살아있는 온천수

수안보 온천수는 지하 700m에서 용출되는 수온 53°C 산도 8.3의 약 알카리성 온천 원액으로 인체에 이로운 각종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세계적인 온천수이다.

특히 물이 살아 활동하고 있는 온천수로 한달 이상 썩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온천수로 온천욕을 하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젊음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

수안보 온천수로 술을 빚거나 김치 등 음식을 요리하면 신선도가 오래 지속되며 색깔과 맛이 독특하다.

수안보 온천수로 콩나물과 금붕어를 기른 결과, 콩나물은 오래도록 신선도를 유지하였으며, 금붕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색깔이 선명함이 입증되었다.

수안보 온천수는 식수로도 적합하며 인체의 산성 체질을 알카리성 체질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돌리볼공

■ 멋진 3단폭포 - 수옥폭포

수안보에서 연풍방면으로 소령을 넘으면 국도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수옥정이라는 팔각정자와 20여미터에 걸쳐 3단으로 떨어지는 멋진 수옥폭포가 있다.



■ 피부병에 좋은 문강유황 온천

수안보입구에 자리잡은 문강유황 온천호텔은 피부병에 좋은 유황온천으로 이름이 높다.

■ 조령산지연휴양림

울창한 숲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근 미폐봉과 신선봉을 오르는 등 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통나무집 18동을 비롯하여 캠핑장, 수영장 등 휴양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가야금 소리 강을 건너고

가는길

▷ 경부·중부고속도로 → 영동 고속도로(여주JCT) → 중부내륙 고속도로 → 충주IC → 충주

숙박

충주후랜드리관광호텔	848-9900
충주그랜드관광호텔	848-5554
계명산자연휴양림	850-7313
봉황자연휴양림	850-7315
능암단산온천호텔	854-2020
파노힐관광호텔	848-1185

맛있는 음식점

중앙탑오리집	857-5292
노들강변	855-9933

특산물

충주사과	
중원 청명주(창동리)	842-5005
천등산 박달주	853-3033

관광코스

양성온천→목계장터→조정지댐
→중원고구려비→남한강수식전
시관→중앙탑→탄금대→우륵당
→택견전수관→충주박물관→임
경업 충렬사→충주댐

관광메모

- 탄금대에는 권태옹시인의 감자꽃 노래비가 있다.
- 목계라는 신경림시인의 「목계장터」의 무대이다.
- 매년 10월 우륵문화제와 세계무술축제가 열린다.

탄금대와 중앙탑

탄금대는 남한강과 달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머리를 내민 대문산의 절벽 모서리이다.

이곳에서 우륵이 가야금을 탈 때 그 소리가 강건너 많은 마을에 퍼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임진왜란 때 신립은 도망갈 수 없는 이곳에 배수진을 쳐서 왜군에 맞서 싸웠다.

울창한 숲 속에 악성 우륵선생 추모비, 신립장군 순절비가 있고, 충주출신 아동문학가 권태옹의 감자꽃 노래비가 있다.

탄금대 가까운 가금면에는 강성했던 고구려의 혼이 담겨 있는 고구려비와 충주를 '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인 중앙탑이 있다. 남한강 유역은 수석의 보고로,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수석전시관에서는 신비한 수석의 세계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다.

인근 가흥은 옛날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였던 가흥창지가 있던 곳이고, 강 건너 목계는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의 배경이 된 곳이다.



옛이야기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까닭은?

선조 25년 4월 왜군이 부산 동래를 거쳐 서울로 북상해 오자 조정에서는 신립을 삼도순변사로 삼아 왜군의 북진을 막도록 하였다. 신립이 급히 군관을 모아 충주로 내려갔으나 급조한 군대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왜군은 이미 상주를 지나 문경에 이르고 있었다.

참모들은 조령에서 험한 산세를 이용해 적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여진족을 상대하며 많은 기병전을 치렀던 신립은 산지에서 싸우기보다는 평지에서 몰아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또, 보병의 군세가 미약하므로 배수진을 쳐서 군세를 다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탄금대에 전을 치고 왜군과 대적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금대는 지형상 기병의 활동에 제한이 많았고, 포위공격 해오는 왜군의 군세가 막강하여 전세는 급격히 불리해졌다. 결국 신립장군도 필사의 사투 끝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는데, 탄금대에는 신립장군이 활시위를 쑍히기 위해 열 두번이나 오르내렸다는 열두대가 남아 있다.

나라의 중앙이 어디쯤일까?

통일신라시대 때 나라의 중앙이 어디 쯤 될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왕은 고민을 풀기 위해 같은 보폭을 가진 사람을 남과 북에서 동시에 출발시키기를 몇 번을 되풀이 했더니 두 사람이 꼭 남한강가의 탑평리에서 만났다.

왕은 그곳에 탑을 세워 신라 국토의 중앙임을 표시하도록 했는데, 그 탑이 바로 남한강가에 우뚝 선 칠층 석탑으로, 사람들은 이 탑을 중앙탑이라고 부른다.

돌려볼 곳

■ 고구려의 융성 - 고구려비

고구려 징수왕때 신리와의 관계를 적은 비석으로 고구려가 형님이 되고, 신리가 아우가 된다는 내용과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국보 206호.



■ 양성 탄산 온천지구

충주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IC, 장호원 방면 국도변에 위치한 양성탄산온천지구는 국내 유일의 탄산온천수이다. 이곳 온천은 혈압이 내려가며 심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험이 있다.

■ 남한강수석전시관

충주는 우리나라 수석문화의 본고장이다. 충주시 성내동 수석전시관에는 천태만상의 수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일요일, 공휴일 휴관

■ 민속공예거리

가금면 봉황리 38번 국도변과 엄정면 목계리 주변에는 골동품과 근세의 생활용품, 나무뿌리 조각, 수석 등의 판매점들이 물려 있다.



신선이 놀던 곳

괴산의 산과 계곡

■ 가는 길

- ▷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 증평
→ 부흥 → 화양리
- ▷ 경부고속도로 청원 IC → 문의
→ 미원 → 청천 → 화양리
- ▷ 중부내륙고속도로 → 괴산(연
풍)IC → 청천 → 화양리

■ 숙박

화양동관광농원	833-4900
사담관광농원	833-9935
화양유스호스텔	832-8803
보람원	833-1711
자연학습원	833-8005

■ 맛있는 음식점

괴강관광농원	834-8878
맛지랑먹자랑	832-2973
명신팬션가든	833-1722
솔뫼골식당	833-7959
청수정	832-2288
천생연분	833-3957

■ 특산물

괴산청결고추, 괴산시골절임배
추, 대학찰옥수수, 인삼, 사과,
친환경 농산물

■ 관광코스

화양구곡 → 도명산
선유구곡 → 대야산
쌍곡구곡 → 군자산, 칠보산
사담계곡 → 궁립사 → 낙영산

■ 관광예보

- 여름 피서는 계곡에 자리를 잡고, 휴양과 등산을 겸하는 것이 좋다.
- 화양리와 사담리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있다.
- 괴산장(3, 8월), 청천장(5, 10월)

신라 진평왕때 백제군이 가잠성(지금의 괴산)을 포위 공격했는데, 성을 지키던 신라 장수 찬덕은 석달 열흘을 오줌을 받아 마시며 벼티다가 성이 무너지자 큰 느티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했다. 나중에 이를 안 태종 무열왕은 그를 기리기 위해 고을 이름에 느티나무 괴(槐)자를 넣게 했다고 한다.

소백산맥을 기둥삼아 깃발처럼 자리잡고 있는 괴산에는 불룩불룩 솟아있는 산이 많은데, 산을 좋아하는 이라면 어느 하나 빼놓기 섭섭 할 만큼 산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의 특색과 풍광을 지니고 있다.

산세가 빼어나니 산자락을 타고 흐르는 계류는 기암절벽과 어울려 곳곳에 절경을 빚어내고, 계곡마다 신선이 아니 놀던 곳이 없다.

속리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양구곡은 그 중에서 으뜸이라, 송시열이 주자의 무이구곡을 본따 정했다고 한다. 계곡 안에는 곳곳에 송시열의 일화가 남아 있다.

이름 그대로 신선이 놀았다는 선유계곡은 퇴계 이황이 아홉 달을 머물며 선유의 구곡을 정했다고 한다. 칠보산과 군자산 자락에 숨어 있는 쌍곡계곡은 기암들의 자태가 특히 빼어나고, 괴산댐으로 훌러드는 갈론계곡은 최근까지도 찾는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 계곡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첩첩산중같은 연풍에는 천주교 성지가 있고, 김홍도가 연풍현감으로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던 연풍동헌이 남아 있다.

오가는 길에 괴산읍 동부리에 들르면 금산군수로 있다가 1910년 경술국치를 통탄하며 자결한 홍범식과 그의 아들인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가 살던 집이 있다.



화양구곡의 9경인 퍼진

옛이야기

만동묘와 화양서원

계곡 피서지로 유명한 화양계곡은 조선 후기의 대유학자 송시열이 밀년에 은거하던 곳으로 그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만동묘는 우암 송시열의 유교에 따라 제자 권상하가 건립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던 곳이다. 만동묘로 들어가는 입구의 하마소(下馬所)는 말 그대로 누구든 이 앞에서부터는 말을 내려 걸어들어가도록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말을 타고 들어서다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화양서원은 우암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숙종의 어필로 편액을 달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화양 3곡 읍궁암은 효종대왕이 돌아가시자 우암이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하였다는 곳이고, 읍궁암 건너편에는 우암이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암서재가 있다.



둘레 볼곳

■ 생곡계곡

제수리재로부터 군자산과 보배산을 끼고 흘러내리는 10km의 수려한 계곡이다. 올창한 숲과 바위가 조화를 이루며 절경을 이룬다.

■ 새악시같은 같은계곡

괴산댐 옆 갈لون리에 있는 계곡. 사람의 발길이 덜 미치어 수줍은 새 악시처럼 숨어 있다.

■ 낙영산기술의 공립사

낙영산 기슭의 천년고찰로 주변 경관도 빼어나 시계절 찾는 이들이 많다. 낙영산과 백악산으로 오르는 길도 일품이다.



■ 만동묘

1703년(숙종 29)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 신종(神宗)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을 제사지내기 위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華陽里)에 세운 사당.





삼형제저수지

■ 가는길

- ▷ 중부고속도로 음성 IC→대소
→ 맹동→꽃동네
- ▷ 중부고속도로 진천 IC→덕산
→ 맹동→꽃동네
- ▷ 중부고속도로 음성 IC→금왕
→ 무극전적관광지→음성

■ 숙박

녹색농촌체험마을(원남 하당)	872-6672
음성관광호텔	873-8881
수레의선자연휴양림	878-2013
백야자연휴양림	878-2556

■ 맛있는 음식점

장호기든(장호탕)	872-1507
우례정(두루치기)	872-3148
금수강산(두부전문)	872-3135

■ 특산물

음성청결고추(음성농협)	872-4156
햇사례복숭아(김곡농협)	881-2499

■ 관광코스

- ▷ 음성IC→꽃동네→삼형제저수지→무극전적국민관광지→분기문생가마을→미타시→수정산성→큰비위얼굴조각공원→철박물관→감곡성당

■ 관광예보

- 대소장(3,8일), 무극장(5, 10일), 음성장(2, 7일), 감곡장(4, 9일), 삼성장(1,6일)

굴비를 진상하라굽쇼?

물이 많은 고장 음성

조선이 개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조정에서 각 지역에서 낼 진상품을 정해 내려보냈는데, 음성에는 뜻밖에 굴비를 진상하라는 통보가 왔다. 바다라고는 구경하기도 힘든 음성에서 굴비를 진상하라는 말에 지역의 모든 이들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조정에서 음성지역의 장부를 넘기다가 이 고을에 물이나 바다와 관련된 지명이 많아서 착각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음성에는 유달리 물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큰 산이나 큰 강이 없는 까닭에 저수지가 특히 많아 좋은 낚시터가 많은 곳이다. 아마도 굴비가 아니라 잉어나 붕어를 진상하라고 했으면 제대로였을 것이다.

그런 까닭인지 음성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산물의 품질이 좋다. 음성고추와 감곡복숭아가 대표적이고, 대소와 맹동의 수박도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음성 팔경

가섭사의 저녁 종소리(迦葉暮鍾), 문수산의 아침 노을(文秀朝霞), 용바위 냇가에 빨래하는 아낙네 모습(龍岩漂母), 봉학골 나무꾼의 어랑 타령(鳳壠樵夫), 까치섬 들판에 농부의 노래 소리(鶲鳥農驅), 토계울 냇가의 고기잡이와 풀파리 소리(菟溪魚笛), 수정산 골짜기의 시원한 바람(水精清風), 오리정의 비 개인 하늘에 뜬 달(梧亭齋月)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 하나가 눈 감고도 그려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들이 아닌가?



자린고비
조록 선생 유래비

돌려보기

자린고비유래비

옛이야기

자린고비 이야기

굴비를 아끼느라 천정에 매달아놓고 쳐다보며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 누가 측은하게 여겨 굴비를 선물했더니 반기기는 커녕 밥 도둑이라며 굴비를 내던졌다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자린고비가 음성 사람 조륵이었다.

조륵이 하루는 장독대의 된장 독에 파리가 앓는 것을 보았다. 조륵은 파리 다리에 된장이 묻은 것을 아까워 해서 파리를 잡으려고 쫓기 시작했는데, 결국 남한강가에 와서 파리가 강물 위로 날아가 더 이상 쫓지 못하고 강가에서 파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장이 날아간다” “장이 날아간다”

지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곳을 ‘장이난곳’으로 부르다 지금의 ‘장희나루’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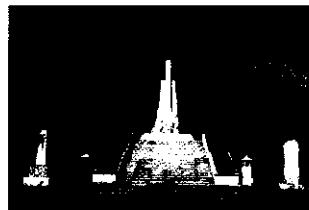
자린고비는 지나칠 정도로 아끼고 겸소하게 살았는데, 많은 재물을 모아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자인비(慈仁碑)를 세웠는데,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옛 비라 는 뜻으로 자인고비(慈仁古碑)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자린고비의 묘는 음성 인근의 충주시 신니면에 있다.

돌레볼곳

■ 무국전적국민관광지

한국전쟁때 국군이 최초로 승전하여 국군의 사기를 높인 곳이다.
1950년 7월 4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치열한 공방전 끝에 우리군이 적 6000여명을 격퇴시켰다.



■ 미타사와 가섭사

미타사입구에는 미야불상이 있으며, 동양 최대의 지정보살상이 있다. 가섭사는 고려 공민왕때 나옹 회상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 삼형제저수지

금왕에 나란히 붙어있는 금석저수지, 무국저수지, 용계저수지를 말하며, 낚시터로 널리 알려졌다.

■ 꽃동네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오웅진신부가 무국다리 밑에서 걸인들을 돌보는 최귀동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김유신의 호국기상

■ 가는길

- ▷ 중부고속도로 진천 IC → 진천 → 청주방면 → 길상사 → 사석삼거리 우회전 → 연곡리
- ▷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 이우내 → 진천방면 → 연곡리

■ 숙박

삼흥관광농원	536-3755
안골관광농원	532-0405
학생증합야영장	534-3622
진천관광호텔	533-0010

■ 맛있는 음식점

방원기든(붕어찜)	532-6770
연곡기든(칠면조요리)	533-6423
두부촌(두부보쌈)	533-9946

■ 특산물

생거진천쌀	539-3543
장미	539-3522
관상어	536-7757

■ 관광코스

- 길상사→김유신탄생지 및 태실
- 연곡리 보답사→민뢰산 등산
- 정송강사→진천농교(농다리)
- 이상설 생가(승월사)→초평저수지

■ 관광예모

- 진천장(5,10일), 이월장(2,7일)
- 덕산장(4,9일), 광혜원장(3,8일)

생거진천을 노래하라!

진천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면서도 가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이 적고, 토질이 비옥하여 예로부터 살기좋은 고장으로 꼽혔다.

비옥한 진천평야에서 나오는 쌀은 품질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좋은 품질을 자랑한다.

진천이 낳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삼국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다. 진천읍 상계리에 탄생지가 정비되어 있고, 탄생지 뒤편에 있는 태령산에는 장군의 태실과 장군이 무예를 닦았다는 자취들이 있다. 또, 진천읍 초입의 국도변에는 장군의 영정을 모신 길상사가 있다.

중부고속도로변인 문백면 구곡리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 진천농교(농다리)가 있다. 진천농교(농다리)는 고려 때의 무장인 임연이 하루만에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사력암질의 붉은 돌을 물고기 비늘모양으로 쌓아서 교각을 만든 후 상관석을 얹은 형태로 토목공학의 이치를 잘 살려 이름답고 견고하다.

진천에는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가 유명한데, 낚시터로 유명한 초평저수지 옆에는 붕어찜 전문 식당들이 빨길을 끈다.

문백의 정송강사 원편 산록에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의 무덤이 있으니 잠시 들러 송강 정철이 남긴 가사들을 음미해 볼 만하다.

백곡면 양백리 이티에 있는 배터성지는 최양업 신부가 근거지로 삼고 포교 활동을 했던 곳으로, 수많은 순교자를 낸 천주교 성지이다.



돌다리

옛이야기

농다리

누가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옛날 진천에 사는 한 처녀가 용인으로 출가는 했는데 아이 하나를 낳고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인은 결국 아이를 시동생에게 맡기고 진천으로 개거를 하였고,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다.

그 뒤 용인의 아들은 장성하여 재산을 많이 모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진천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진천에 있는 아들은 웅하지 않았고 결국 판가에 송사를 하게 되었다.

진천현감은 이 이상한 재판에 대해 고민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진천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하고, 아버지가 죽거든 어머니를 용인으로 모시고 제사도 큰 아들이 지내도록 하여라”하고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천은 토질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여 가뭄과 홍수 등이 드물어 살기가 좋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돌다리

■ 진천농교(농다리)

자연석으로 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이다.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증평 IC와 중부4터널을 지나면 오른편으로 그 모습이 잘 보인다.

■ 초평자수지

낚시터로 이름높은 S형 계곡저수지이며 저수지 옆에 형성된 봉어찜촌이 유명하다.

초평낚시터 532-6650

초평지낚시터 532-6248

■ 헤이그정사 이상설 생가

진천읍 산척리 산작마을에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생가가 있다. 선생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 정송강사

문백면 봉죽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문신이자 시인인 송강 정철선생(1536~1593)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물이 좋은 곳

■ 가는길

- ▷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 내수읍 → 초정약수
(하남기점에서 1시간 40분 소요)
- ▷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 청주 우회도로 → 충주방면 → 내수읍 → 초정약수

■ 숙박

자스민	214-5191
테마파크	212-4233

■ 맛있는 음식점

초정리에는 오리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많고, 잘 꾸며 놓은 양식집도 많다.

청일가든	213-9345
〈양식집〉	
푸른나라	212-2630
빨간지붕	212-9052

■ 특산물

청원생명쌀, 배

■ 관광코스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 손병희 선생유허지 → 한봉수묘 → 운보의집 → 초정약수

초정약수와 구라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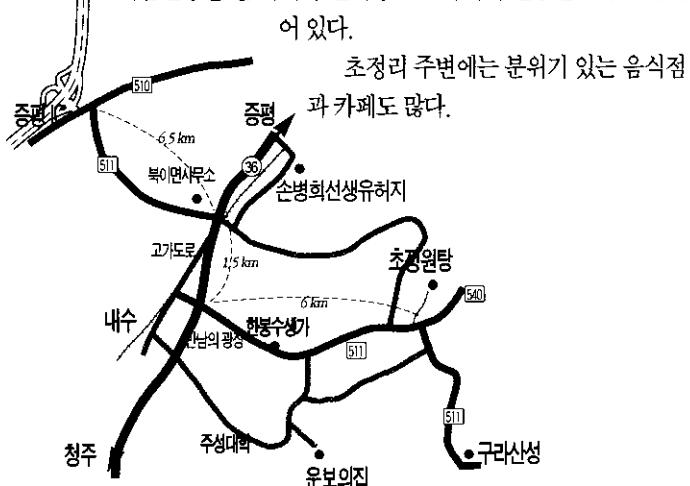
초정약수는 예로부터 “약(藥)이되고 병(病)이 낫는다”는 신효(神效)의 물로 세계 3대 광천수로 꼽히는 물이다.

일찍이 세종대왕은 초정에 두 차례나 행궁을 차리고 머물며 안질을 치료했는데, 그 효험은 직접 마셔 보고, 그 물에 몸을 담가보면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초정약수 뒤편에는 아홉말과 아들의 성쌓기 내기 전설이 있는 구라산이 있는데, 산세가 완만하여 가볍게 오를 만한 곳이다.

가까운 북이면 금암리에는 동학운동의 지도자이며 3·1독립선언의 주역이었던 민족지도자 손병희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고, 인근 학평리에는 구한말 계릴라식 의병활동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한봉수 선생의 생가터와 묘소가 있다.

또 형동리에는 한국화단의 거장 운보 김기창 화백이 노년을 보내며 작품활동을 한 사저가 전시장으로 바뀌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





돌레보기

옛이야기

세종대왕께서 눈병을 치료한 곳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일찍부터 영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비만청인 체질에다 독서에만 열중하여 일찍부터 눈병을 앓아 고생하였다.

세종대왕은 눈병 치료를 위해 온양온천과 이천온천에서 요양을 하였으나 별 효험을 보지 못하였고, 1443년에 다시 온양온천에서 요양 하였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여 다시는 온천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1444년에 청주에 맛이 후추맛 같은 초수라는 물이 있는데 여러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번에는 냉천에서 눈병을 치료하려고 작정하고 미리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내 치료효과를 시험하게 하였는데, 경과가 좋다는 보고를 받았다.

세종은 아예 오래 머물 생각으로 초정에 행궁을 짓도록 하였다.

1444년 어가 행렬이 양지·죽산·진천을 거쳐 3월 2일 초정에 도착하였는데, 세종대왕은 두 달간 요양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5월 3일 환궁하였다가, 가을에 다시 초정을 찾아 두 달간 더 요양을 하였다.

세종대왕은 이곳에서 많은 효험을 보았으나, 민폐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환궁하였다고 한다.

당시 행궁터가 현재까지 큰궐고랑, 주왕이, 주왕(駐王)리라고 불리고 있다.

(『초정약수의 세종·세조행차 사료집』, 이세열, 1999 참조)

초정약수를 이용한 목욕탕

돌레볼공

■ 손병희선생 유허지

3.1운동 당시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손병희선생의 생가. 선생의 활동기록과 유물을 볼 수 있다. (251-3287)

■ 한국의 피카소 운보의 집

운보 김기창화백의 사저이자 전시관으로 운보선생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13-0670)



■ 아홉 딸의 전설 구라산성

초정리 뒷산에는 남아선호에 의해 희생된 아홉 딸의 전설이 전해지는 구라산성의 흔적이 있다. 민간 신앙의 집산지로 출생과 무병을 기원하는 서낭터가 신재해 있다.

■ 번개대장 한봉수 묘

내수읍 학평리에는 구한말 초정지 역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여 일본군을 공격한 의병장 한봉수 선생의 묘소가 있다.



기로수터널

상당산성

■ 청주 진입

▷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 IC,
청원IC, 오창 IC

■ 숙박

리마디플라자호텔	290-1000
리호관광호텔	233-8800
명암파크관광호텔	257-7451
뉴베리관광호텔	235-8181
백제관광호텔	236-7979
관광호텔갤러리	267-1121

■ 관광코스

한국공예관 → 고인쇄박물관 →
예술의 전당(천년대종) → 용화
사석불상군 → 백제유물전시관
→ 정북동토성

무심천이 유유히 흐르는 천년고도 청주

아트막한 구릉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청주는 큰 가뭄이나 큰 장마가 없고, 험하지도 않고 자연조건이 잘 조화를 이룬 살기좋은 곳으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곳이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신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는데, 미호천변에 정북동토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신봉동에서는 백제의 고분군이 발굴되었다. 산성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당산성도 삼국시대에 처음 쌓은 것이라고 전한다.

청주는 그 모양이 배를 닮았다 하여 옛이름이 주성인데, 국보 제 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은 배의 중심을 잡아 청주가 큰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청주를 잘 알려면 시내 한 가운데 있는 중앙공원을 꼭 들려야 한다. 이곳에는 청주목사를 지낸 율곡 선생이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서원향약비가 세워져 있고, 임진왜

란 때 청주성탈환의 기록인 조현

과 영규대사 전적비 등이 있다. 또 충청도병마절도사 영문이 있고, 고려 공민왕이 과거를 보였다는 망선루가 복원되어 있고,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洋夷侵犯 非戰卽和 主和賣國)」이라고 새겨진 대원군의 척화비가 있다.



우리 문화의 자부심 직지와 고인쇄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직지』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고인쇄박물관에는 금속활자의 제작과 인쇄과정을 움직이는 인형을 통해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며, 세계 인쇄문화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고 있다. 또 직접 금속활자인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도 갖추고 있어 어린이들의 견학 학습지로 인기가 높다.

청주에서는『직지』를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직지축제를 열고 있으며, 직지오페라를 제작하여 공연하기도 하였다.

■ 직지 이야기

구텐베르크의 성서보다 78년 앞서

『직지』는 1377년 고려 우왕 때 청주 홍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본인『구텐베르크 42행 성서』보다 78년 이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홍덕사는 아쉽게도『직지』의 인쇄제작 후 자취가 없어졌는데, 1985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던 운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홍덕사’라고 쓰인 금구(金鉤)가 발견되어 위치가 확인되었다.

홍덕사지에는 금당이 복원되어 있고, 옆에 고인쇄박물관이 세워져 각종 고인쇄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돌려볼 곳

■ 가로수 터널

500여년된 흘리터너스로 사계절의 운치가 독특한 청주의 관문이다.

■ 중앙공원

율곡선생의 서원향악비, 임진란때 청주성을 탈환한 조현 전적비, 압각수, 맹선루가 있다.



중앙공원에 있는 서원향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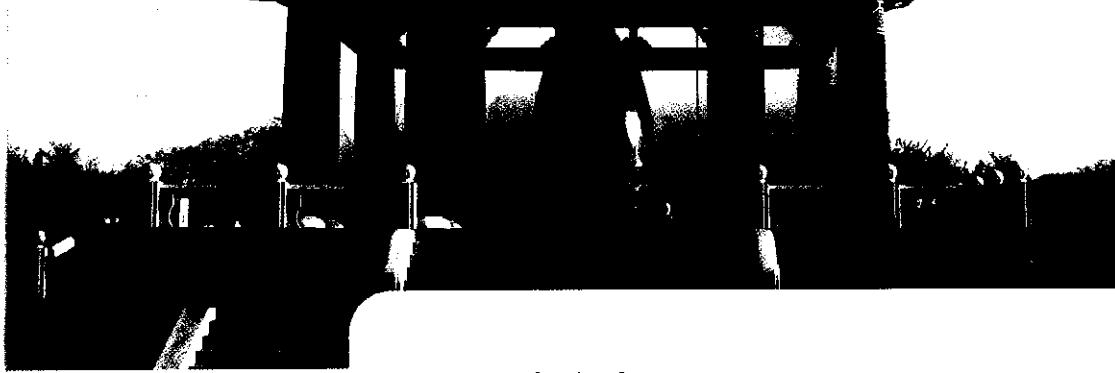
■ 상당산성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전망이 좋다. 성곽을 따라 둘면 1시간 남짓 걸린다. 산성마을에는 토속음식점이 많이 있다.

■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의 모양이 배를 닮아 둑대를 세워 중심을 잡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철당간의 세 번째 철통에 조성내력이 세계적 있다.





충북천년대종

첫 타종으로 새로운 천년을 열다

■ 청주 진입

- ▷ 경부·충부고속도로 청주 IC → 청주시내 진입 → 청주 예술의 전당 앞

■ 천년대종 타종

- ▷ 제야, 3·1절, 광복절에는 정기적으로 타종
- ▷ 어린이날과 한가위에 타종
- ▷ 타종 문의 및 신청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220-3961~7

■ 천년각

- ▷ 전통한식목조 팔작지붕에 모로단청을 하였다.
- ▷ 순수한 국산 목재 약 4만 6천 제를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지름이 51cm에 이르는 거목을 써서 기둥과 지붕의 비율이 1:1을 이룬다.

■ 관광코스

- 충북천년대종 → 고인쇄박물관 → 한국공예관 → 용화사석불
- 상군 → 백제유물전시관 → 국립 청주박물관

청주 예술의전당 광장에 있는 충북 천년대종은 격동의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충북인의 기상과 슬기를 한데 모아 미래와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담아 제작되어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 1월 1일 첫 타종되었다.

청동 21톤으로 제작, 21평의 천년각에

천년대종은 21세기에 의미를 두어 청동 21톤(5,600판)으로 제작되었으며, 종의 높이는 3m 89cm, 바깥 지름만 2m 24cm, 하대의 두께는 19.5cm ~ 20.5cm에 이른다. 서울대학교 나형용 교수가 설계하였으며, 성종사(대표 원광식; 무형문화재)에서 주조하고 서울대정밀기계 공동연구소가 최상급 품질을 인증하였다.

또한, 천년대종은 신라 성덕대왕신종(에밀래종)과 청주 운천동에서 출토된 동종을 모델로 하고 있다. 문양은 나라꽃인 무궁화와 충북도의 꽃인 목련을 상대와 하대에 배열하였으며, 당좌는 충청북도와 각시 군의 삼벌마크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화합과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천년각은 121평의 부지에 21세기를 의미하는 21평으로 건립되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각의 16개 기둥 모두를 목조로 사용하였으며 고려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고 경복궁 복원사업을 완성한 신옹수 대목장(무형문화재)이 맡아 건립함으로써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천년대종과 천년각이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되도록 공을 들였다.



소원을 이루어 주는 종

천년대종은 제야, 31절, 광복절 등 공식 행사에서 3회씩 7번을 이어 모두 21회를 타종한다. 21회는 21세기를 의미하고 3회는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알리는 의미이다. 공식 행사 후에는 일반인에게 타종을 개방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타종할 수 있으며 설날, 어린이 날, 한가위에도 소망을 기원하는 타종을 세 번씩 할 수 있다.

첫 번째 종소리는 사랑을, 두 번째 종소리는 희망을, 세 번째 종소리는 안녕과 번영을 이루어 준다고 한다.

충북 천년대종 명문(銘文)

천년대종의 외벽에는 충북의 발전을 기원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모두 121자로 100은 시작과 완성을, 21은 21세기를 뜻한다. 글은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작성하고, 운곡 김동연이 글씨를 썼다.

축복의 땅 아름다운 충청북도여
희망의 천년을 새로이 열며
여기 소망과 의지를 담아
천년대종을 세우나니
충북인의 높은 기상과 슬기 하나로 통쳐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리라
장엄한 종소리 하늘 문을 열고
온누리에 울려퍼져
이 땅의 응성과 평화를 노래하라
도민의 복록이 세세 무궁토록 넘치게 하라

둘레볼곳

■ 운천동출토 동종

청주 운천동에서 출토된 종으로 통일신라말부터 고려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제1167호로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 높이 78cm, 지름 47.4cm의 중간크기 범종이다. 종신에 끓어 앉아 악기를 연주하는 상과 끓어 앉아 학장하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상의 비천상이 있다.



■ 정복동토성

미호천가의 논 가운데 사각의 모양으로 흙을 쌓아올려 만든 토성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쌓여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청호반의 갈대숲

■ 가는 길

- ▷ 경부고속도로 청원 IC → 척산 → 회당 → 문의
-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 대청댐 → 호반도로 → 문의

■ 숙박

- | | |
|---------|----------|
| 온화자연휴양림 | 297-3424 |
| 청소년수련관 | 297-9009 |

■ 맛있는 음식점

- | | |
|----------------|----------|
| 신선매운탕 | 297-4320 |
| 오가리 횟집촌(대청댐 옆) | |
| 대청호기든(도당산 공원) | 297-7171 |
| 금수장(현도안) | 932-5454 |

■ 특산물

- 청원생명쌀, 팔기, 배, 허브,
포고, 포도

■ 관광코스

- ▷ 청주 → 문의 → 청남대 → 문의 문화재단지(양성산) → 현암사 → 대청호 → 하브랜드
- ▷ 청주 → 산체호사당 → 옥희0경 → 미동산수목원

■ 관광예보

- 대청호 건너편 노현은 구석기 동굴유적인 두루봉 동굴이 있던 곳이다.
- 문의장(1, 6일) 미원장(4, 9일)

호반의 풍경이 정겨운

대청호와 문의문화재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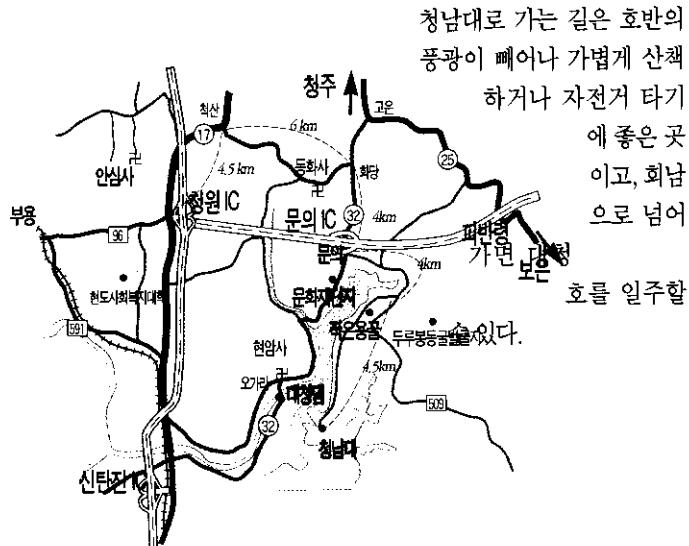
대청호는 충북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과 대전시 동구 대덕구에 둘러싸인 저수지 길이 80km의 국내 3번째 규모의 호수로, 물을 막고 있는 대청댐은 문의면 구룡산 중턱에 있는 현암사나, 팔각정에서 내려다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다.

대청호에 잠긴 문의는 한때 청주에 비견되는 큰 고을이었는데, 사람들은 지금의 미천리로 옮겨살고, 삶의 모습은 문화재단지에 옮겨놓았다.

문화를 품고 있는 양성산은 등산로가 완만한데, 능선에 오르면 대청호가 한 눈에 보여 평일에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대청호 맞은편 노현리에는 산 속에 노천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구석기시대 동굴 유적으로 유명한 두루봉 동굴 유적이 발굴된 곳이다.

특히 4만년 전의 어린이 뼈가 발굴·복원되어 홍수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돌나기

옛이야기

다람절 바람혈 이야기

대청댐 옆 산 중턱에 현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벼랑에 매달린 모습이라 다람절이라 불리는 이 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언젠가 이 절에 주지스님이 사미승 한 명을 데리고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겨울에 대폭설이 내려 교통이 완전히 끊기고, 절이 고립되었다. 산사에 공양은 떨어지고, 결국 스님과 사미승은 굶주림에 쓰러졌는데, 스님의 꿈에 보살이 나타나 절 뒤편에 가보라고 하였다.

스님이 정신을 차려 절 뒤편에 가보니 작은 바위 구멍앞에 쌀이 한 줌 흘러나와 있는 것이었다. 스님은 그것으로 굶주림을 면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쌀이 한 줌씩 흘러나와, 더 이상 곡기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후 눈길이 열린 봄날, 인근을 지나던 수도승들이 들렀다. 수도승들의 곡기를 준비하던 사미승은 바위구멍에서 한줌 한줌 쌀을 받아내다가 불현듯 조금증을 느껴 얼른 쌀을 받아낼 마음으로 들고 있던 부지깽이로 구멍을 쿡쿡 쑤셔댔다.

그런데, 바위구멍에서 쌀탄내가 나더니 쌀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바람만 나왔다는 것이다. 그 뒤로 그 구멍은 바람혈이라 불렸다.

머리가 돌아간 석불



동화사에는 머리가 돌아간 석불이 있다.

임진왜란때 청주로 진격하던 왜장은 동화사에 들렀는데, 석불이 머리를 돌려 외면하였다. 왜장은 화가 나 석불의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떨어지면서 왜장의 빌등을 찍었다. 왜장이 다리를 크게 치자 왜군이 우왕좌왕하였는데, 이틈에 우리 군대가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한다.

문화재단지

둘러볼곳

■ 선각자 산체호사당

역사가, 언론인, 독립운동가인 신체호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낸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선생의 묘와 사당이 있다.



■ 고즈넉한 산사 안심사

신라 해공왕 11년 진표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비구니절이며 석기란산일 불사가 유명하다.



■ 옥갈고 꽃같은 육회명장

청원군 미원면 달천강가의 명소들이다. 계곡 물이 많고, 주위 경치가 수려하여 기족, 단체 휴양지로 적합하다.





대청호반의 관광명소

■ 가는길

- ▷ 경부고속도로 청원IC→척산
→화당→문의
-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대청댐→호반도로→문의

■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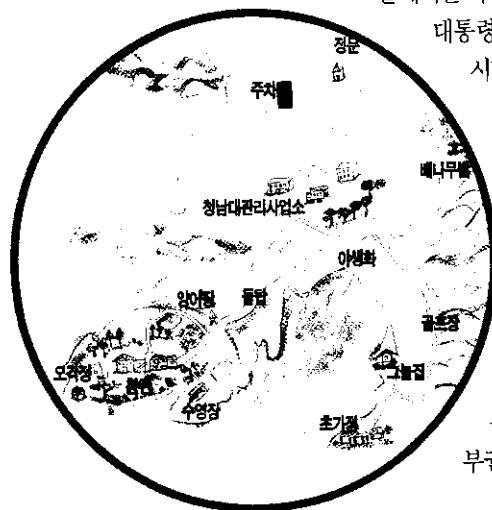
옥화자연휴양림 297-3424
청소년수련관 297-9009

■ 특산물

청원생명쌀, 딸기, 배, 허브,
포고, 포도

■ 관광코스

- ▷ 청주→문의→청남대→
문화재단지(양성산)→현암사→
대청호→허브랜드
- ▷ 청주→신체호사당→옥화
9경→미동산수목원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대청호반에 자리잡고 있는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을 1983년부터 대통령의 공식별장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청남대는 일찍부터 절대권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호기심을 끌었는데,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2003년 4월 18일 충청북도로 이관되어 민간에 개방되면서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대청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틀립나무 가로수길 진입로는 호수면과 어울리면서 사시사철 수려한 풍광을 자아내고, 잘 가꿔지고 정돈된 청남대 내의 시설들은 찾는 사람에게 사뭇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청남대는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대통령을 계기로 1983년 6월에 착공하여 6개월만인 1983년 12월에 완공되었다. 건물에서는 아방궁과 같은 호화로움보다는 수수함이 진하게 느껴진다.

대통령의 자취가 남아 있는 않지만 오각정, 미니골프장, 낚시터, 조깅코스, 초가정 등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향이 배어 있다.

이곳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휴가와 설휴기를 비롯하여 매년 4~5회, 많게는 7~8회씩 이용하여 20여년 간 총 80여회 400여일을 보냈다.

휴양중에도 항상 국정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유지되었으며, 식수원인 대청호를 끼고 있어 최고의 수질 정화 시설이 운영되었다. 청남대는 국가 1급 경호시설로서 야생화와 동물의 산보고이며 산책과 휴식, 체험, 역사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중부권의 명소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러보기

옛이야기

천년 전의 예언과 임금왕 지형

일찍이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현암사에 들렀다가 산 아래 금강 가의 지형을 둘러보고 이곳에 장차 세 개의 호수가 생길 것이며, 임금이 머무는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천년이 지난 지금 유유히 흐르던 강줄기가 막히고 거대한 호수가 생겼는데, 그곳에 미호(渼湖), 용호(龍湖), 가호(佳湖)라는 지명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원효대사의 예언대로이다. 또한 이곳에 청남대가 생겼으니 임금이 머무리라는 예언이 맞은 것이다.

청남대가 있는 지형을 하늘에서 보면 놀랍게도 임금왕(王)자의 글씨가 선명한데, 호수로 뻗은 산의 능선이 빚은 조화이다.

아홉 마리 용이 승천한 곳

청남대 주변에는 용과 관련한 지명이 많이 있다.

옛날 금강변에 열 마리의 이무기가 살았는데, 모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를 꿈꾸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성격이 포악하여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였다. 이에 산신이 노하여 용들을 굴에 나누어 가뒀는데, 못된 이무기는 이 또한 참지 못하고 굴을 빠져나와 다시 나쁜 짓을 하였다.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입구를 막아 물웅덩이에 못된 이무기를 가두었고, 이무기는 결국 모래벌에서 몸부림치다 죽고 말았다. 이무기를 가둔 곳은 지금의 청남대 양어장 앞쪽의 금강가에 있던 형강(荊江) 이란 마을이고, 이무기가 죽은 곳은 지금의 초가정 앞 금강가에 있던 지명(止命)이란 곳이다. 나머지 아홉 마리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하였으니, 그곳이 바로 큰용굴과 작은용굴이다.

청남대관광

■ 관광 안내

- 교통문제,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1문 청남대 전방 약 4km)에서 일반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청남대 안에서는 취시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람시간: 약 2시간 가량 소요.
-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단체 예약

- 전화: (043)220-6412-4
- 온라인 예약 가능

■ 입장권 판매

- 문의 청남대 대표소에서
08:30~16:30
(12월, 1월 09:00~15:30)
-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노인·어린이 3,000원,
(30인이상 단체 1,000원씩 할인)

■ 입장시내버스 운행

- 출발: 문의면 청남대 대표소
- 운행: 09:00~16:30
(12월, 1월 09:00~15:30)
- 운행 간격: 30분
- 요금(왕복): 일반 2,400원 /
학생(초, 중, 고) 2,000원
- 문의 청남대 관리사업소
(043)220-6412-4
- 홈페이지
chnam.db21.net



법주사 전경

■ 가는 길

- ▷ 청원·상주 고속도로 보은IC
(15분소요) 보은읍 → 속리산
→ 중판삼거리 → 속리산
- ▷ 청원·상주 고속도로 속리산
IC (20분소요) → 장내삼거리 →
삼가터널 → 금목재 → 속리산

■ 숙박

레이크힐스호텔속리산	542-5281
속리산유스โฮ스	540-7777
수련연수호텔	542-5798
서당골관광농원	542-0981
멀티재자연휴양림	543-6282

■ 맛있는 음식점

산토불이식당	543-0433
홍원식당	543-4309

■ 특산물

보은송로주	542-0774
보은대추	544-3414
속리산전통식기(운봉사)	544-3649
도실공예	542-2447
보리수암자(연일당)	544-3765
보은대추한과	543-3040

■ 관광코스

- ▷ 삼간산성 → 동화동민회명기
념공원 → 보은속리정이품종 →
속리산 → 솔향공원 → 물리공원
→ 정부안 소나무 → 신령국가목
→ 장내리

은혜로운 땅 보은

속리산과 법주사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은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뒤에 법주사에서 원혼들을 달래는 천도불사를 크게 열고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한다.

원래 이곳 지명은 '보령(保齡)'이었는데, 태종은 '은혜를 깊는다'는 뜻의 '보은(報恩)'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최근 법주사에 동양 최대의 금동미륵대불이 위용을 드러냈다. 높이 33m의 청동불이 개금불사를 통해 온몸으로 빛을 뿜어내니 부처님의 광명을 온누리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법주사 경내에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모두가 귀한 국보요, 보물들이다. 국내 유일의 5층 목탑인 팔상전, 대웅보전과 원통보전, 쌍사자석등, 석연지, 사천왕석등, 마애여래의상 등이 모두 귀중한 문화유산들로 가히 한국 불교미술의 꽃이요, 총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법주사 경내를 돌아 속리산으로 들어서면 산은 어느새 속인의 어깨에서 풍진을 걷어내고 푸근하고 넓은 품으로 맞아준다. 속리산은 백두대간을 잇는 명산으로 대간을 따라 8개의 봉우리와 8개의 바위 누각이 줄을 이어 한 번 산행으로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다.

수리티를 넘어 회남대교를 지나 대청호반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곳이다.



돌려보기

속로소·선봉

옛이야기

나귀가 제자리를 맴돈 뜻은?

호서제일의 명찰로 꼽히는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의신조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인도 천축으로 구법여행을 갔다 돌아온 의신조사가 훤 나귀에 불경을 싣고 절 지을 터를 찾았더니 지금의 법주사 터에 이르자 나귀가 더 가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았다고 한다.

의신조사가 주변을 살펴보니 절을 지을만 하여 이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법이 머문다하여 법주사라 했다는 것이다.

그 후 혜공왕때(776년) 진표율사가 중창하고부터 대찰의 규모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삼국유사에 진표율사의 행적이 적혀 있다.

보물 제216호인 추래암의 마애여래의상의 원편 아래로는 짐을 실은 말과 사람, 끓어았은 소 등이 회미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소들이 진표율사 앞에 엎드려 법을 구했다는 법주사의 또 다른 창건설화를 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려볼 곳

삼년동안 쌓은 삼년산성

보은읍 어암리 오정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석축산성이다. 성을 쌓는데 삼년이 걸렸다고 한다.

정이풀송과 정부인소나무

세조의 말을 알아들어서 벼슬을 얻은 정이풀송과 내외지간이라는 정부인소나무가 서원계곡에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부인소나무는 줄기가 두 개로 길러져있다.



99칸 가옥 - 선병국 가옥

1919년에 지은 전통가옥. 삼기천 개울이 삼각주를 이룬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이 집은 건축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고 현재는 후손이 거주하며 연중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동학의 합성 - 장내리

장안면 농협 삼거리 서원계곡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마을은 척양 척외 보국인민의 가치를 높이 든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이 된 보은척회가 열린 곳이다.



정지용 문학관

장계관

■ 가는 길

▷ 경부고속도로 옥천 IC → 옥천
읍내

■ 숙박

금천관광농원	732-4580
장령산자연휴양림	733-9615
덕대산관광농원	731-8888
명가	733-7474
옥천관광호텔	731-2435

■ 맛있는 음식점

조령리 도리뱅뱅이 마을	(금강휴게소 옆)
금강을갱이 2호점	731-1988

■ 특산물

포도(옥천농협)	730-6007
마 (이원면 자탄리)	732-4378

■ 관광코스

▷ 정지용생가 → 육영수생가,
춘추민속관 → 옥천체육공원(정
지용사비) → 이지당 → 장계관
광지 → 후율당

■ 관광예보

- 옥천에서는 매년 5월 자용제,
- 9월 중봉축제가 열린다.
- 옥천장(5, 10일) 청산장(2, 7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의 고향, 옥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옥천은 이제 완연한 정지용의 고장이요, 「향수」의 고장이다.

정지용이 태어난 생가는 옥천의 옛사가지인자라 지금은 벌도, 실개천도 모습을 찾기는 힘들지만, 지용의 생가는 잘 복원되어 있고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을 볼 수 있는 정지용 문학관과 시인의 시문학을 테마로 하여 장계관광지에 멋진 신세계 시문학 공원을 조성하였다. 또, 매년 5월이면 지용제가 다채롭게 열리고, 전국의 문학지망생들이 지용시의 뿌리를 찾아 줄을 잊고 있다.

옥천은 삼국시대때 신라와 백제가 명운을 걸고 싸우던 현장이다. 옥천의 서편으로 군북면과 군서면에는 환산성과 관산성의 터가 있고, 이곳을 되찾으려던 백제의 성왕은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결국 구진벼루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라와 백제의 명운은 갈라진 것이다.

옥천은 중봉 조현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현선생은 옥천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옥천에서는 매년 중봉충렬제를 열고 있다.

장계관광지에는 신라시대때 만들어졌다는 청석교가 옮겨져 있고, 대청호반의 명월암은 구한말 개화사상가였던 김옥균에게 순정을 바친 기생 명월이 금강에 투신한 곳으로, 도로가 호젓하고 운치가 있다.

청산면 한곡리는 동학의 2대교주인 최시형이 은거했던 곳으로 최시형은 보은의 장내리와 한곡리를 오가며 동학의 세를 키웠다. 청산면 교평리에는 동학군재기포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온라인 가제기

돌려보기

옛이야기

효자고개의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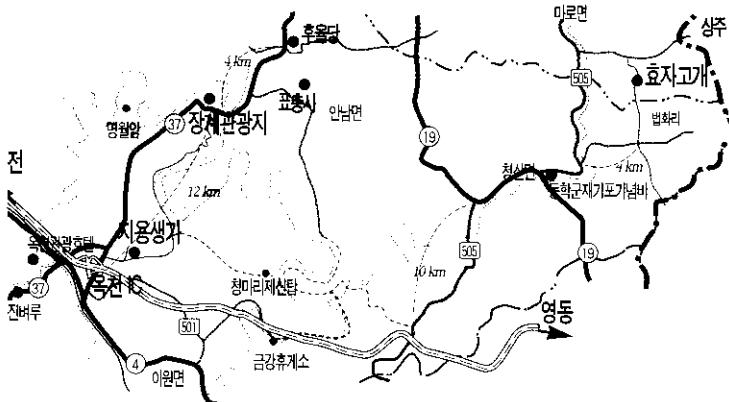
1974년 1월 22일. 설날 그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경북 상주군 화서면에 사는 재수의 아버지는 설을 쇠기 위해 열살짜리 재수만 데리고 고향인 옥천군 청산면 법화리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보은군 마로면에 이르렀을 때쯤 눈보라가 더욱 기승을 부려 아버지는 잠시 쉬어가려고 길목 술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 술을 째나 마시게 되었다. 사람들은 극구 말렸으나 술이 많이 취한 정씨는 술 기운에 추위도 모르고, 설을 쇠기 위해 꼭 고개를 넘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눈보라 속에 길을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날 사람들은 고갯마루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였다.

어린 정재수군이 자기의 외투를 벗어 아버지를 덮어주고 자기의 몸으로 아버지를 꼭 끌어안은 채 죽어있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눈길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 하자,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발 벌둥치다가 이내 자기 옷을 벗어 술취해 쓰러진 아버지를 덮어주고, 꼭 껴안고 있다가 그대로 동사하고 만 것이다.

그 때부터 청산면 법화리 숫골에서 보은군 마로면 사이의 이 고개를 정재수 효자고개라고 부르고 있다.



돌려볼 곳

장계관광지

휘감아도는 대청호반의 한눈에 들 어오는 곳에 옥천향토전시관과 정 자용시인을 테마로 한 "멋진 신세 계"가 있다.

이자당과 후율당

보은현감으로 있던 조현선생은 율곡이 죽자 관직을 버리고 옥천으로 건너와 후율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매진하다가 임진란때 의병을 일으켰다.



관산성과 구진벼루

백제의 성왕은 관산성을 공격하다 김유신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장군에게 사로잡혀 구진벼루에서 침수를 당하였다.

모기가 없는 청석교

옥천군 군북면 증악리에 있었던 청석교는 660년 산리 문무왕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강감찬장군이 모기를 쫓은 뒤로 모기가 없다고 한다. 청석교는 장계관광지로 옮겨 있다.





나라의 안녕을 빙 공민왕

■ 가는 길

- ▷ 경부고속도로 영동 IC → 영동읍 → 옥천방면 → 난계사당 → 양산면 누교리(천태산)
- ▷ 경부고속도로 옥천 IC → 이원 → 난계사당

■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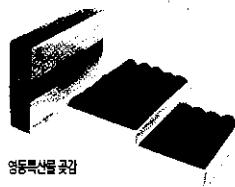
갈기산관광농원(양산) 744-7500
광운관광농원(양산) 744-9088

■ 맛있는 음식점

선희식당 745-9450
팀성식당 743-9098
용빈가든 744-4668
기선식당 743-8665

■ 특산물

곶감, 호도, 포도, 표고버섯
심천수박



■ 관광코스

난계사당 → 난계국악박물관 →
국악기 제작촌 → 옥계폭포 →
양산별경 → 천태산 영국사

■ 관광예보

- 영동장(4,9일) 양산장(1,6일),
심천장(3,8일)

천태산 영국사

서기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피난길에 올라 지금의 영동 양산면 누교리를 지날 때 천태산 쪽에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려왔다. 왕이 물으니 그 절이 대각국사 의천이 있었던 국청사라고 하였다. 공민왕은 개울에 물이 불어 건너기가 어렵자 칡넝쿨로 다리를 만들어 절에 올라가 국태민안을 빌었다. 이때부터 절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영국사(寧國寺)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칡넝쿨로 다리를 만들어 건넌 곳을 누교리(樓橋里)라 부르게 되었다.

공민왕은 한동안 인근 마니산 계곡에서 머물며 정사를 돌보았다. 마니산 줄기의 어류산(御留山)은 공민왕이 머물렀던 곳이고, 국사봉(國事奉)과 6판날은 3정승 6판서를 거느리고 국정을 논의하던 곳이며, 태봉은 왕자의 태를 봉안한 곳이다.



옛이야기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서기 655년 백제가 신라의 강성함을 견제하기 위해 양산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자 신라 태종 무열왕은 화랑 출신인 김흠운(金欽運)에게 백제군을 막도록 하였다.

김흠운은 신라군을 이끌고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새벽녘에 백제군의 기습을 받아 삽시간에 전세가 기울어졌다. 그때 부관이 “지금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워 비록 장군이 싸워서 죽는다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라며 후퇴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김장군은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맡겼거늘 이를 알든 알지 못하든 어찌 명예만 구하리”라고 말하며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후에 사람들은 양산전투의 이야기로 양산가를 지어 불렀다.

양산 지방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양산가는 다음과 같다.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 모령이 돌아서 양산을 가세
난들 가세 배 잡아라고 /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 잉어가 논다 잉어가 논다
양산 창포장에 잉어가 논다.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 자리가 논다 자리가 논다
양산 백사장에 금자리가 논다.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 장계가 논다 장계가 논다
양산 수풀속에 무구리 장계가 논다.

양산팔경의 하나인 강선대

둘레볼곳

■ 송호관광지

금강 상류의 맑은 물과 100년 이상 된 송림이 어우러진 가족휴식 공간이다. 아의 물놀이장에는 유아풀, 유수풀, 슬라이드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양산경-영국사, 강선대, 비봉산, 봉황대, 험벽정, 여의정, 자풍당, 용암

■ 육계폭포

월이산 남쪽 계곡에 20여 미터를 나는 듯 떨어지는 총칭 제일의 폭포이다. 박연이 대금을 취주하여 박연폭포로도 불린다.



■ 난계국악기체작촌

국악기를 직접 제작하는 곳으로 난계시당 옆에 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을 모두 제작하며, 주문제작 및 판매도 한다. (742-7208)



물한계곡

달이 놀다니는 월유봉

■ 가는길

▷ 경부고속도로 황간 IC → 상촌
→ 물한리

■ 숙박

물한리 민박
조동산촌마을

■ 맛있는 음식점

한천기든(황간 쑤거리회)

744-9944

■ 특산물

곶감	744-7706
김식초	742-0908
표고버섯	742-2061
실호두	743-3580
사슴에기스	744-4808
산골오징어	743-1185

■ 관광코스

- ▷ 동산 황간 IC → 물한계곡 → 황룡사 → 삼도봉 → 석기봉 → 민주지산
▷ 산촌체험 황간 IC → 도미령
→ 조동산촌마을 → 무주 IC

■ 관광예보

- 상촌장(1,6일) 황간장(2,7일),
매곡장(5,10일) 영동장(4,9일)

그곳에 별천지가 있었네

민주지산 아래 심산유곡

백두대간을 잇는 소백의 줄기가 품듯이 휘감고, 각호산, 천만산을 잇는 줄기가 다시 북으로 낚시바늘처럼 차고 올라 좀처럼 길을 내주지 않으니 가까운 듯 하면서도 외전 곳이 바로 영동의 동쪽, 황간에서 민주지산 아래 물한계곡까지이다.

삼도봉, 석기봉, 민주지산을 잇는 능선은 등산객들에게는 최고의 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고, 물한계곡은 한 여름에도 발이 시릴 만큼 계곡이 깊어 여름철이면 계곡 피서객들로 늘 붐빈다.

산길을 달려 도마령을 넘어서면 바로 조동리인데, 이곳에서는 산촌 수련원에 여장을 풀고 산촌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황간에서 901번 도로를 따라 영동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달리면 원촌리 길가에서 왼쪽으로 달밤의 풍경이 유명한 월유봉이 나온다.

월유봉의 기암과 휘감아 도는 강물이 만들어 내는 비경을 한천팔경이라 하는데, 가을 단풍과 함께 겨울 설경이 빼어난 곳들이다.

이곳은 우암 송시열이 병자호란으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항복하자 속세와 인연을 끊으려고 은거했던 곳이다.

황간에서 상주방면으로 49번 도로를 따라가면 포성봉 아래 청정 계곡인 석천 계곡과 천년고찰 빈야사를 둘러볼 수 있다.

황간에서 영동방면으로 달려 고속도로를 지나면 곧바로 노근리에 닿게 되는데, 오른편으로 경부선 철길 아래를 지나는 굴다리가 바로 6·25 때 미군들에 의해 양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비극의 현장이다.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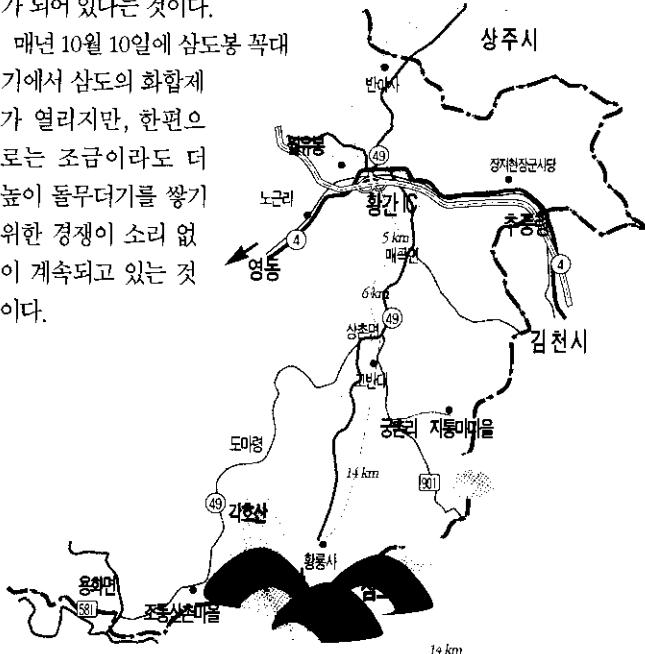
삼도봉에 돌무더기 쌓기 경쟁

충청·경상·전라의 삼도가 만나는 삼도봉 꼭대기에는 돌무더기가 세 곳에 쌓여 있어 눈길을 끈다.

옛날에 삼도의 기가 서로 경쟁하다 부딪쳤으나 삼도봉으로 하나가 되어 지세의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삼도의 지신들이 사람의 힘을 빌어 돌탑을 쌓아 좀 더 높은 지세에 이르고자 하였는데, 이는 지세가 높은 쪽의 도가 길하고 성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삼도봉에 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는 도를 향하여 돌무더기를 쌓아 세 무더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년 10월 10일에 삼도봉 꼭대기에서 삼도의 화합제가 열리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이 돌무더기를 쌓기 위한 경쟁이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즈동산총봉경

둘러볼곳

■ 달밤의 바경 - 월류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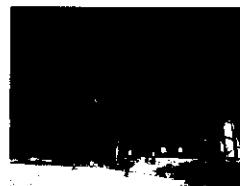
황간에서 서북방으로 우뚝 솟아 있는 월유봉은 절벽이 공중에 우뚝 솟아 높고 수려하며, 그 봉우리에 달이 걸려 있는 정취가 유품이다.

■ 산촌체험 조동 산촌마을

민주자산, 각호산, 천만산 자연속에 산간 오지마을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곳곳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 천년고찰 - 반야사

신라 성덕왕 27년(728년) 원효대사의 수제자인 상원학상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안근 백화산 포성봉, 석천계곡도 둘러볼만하다.





반기문 평화랜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 가는 길

- ▷ 중부고속도로 음성 IC → 금왕
→ 무극전적관광지 → 음성 → 원남
- ▷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 도안
→ 행치마을

■ 숙박

- 녹색농촌체험마을(원남 하당)
872-6672
- 수레의산자연휴양림
878-2013
- 백아지연휴양림
878-2556

■ 맛있는 음식점

- 장수촌
872-1507

■ 특산물

- 음성청결고추(음성농협)
872-4156
- 햇사례복숭아(감곡농협)
881-2489

■ 관광코스

- ▷ 음성IC → 꽃동네 → 삼형제저수지 → 무극전적국민관광지 → 반기문생가마을 → 미타사 → 수정산성 → 큰바위얼굴조각공원 → 철박물관 → 김곡성당



반씨 손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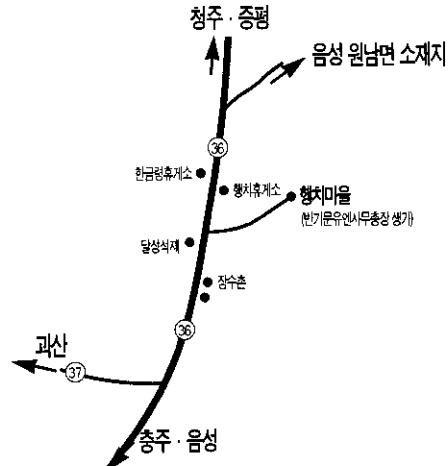
풍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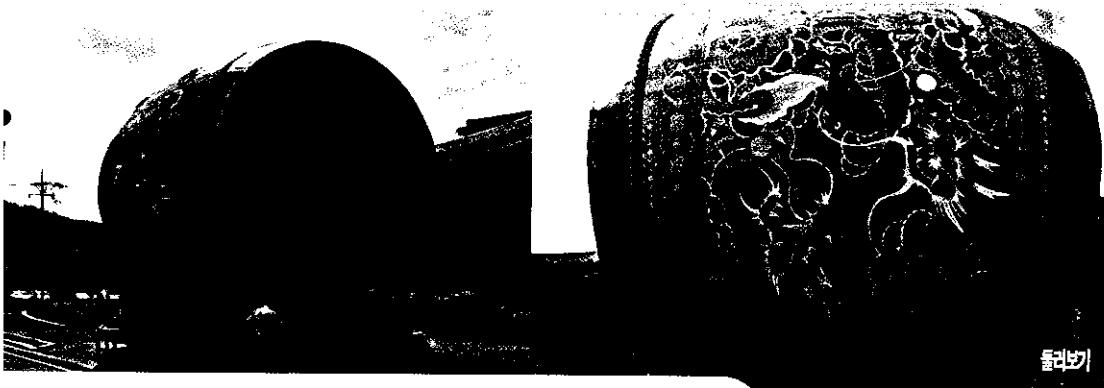
음성 행치마을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행치마을에 전국의 풍수전문가들의 관심이 줄을 잇고 있다.

풍수전문가들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면서도 마을 전체는 온화한 느낌을 준다며 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미지와도 닮았다”고 한다.

한 풍수지리학 교수에 의하면 반 유엔사무총장의 생가·선영에 대해 선학인가형(仙鶴引鶴形·고아한 학이 수레를 끄는 형국)으로 표현했다. 이 뜻은 고상하고 우아한 학이 수레(백성 등 전 세계인을 태운)를 끌고 공동체의 선을 향해 비상하는 형국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보덕산이 반 유엔사무총장의 생가를 좌우에서 감싸는 가운데 오른쪽 봉우리가 강한 기운을 갖고 있어 반 유엔사무총장이 고향에서 보다는 타향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돌려보기

천고

세계최대북 "천고"

난계 박연선생의 얼과 혼이 깃든 국악의 분향인 영동은 많은 국악 관련 시설과 문화들이 있다. 북은 우리 국악기 가운데 대표적인 타악기로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심성을 울리는 소리로 때론 웅장한 소리로 희망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세계 최대 북 천고(天鼓)의 제작으로 국악의 공장 영동의 명성과 군민 여러분의 자긍심이 우렁차고 기운찬 북 소리처럼 만방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다.

천고(天鼓)는 하늘의 북으로 지상 어디에도 없는 세계 최대 북으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천고를 두드리면 청명하고 웅장한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천고라 명하게 되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타악기 이석제 장인의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결과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4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지난 2011년 7월 6일 영국기네스월드레코드(GWR) "세계 최대 북"에 등재되었다.

종전 이 분야에 등재된 북은 2000년 일본 아사노 타이고사에서 제작한 북지름 4.8M, 북길이 4.95M 무게 2톤의 무게로 천고는 이 북을 훨씬 능가하는 크기이다.

천고제작에 사용된 목재는 소나무 원목으로 24,000채(15톤 트럭 4대 분량), 가죽은 소 40 여마리 가죽이 사용되었으며, 천고의 웅장함을 더하기 위하여 다섯 마리의 용이 휘감는 문양의 오룡(五龍)으로 단청을 하였다.



■ 가는길

▷ 경부고속도로 → 영동IC→ 19번국도 영동방면→영동읍→ 4번국도오천방면→양강교 끝에 서 우회전

■ 숙박

나이스파크(심천) 742-8788

■ 맛있는 음식점

신미식당(심천)	742-7002
금강식당(심천)	742-6467
대동버섯손칼국수(심천)	745-6617
악수터마집(심천)	742-7877
악수한우촌(심천)	742-7077

■ 특산물

곶감, 호도, 포도, 표고버섯, 심천수박

■ 관광코스

▷ 난계국악박물관→국악기제작촌→국악체험전수관→옥계폭포→천태산 영국사

■ 관광예보

영동장(4.9일), 심천장(3.8일), 양산장(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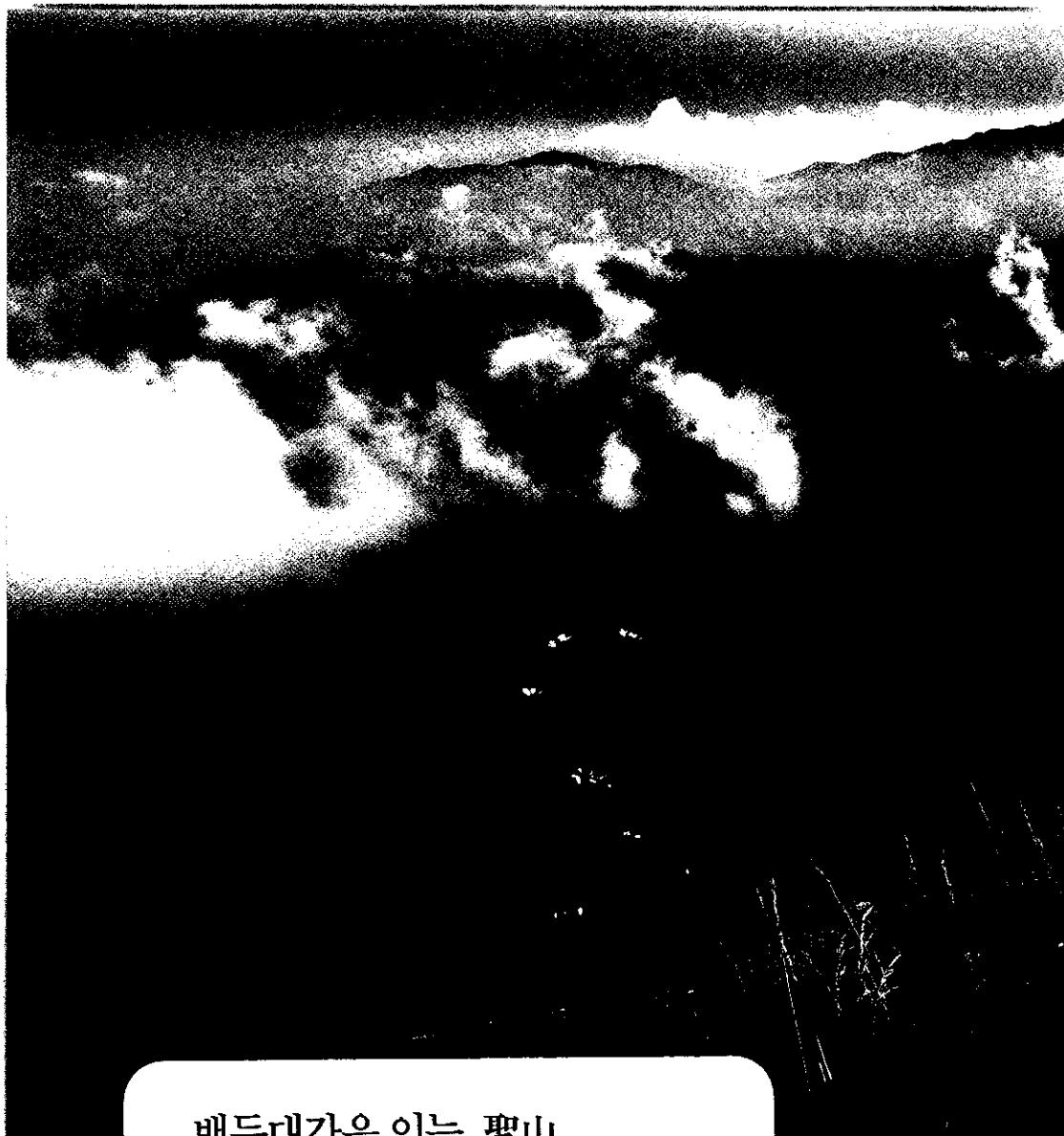
저기 산이 있다네

명산

명산을 찾아서

소백산	54
월악산	58
금수산	61
속리산	62
구병산	66
충북알프스(등산코스)	67
대야산	68
조령산	69
비봉산	70
양성산과 작두산	71
민주지산	72
좌구산	73
천태산	74





백두대간을 잇는 聖山

소백산

소백산은 충북과 경북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의 명산으로 일대가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백산은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태백산맥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큰 산계를 이루는 소백산맥의 어깨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의 영봉들이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를 이루고 있다.

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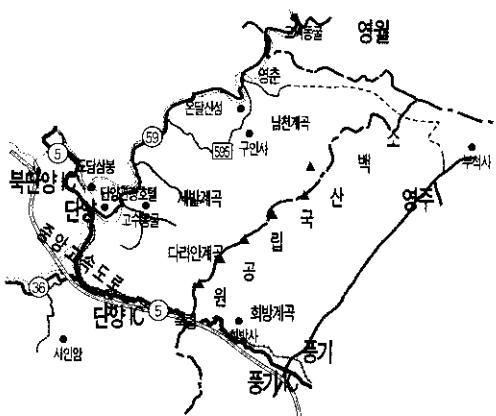
소백산 비로봉의 봄

주봉인 비로봉은 야생화의 보고로 이름높은데, 특히 회귀식물인 외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자생하고 있고,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온 산을 뒤덮는다.

제1연화봉에서 비로봉 사이 북쪽 사면에는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소백산 자락 곳곳에 명승과 절경을 품고 있으니, 북쪽부터 남한강쪽으로 남천계곡, 새길계곡, 다리안 계곡이 모두 경승지이고, 경북쪽으로는 회방폭포가 이름난 회방계곡이 있다.

사찰로는 신선봉이 뻗어내린 구봉팔문 아래의 구인사와 경북 영주의 부석사가 이름높다.



가곡 대교 코스

■ 산행코스

- ▶ 가곡 새발 → 벌바위 → 신선골 수림지대 → 주능선안부 → 국립봉 → 소백산 비로봉
(산행거리 4.3km, 약 2시간 30분 소요)
- ▶ 가곡 새발 → 벌바위 → 어의계곡 → 비로봉

■ 산행정보

- ▷ 신단양에서 고수대교를 넘어 59번 국도를 따라 영춘방면으로 4km 남짓 달리면 아평교가 나온다. 아평교 삼거리에서 오른쪽 소백산 자락으로 가면 어의곡리에 이른다.
- ▷ 어의곡리 새발(을전까지는 단양에서 시내버스가 다닌다.)
- ▷ 어의곡리 새발계곡 주차장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한다.
- ▷ 새발에서 명가리골을 따라 소백산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다.
- ▷ 어의곡 팀방지원센터 421-0708

희방사 대교 코스

■ 산행코스

희방사입구→희방사→천문대→연화봉→비로봉→비로사→삼가동
(산행거리 16km, 약 6시간 30분 소요, 비로봉까지는 4시간 20분 가량이 소요된다)

■ 산행정보

- ▷ 희방사 코스는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산행코스이다.
- ▷ 1383 고지에는 소백산 천문대가 있다.
- ▷ 비로봉에서 영주쪽 능선으로 내려서면 급경사 내리막길이고, 이어 비로사를 지나 삼가동으로 내려설 수 있다.
- ▷ 희방사 팀방지원센터 054-638-6196

죽령 대교 코스

■ 산행코스

죽령휴게소 → 제2연화봉 → 천문대 → 제1연화봉 → 비로봉
(산행거리 11km, 약 3시간 소요)

■ 산행정보

- ▷ 죽령휴게소에서 소백산 천문대까지는 능선길로 시멘트포장 도로가 이어져 땅을 밟는 느낌은 없으나 전망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코스이다.
- ▷ 죽령 팀방지원센터 421-7181

다리안 대교 코스

■ 산행코스

다리안관광자→기명바위→대궐터→소백산정상→제1연화봉→연화골→선바위→다리안폭포
(산행거리 약 15km, 약 7시간 소요)

■ 산행정보

- ▷ 가장 안전하고 대중적인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 ▷ 단양에서 고수대교를 넘어 고수동굴쪽으로 들어서면 된다.
- ▷ 천동 팀방지원센터(423-0708)에서 산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약 7km, 초보자는 4시간정도 걸린다.
- ▷ 주요 숙박지 : 소백산ユース호스텔(421-5555)
- ▷ 다리안관광자(423-1243), 천동관광자 (423-1242)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야영을 할 수 있다.
- ▷ 계곡내에 고수동굴과 천동동굴, 노동동굴이 있다.

◀ 눈덮인 소백산 주목교리



1:75,000 축척 소백산안나도

소백산안나도

명산

가곡새길

어의계곡

진동동굴

진동 다리안광지

죽령폭포

다리안폭포

진동여관

진바로사

오십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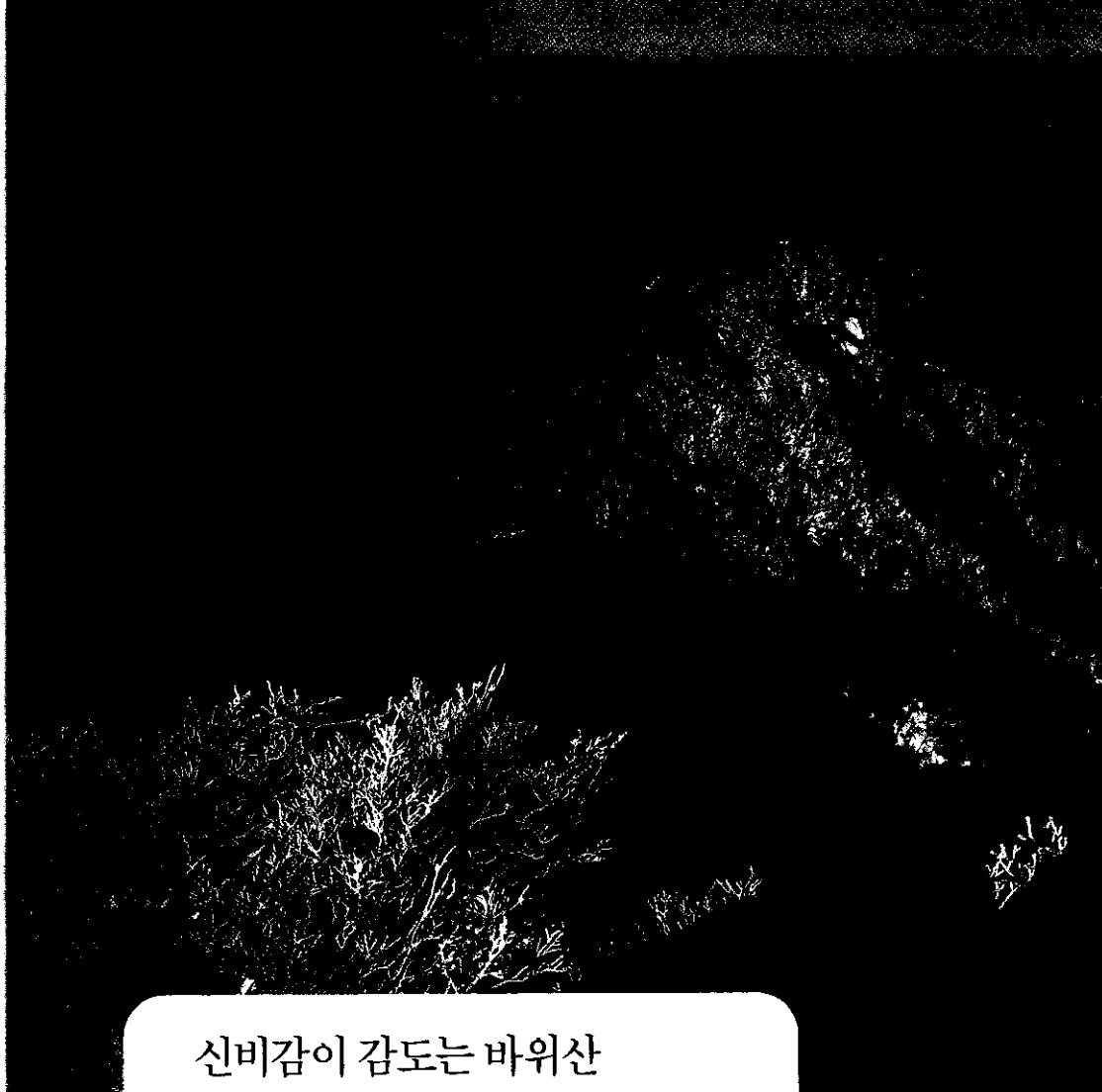
군회암사

죽령산성

죽령휴게소

죽령봉수대

희방사입구



신비감이 감도는 바위산

월악산

달보양으로 생긴 월악산은 우리나라 5대 바위산으로 꼽히는데, 정상인 해발 1,097m의 영봉은 높이 150m, 둘레 4km의 거대한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다.

영봉은 마치 거대한 맹호가 웅크리고 앉아 남한강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데, 산세가 웅장하고 준엄해서 예로부터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영산으로 불려왔다.

월악산의 동쪽과 서쪽에는 멋들어진 바위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곳곳에 희귀종인 청송이

우거져 있다.

공원 내에는 1,163m의 문수봉을 비롯하여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다는 하설산, 매두막, 대미산, 황장산 등 1,00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며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다. 벌재에서 마폐봉에 이르는 구간은 백두대간이다.

고봉 준령들 사이의 계곡마다 기암과 반석들이 어우러져 빼어난 절경을 이룬다. 송계계곡, 용하계곡, 선암계곡 등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계곡이다.

몽고군을 물리친 영봉의 신병

고려를 침범한 몽고군이 충주를 지나 월악산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인근의 군사들과 주민들은 월악산 덕주산성을 지키며 몽고군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성에는 장정들보다 부녀자들이 많아, 결국 성이 몽고군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하였다.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 월악산 영봉에서 한 기운이 솟구치더니 이어 산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이 몰려내려와 일거에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다시 산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병사들이 영봉의 신병(神兵)이라 믿었고, 영봉을 더욱 신성시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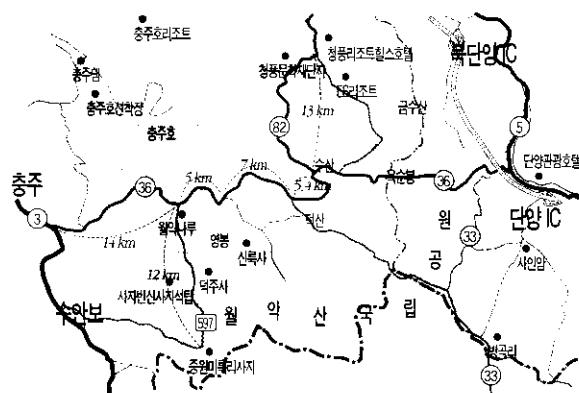
천년 뒤에 이루어진 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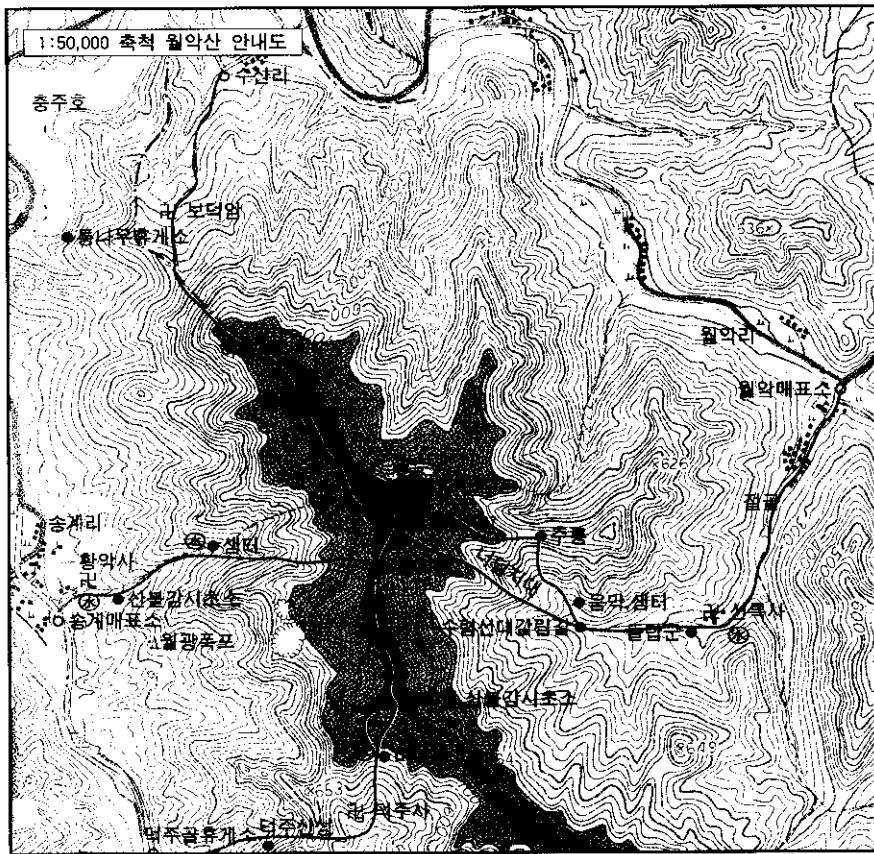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는 망국의 한을 풀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 “월악산이 남한강 물에 비치고 항구골에 배가 달을 때 영봉에 오르면 망국의 한이 풀릴 것이다”는 계시를 받고, 하늘 재를 넘어 월악산 미륵리에 머물며 석굴을 쌓고 영봉을 바라보는 미륵불상을 세웠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지금 충주호에 월악의 영봉이 비치고, 월악나루에는 관광선이 드나들고 있다.

송계계곡은 신라시대부터 한강으로 통하는 교통로로 이용되던 곳으로 빼어난 절경과 함께 곳곳에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계립령으로부터 중원미륵리사지, 사자빈신사지석탑, 덕주사, 덕주산성등은 빼놓기 어려운 곳이다.

월악산의 동편에 있는 용하구곡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원시상태가 보존되어 있는 청정계곡이다.





■ 산행코스

월악산 영봉은 바라보는 방향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충주 방면에서 보면 풍긋한 토끼귀로 보이고, 동쪽인 덕산에서 올려다보면 쇠뿔같이 보이며, 남쪽인 미륵리쪽에서 보면 장엄한 수직절벽이 히말라야의 거봉을 연상케 한다. 또 송계리에서 보면 정상이 풍만한 여인의 젖가슴처럼 보인다.

▶ 덕주사 코스 (산행거리 10.1km, 약 6시간 30분 소요)

덕주골입구 → 덕주사 → 마애불 → 960봉 → 삼거리 → 영봉 → 중봉 → 하봉 → 보덕암 → 수산리

▷ 덕주산성과 덕주사, 마애불을 볼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이다.

▷ 어느 코스를 잡아도 영봉에 오르려면 철사다리 지대를 통과 해서 올라야 한다.

▷ 영봉에서 보덕암으로의 하산은 마치 설악산 공룡능선과 같은 느낌을 주는 코스로, 길이 험한 편이다.

▶ 송계코스 (산행거리 8.6km, 약 5시간 소요)

동창교매표소 → 자광사 → 샘터 → 바위등선(삼거리) → 수직 암벽 → 영봉 → 동창교매표소

▷ 월악산 영봉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최단 코스이다.

▶ 월악리 신륵사 코스 (산행거리 7.2km, 약 4시간 30분 소요)

월악매표소 → 신륵사 → 수령선대 갈림길 → 주릉 → 영봉 → 신륵사

▷ 주릉부터는 아주 가파른 산길로 정상까지 1시간 가량이 계속되는 험한 코스이다.

■ 산행메모

▷ 특산물 문수산 약초가공영농조합(651-6532)에서는 해발 700m에서 생산되는 월악산 더덕을 판매한다. 덕산면에는 수식과 석공예 점포가 많다.

▷ 숲 송계계곡에는 민박과 야영지가 많다. 용하구곡의 억수리에도 민박집이 여럿 있다.

▷ 멀거리 월악산 입구에 제천향토음식마을이 있고, 미륵리에는 평요리 전문점이 있다.



비단에 수를 놓다

금수산

단양군수를 지내던 퇴계 이황선생이 너무도 아름다운 가을 경치에 감탄하여 금수산으로 이를 바꿨을 만큼 가을 경치가 뛰어난 바위산이다.

산의 북서쪽 계곡에는 한여름에 바위아래서 얼음이 나오는 얼음골이 있다.

산행은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 적성면 상리마을에서 오르는 길이 있고, 수산의 능강리, 상전리, 하천리 등에서 오르는 코스가 있다. 제천쪽에서 오르는 코스에는 용담폭포와 선녀당, 얼음골 등 갖가지 경관이 많다.

금수산 중턱에 있는 용담폭포

봉

■ 산행코스

- ▷ 제1코스 단양방면 상리—당집—샘터—정상 790안부—당집—상리 (산행거리 11.5km, 약 4시간 10분소요)
- ▷ 제2코스 제천방면 백운동버스정류장—용담폭포—독수리바위—한양지길(길)길—정상—795봉—백운동버스정류장 (산행거리 10km, 약 4시간 25분소요)

■ 산행메모

- ▷ 청풍호반에 국민연금청동리조트(640-7000-3) 교리관광농원, 수산관광농원 등이 있다. 능강계곡 입구의 ES리조트는 그림같은 별장식 콘도이다.





산은 속을 떠나지 않는데, 속이 산을 떠나는구나

속리산

조선시대 백호 임제는 보은 종곡리에서 「중용」
을 팔백 번 읽고 깨달음을 얻어 속리산을 떠나
면서 '속리산(俗離山)'을 풀어 시를 남겼다.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道를 멀리하고
산은 俗을 떠나지 않는데, 俗이 산을 떠나는구나

해발 1,057m인 곳곳에 절경이 많아 광명산, 미
지산, 소금강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을에는 기
암괴석과 어우러진 단풍, 봄철의 진달래와 철쭉
이 특히 아름답다.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등 8봉과 문장대, 입석대, 신선대 등 8대
가 백두대간을 잇는다.

법주사를 품고 있어 산세에 넉넉하고 부드러움
이 있어 산행이 힘들지 않은데, 문장대에 세번
오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속설을 믿음인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산에 오른다.

정이품송 (천연기념물 제103호), 망개나무(천연
기념물 제207호) 등 872종의 식물과 까막딱다구
리(천연기념물 제242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등 희귀 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한다.

명산

속리산 문장대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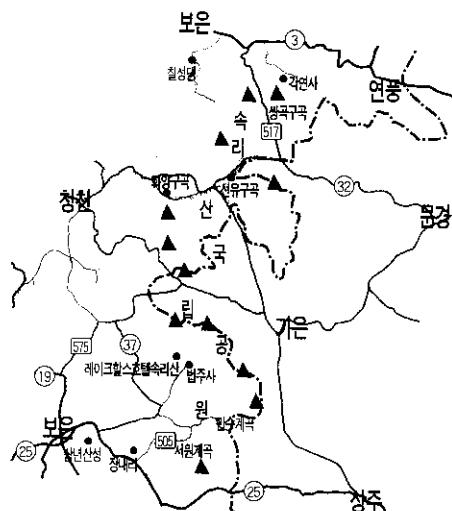
문장대 세 번 오르기

세종대왕이 요양차 속리산에 들렀는데 꿈에 월강태자가 나타나 “동쪽으로 사오리 떨어진 곳에 영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올라 기도를 하면 소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일렀다.

이튿날 세종은 신하들과 그 봉우리를 찾아 오르니 그 위에 삼강오륜이 담긴 책이 있었다.

세종은 엎드려 기도한 뒤 신하들과 강론하고, ‘운장대(雲藏臺)’라는 바위 이름을 ‘문장대(文藏臺)’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이후 민가에서는 문장대를 3번만 오르면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이야기가 생겼다.





임경업장군이 세웠다는 압식(壓基)문대

'8' 까지만 세는 속리산

속리산에서는 모든 것이 여덟까지 있고, 아홉까지 세는 것이 없다.

우뚝 솟은 봉우리는 천왕봉,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보현봉, 관음봉, 묘봉, 수정봉의 여덟이고, 누각같이 솟아있는 바위는 문장대, 신선대, 학소대, 경업대, 입석대, 배석대, 봉황대, 산호대 까지 여덟이다.

속리산이 8이란 숫자로 통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교리의 하나인 '8정도'에서 취한 수 개념이다. 또 산의 형세가 8개의 대가 꽂잎처럼 돌아 감싸고 있는 불국토의 형국이라고 한다.

천왕봉 삼파수

천왕봉은 속리산의 최고봉(1058m)으로 이곳에 펼어진 빗물은 조금만 차이가 나도 흘러내리는 방향에 따라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나뉘어 바로 흘러들게 된다.

천왕봉은 악귀로부터 불법과 부처를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하며, 인근주민들은 매년 수호신에게 산신제를 지냈다.

길상천녀의 길상봉

인도신화에서 '행복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아

름다운 얼굴에 천의를 걸치고 원손에는 여의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길상천녀를 상징하고 있다. 이 처녀에게 공양을 하면 누구나 복을 받는다고 한다.

자비로운 모습의 관음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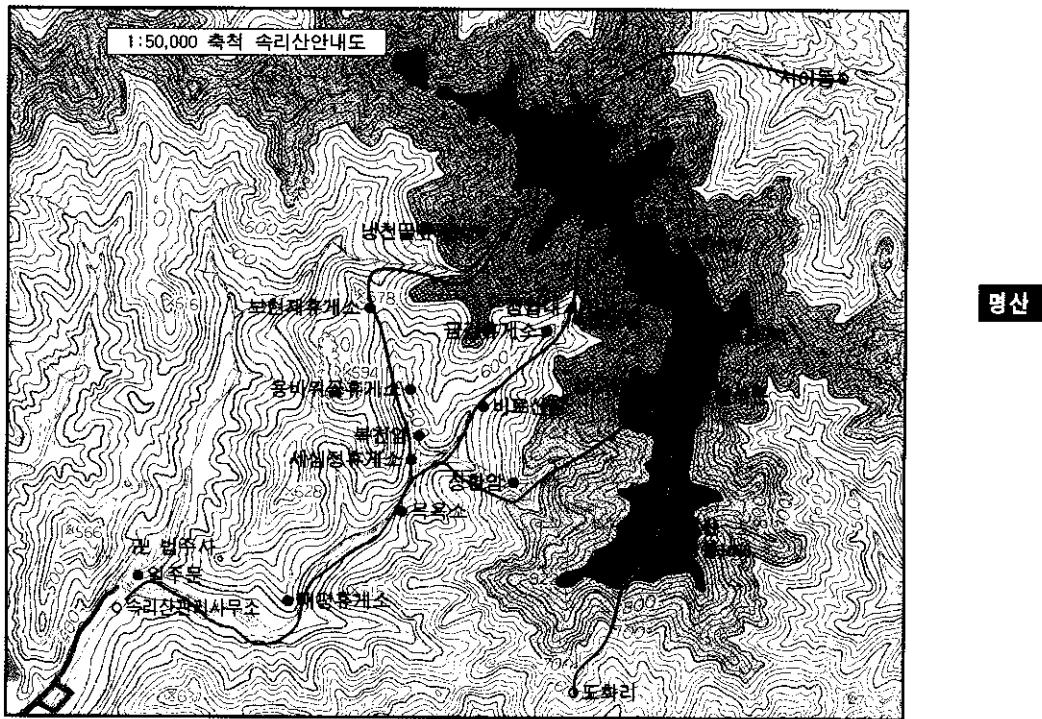
봉우리가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닮았다. 관음보살은 대자대비하여 중생이 고통받는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 상황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해주는 보살이다.

바위차양을 해단 학소대 은폭

세조가 바위아래 은폭에서 목욕을 할 때 이곳에 모여살던 학들의 배설물이 세조의 머리위에 떨어져서 신하들이 바위차양을 달았다는 전설이 있다.

임경업장군의 경업대와 입석대

임경업장군은 젊은 시절 속리산 관음암에서 독보대사로부터 무예를 익혔는데, 그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경업대의 바위를 돌로 갈랐다고 한다. 입석대는 입장군이 무예를 가늠하기 위해 누운 돌을 세운 것이다.



■ 산행코스

▶ 문장대코스 (산행거리 15.8km, 약 6시간20분 소요)

- 속리산 관리사무소 → 법주사 → 세심정휴게소 → 복천암 → 보현재휴게소 → 냉천골휴게소 → 문장대 → 신선대 → 경업대 → 금강휴게소 → 비로산장 → 세심정휴게소
 ▶ 복천암을 거쳐 문장대로 오르는 코스는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코스다.
 ▶ 경업대에서 금강휴게소 구간은 가파르고 계단이 많아, 내려갈 때는 특히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
 ▶ 복천암을 거쳐 문장대에 올랐다가 입식대와 비로봉을 거쳐 상한암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은 코스이다.

▶ 천왕봉코스 (산행거리 16.5km, 약 8시간10분소요)

- 속리산 관리사무소 → 세심정휴게소 → 비로산장 → 경업대 → 신선대 → 입식대 → 비로봉 → 천왕봉 → 상고암 → 상한암 → 세심정휴게소 → 법주사
 ▶ 천왕봉 정상에 떨어지는 비는 흘러내리는 방향에 따라 헌강, 금강, 낙동강으로 갈린다.
 ▶ 내려오는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관절이 악한 노인과 여성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만수계곡이 있는 도화리로 내려오는 코스도 잘 정비되어 있다. 충북알프스 코스가 이어지는 곳이다.

■ 산행정보

▷ 속리산은 여성도 오르기 쉬운 코스로 가족단위 산행에 적합하다.

■ 숙박 및 먹거리

▷ 특신품

보은송로주	543-2131	보은 대추	544-3414
도실공예	542-2447	보리수염주	544-3765
보은대추한과	543-3040	보은전통식품협회	542-1460

▷ 숙박

레이크힐스호텔속리산	542-5281
속리산유스티운	540-7777
수련연수호텔	542-5798

▷ 먹거리

신토불이식당(산약초정식)	543-0433
경희식당(전통한정식)	543-3736
속리산산체순대	543-1288
미락식당(산체정식)	543-3686
속리도속음식점(한방송이백숙)	543-3917
영남식당(대추한정식)	543-3924
명동식당(대추한정식)	543-1136

바위와 숲의 조화

바위와 숲이 조화를 이룬 여름의 구병산

구병산

구병산(876m)은 속리산 남단 천왕봉에서 한발 건너뛰어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으로 그동안 속리산의 명성에 가려져 왔는데, 근래 빼어난 산세가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주능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아홉개의 봉우리가 병풍을 두른 듯 연이어져 있다. 바위들과 어우러진 여름의 숲과 가을 단풍이 비경을 연출한다.

예로부터 속리산의 천왕봉을 자아비산, 구병산은 지어미산, 금적산은 아들산이라 하여 삼산이라 불려왔다.

근래에는 구병산 서쪽 서원계곡에서부터 구병산을 거쳐 속리산 북쪽 끝의 신정리까지를 잇는 코스를 정비하여 '충북알프스'로 부르고 있다.

■ 산행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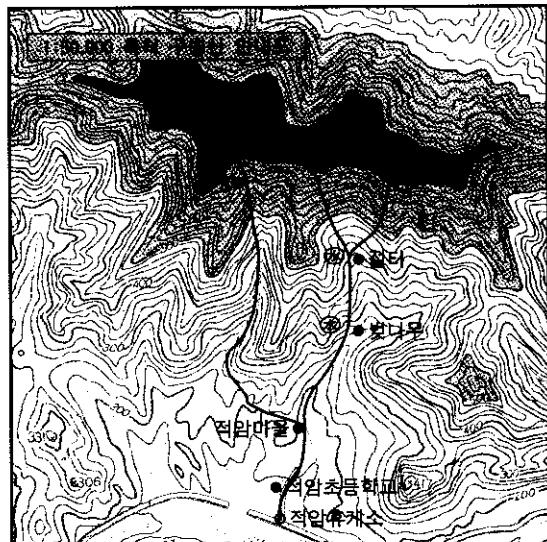
- ▷ 청주에서는 1시간 20분, 보은에서는 20분 정도가 걸린다.
- ▷ 숲박 서당골관광농원, 관기리에 충북여관이 있다.
- ▷ 험토음식점 솔고개기든 (한방백숙과 오리탕) 542-5750
큰다리쉼터 (갈비) 543-2200
- ▷ 특산품 - 가을에는 버섯과 토종밤, 봄에는 산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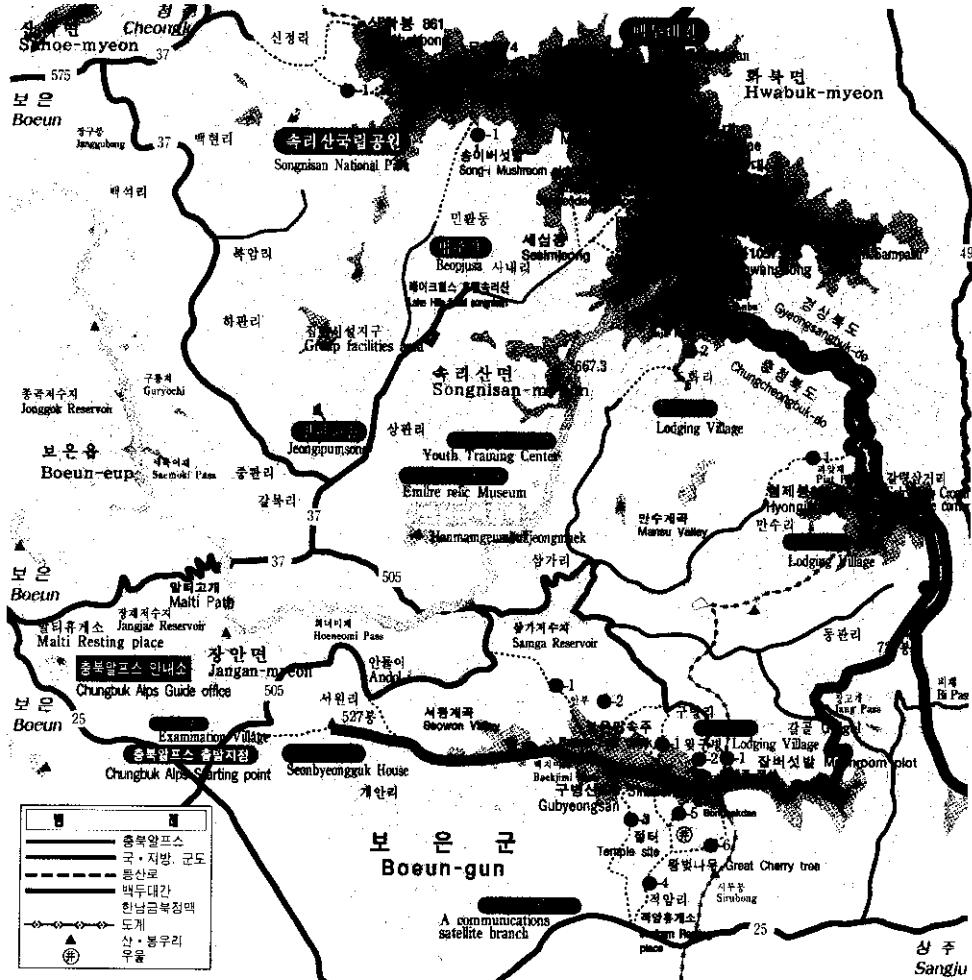
■ 산행코스

- ▶ 적암리 코스 (산행거리 7.6km, 약 3시간소요)
적암휴게소 → 갈림길 → 샘터 → 능선안부 → 853
고지 → 능선안부 → 샘터 → 적암휴게소
- ▶ 구병리 코스 (산행거리 10km, 약 4시간)
구병리 → 능선안부 → 구병산정상 → 능선안부 →
신선대 → 웃구봉 → 주차장

■ 등산안내

- ▷ 구병산은 바위산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 ▷ 주능선에서 853봉으로 오르는 길은 암벽길과 암벽 북쪽사면을 타고 오르는 길이 있는데, 암벽길은 매우 위험하다.





충북알프스

속리산의 봉우리들과 구병산 능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등산코스를 만든 것으로 속리산의 가장 북쪽 신정리에서 시작하여 도화리, 피잣재, 형제봉, 장고개, 구병산, 백지미재를 건너 서원리로 내려서는 43.9km의 코스이다.

이 코스를 다 주파하기 위해서는 네 구간으로 나눠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등산코스

제1코스 (자연관광, 시계절관광)

서원리 → 527봉 → 구병산 → 구병리/적암리 → 장고개
※ 서당골관광농원, 상현서원, 구병리 송로주

제2코스 (정글산행, 편안한 휴식)

장고개 → 동관리 → 721봉 → 형제봉 → 피잣재 → 만수리
※ 만수리에 민박마을과 영지버섯단지가 있다

제3코스 (자연의 신비, 비경감상)

피잣재 → 천왕봉 → 비로봉 → 입석대 → 신선대 → 세심정 → 법주사
※ 법주시, 복천암, 비로산장

제4코스 (자연의 숨결, 묘미등반)

문장대 → 관음봉 → 묘봉 → 상학봉 → 신정리
※ 송이버섯, 로프등반코스가 있다.



원시림이 남아있는

대야산

대야산

괴산군 청천면과 경북 문경시에 걸쳐 있다. 계곡이 아름다운 산으로 경상북도 쪽에는 선유동계곡과 용추계곡, 충청북도 쪽으로 선유구곡이 있다.

정상에서 북쪽으로는 군자산, 장성봉, 회양산이 파도처럼 이어져 있고 남으로는 새부리 모양을 한 조향산이 그리고 왼쪽으로는 둔덕산이 보인다. 동으로는 별바위마을, 피아골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가령산이 구름위에 떠 있는 듯하다.

* 국립공원내 위치한 산으로 반드시 속리산 국립공원 화양동 관리사무소(043-832-4347)로 문의하시고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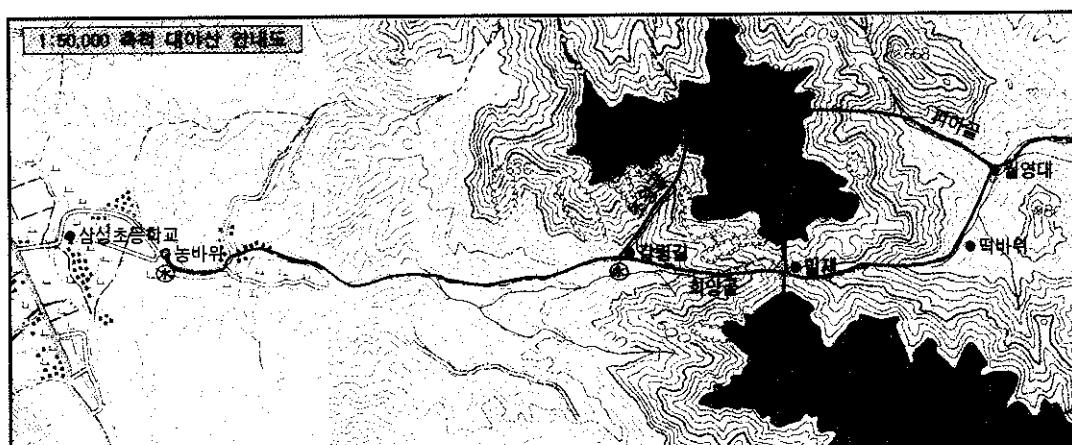
■ 산행코스

이평리 → 농비위 → 회양골 갈림길 → 밀재 → 정상 → 조왕골
갈림길 → 농비위(산행거리 13.1km, 약 4시간 10분 소요)

■ 산행메모

▷ 산행은 이평리 삼송초등학교를 지나 농비위마을에서 시작한다. 갈림길 북쪽 조왕골 코스는 길을 찾기 어려운 험한 암벽 지대로 초보등산객들은 피해야 한다.

▷ 인근에 화양동관광농원의 시설이 좋고, 송면에 먹을 만한 식당들이 여럿 있다. 삼송리에는 왕소나무가 있고, 계곡의 물이 맑아 여름 피서지로도 좋다.





명산

이화령과 조령을 잇는

조령삼관문의 웅장한 모습

조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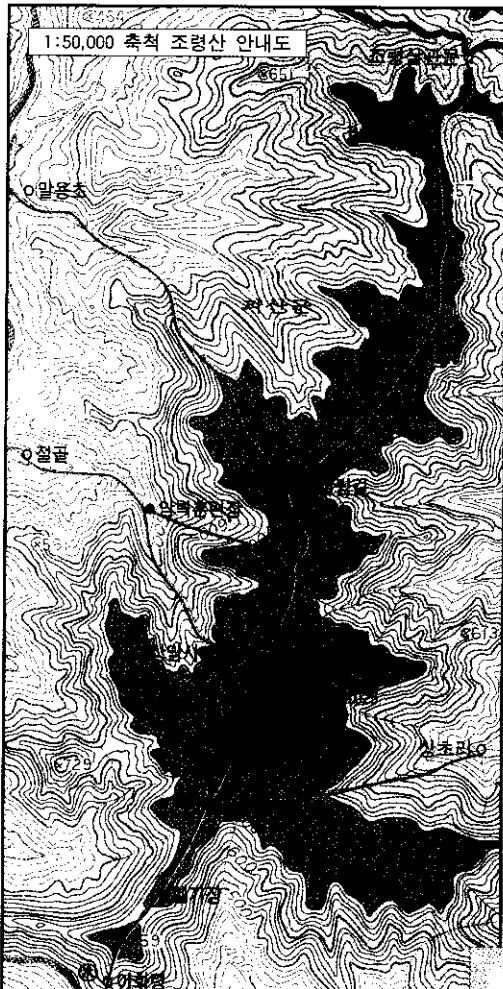
조령산(1,025m)은 북으로는 조령, 남쪽으로는 이화령을 끼고 있는 백두대간 마루능선을 이루는 산이다. 이화령과 조령은 일찍이 신라가 소백산 맥을 넘어 한강으로 진출하기 위해 개척한 곳으로 영남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다. 조선후기 천주교 교인들은 연풍지역에 살면서 조령산의 양쪽 고개를 넘나들며 박해를 피하기도 했다. 조령삼관문에 올라 문경쪽으로 2관문까지 내려섰다가 돌아오는 것도 좋은 트레킹 코스이다.

■ 산행코스

▷ 이화령(3번국도) → 북쪽으로 산터 → 헬기장 → 정상 → 제1갈림길 → 890봉 → 제2갈림길 → 844봉 → 조령삼관문
(산행거리 13.7km, 약 5시간 30분 소요)

■ 산행예모

- ▷ 산행 들머리는 이화령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조령쪽 등산로는 절벽이 많고, 험해서 초보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 ▷ 제1갈림길에서 상암사터로 내려서는 하산길은 급경사길인데, 내려서면 신풍리가 나온다.
- ▷ 수안보에 들러 온천목과 휴식을 겸하는 것이 좋다. 수안보자역에는 꿩요리가 유명해서 식당이 많다.
- ▷ 연풍에는 천주교성지와 연풍동헌(연풍초등학교내)이 남아 있다.
- ▷ 연풍면 신풍리에는 조령민속공예촌내 신풍한지가 유명하다.





청풍호반에 우뚝 서다

멀리서 보면 영광없이 날아오르는 매의나

비봉산

청풍호반에 둘러싸인 비봉산은 산이 높지 않고, 산세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산정상에서의 조망은 가히 천하제일경이다.

섬에 온 듯한 착각이 들만큼 사방이 물이고, 동으로 금수산과 저승봉, 동산, 북으로 제천, 남으로 월악산의 영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세가 어느 곳에서 보나 멋지게 하늘로 날아 오르는 매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부분이 급경사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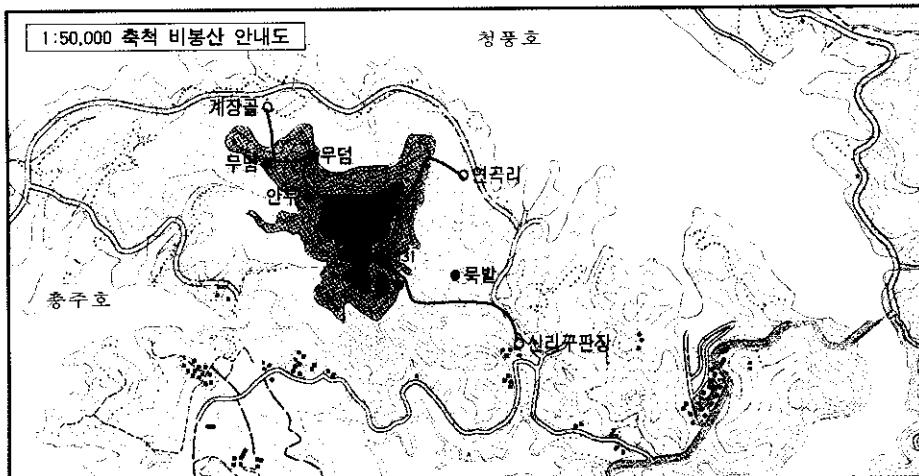
산행 거리가 짧고 등산로가 험하지 않아 가족 등반에 좋은 곳이다.

■ 산행코스

- ▷ 계장골 → 주능선안부 → 금경시능선 → 정상 → 남릉 → 신리(산행거리 4km, 약 1시간 30분 소요)
- ▷ 신리에 차를 세워두고, 계장골까지는 호반도로를 따라 걸으면 좋다. 거꾸로 돌아도 된다.(1시간 소요)

■ 산행메모

- ▷ 인근 국민연금청풍리조트, ES리조트가 있고, 교리관광농원, 학현관광농원, 수산관광농원이 있다.
- ▷ 청풍은 땅콩의 주산지이며, 청풍생고추장이 유명하다.
- ▷ 산행후 청풍문화재단지, SBS촬영장, KBS 촬영장, 능강계곡, 옥순봉을 둘러볼 수 있다.





대청호를 굽어보다

양성산에서 보이는 대청호 전경

양성산과 작두산

정상이 해발 297m로 높지 않은데, 능선에만 올라서도 대청호와 주변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온다. 신라 때 승려 화은이 승병을 길렀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하는데, 산중턱에는 우물터와 산성터가 남아 있다. 산행거리가 짧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양성산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가면 해발 430m의 작두산 까지 들러볼 수 있다. 작두산에서는 청주방면이 한눈에 보인다.

■ 산행코스

- ▷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 독수리바위 → 378고지 → 삼거리 → 양성산 → 청소년수련원 (거리 3.3km, 약 1시간 20분 소요)
- ▷ 청소년수련관은 단체 수련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산행메모

- ▷ 대청호반 주변에는 단체식사가 가능한 맛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다.
- ▷ 특산물 : 표고버섯(4~5월, 10~11월) 포도(7~9월경), 딸기(4~5월경)
- ▷ 대청댐 옆에는 물 전시관이 잘 꾸며져 있다.
- ▷ 문의 체육공원에서는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다.





원시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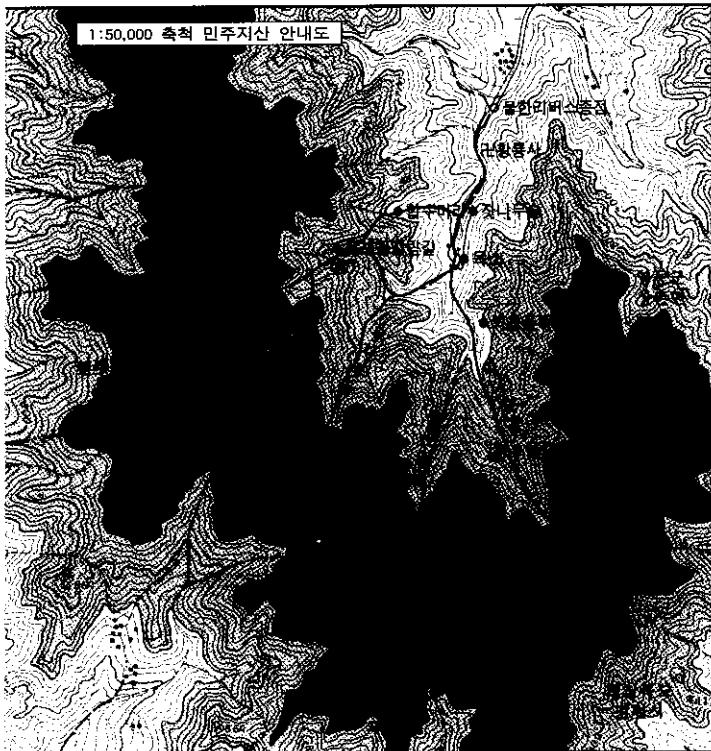
장엄한 민주지산의 설경

민주지산

민주지산(1,241.7m)은 추풍령 남서쪽 약 25km 지점에 있으며 산행의 기점은 정상의 동북쪽 방향인 한천마을과 남쪽 아래의 대불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삼도봉, 석기봉이 명소이며, 석기봉 동쪽에는 원시숲과 화전민터가 있어 옛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물한리에서 벌지 않은 곳에는 1972년에 지은 황룡사가 있다. 석기봉과 삼도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은 봄이면 온통 산죽과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워 꽃산행을 즐기게 된다. 다른 산의 진달래가 무리지어 군락을 이루는데 반해 이곳 진달래는 능선을 따로 열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한계곡을 끼고 있어 심산유곡으로 아직도 때묻지 않은 계곡이 돌보이며 각종 잡목과 진달래 철쭉 등이 꽉 들어차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옥소(玉沼) 응주암 의용골 폭포 등이 절경을 이루며 삼도봉에는 충북, 경북, 전북 등 3도인이 모여 세운 3도봉 대화합탑이 있다.



■ 산행코스

▶ 일주코스 (산행거리 11km, 약 5시간 소요)

물한리주차장 → 잣나무숲 → 옥소폭포 → 의용골폭포 → 음주암폭포 → 삼마골재 → 삼도봉 → 석기봉 → 주능선안부 → 민주지산 정상 → 쪽새골 갈림길 → 합수머리 → 잣나무숲 → 물한리 주차장

▶ 민주지산 등정코스 (산행거리 3.2km 약 2시간 소요)

주차장(25분) → 잣나무숲(15분) → 합수머리(40분) → 계곡갈림길(30분) → 주능선 안부(10분) → 민주지산 정상 → 하산

■ 산행정보

▷ 음주암골은 산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삼도봉 정상에는 세 개의 돌탑이 있는데, 충북·경북·전북의 삼도가 서로 자세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다.

▷ 석기봉에서 전북 대불리쪽 등산로로 50m쯤 내려가면 머리가 셋인 삼두마애불과 샘이 있다.

▷ 민주지산으로 직접 오르는 코스중 합수머리에서부터 능선까지는 급경사지역이다.

■ 산행 메모

▷ 물한리에는 향토음식점이 많이 있다.

호도나무식당 745-3675

▷ 특산품 곶감 744-7706

감식초 742-0908 표고버섯 742-2061

살호두 743-3580 시슴엑기스 744-4808

명산

산골오징어 743-7795



한남금북정맥을 잇는 산

좌구산

좌구산은 증평을 율리와 청원군의 경계선 위에 솟아있는 높이 657m의 산으로, 한남금북정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좌구산은 증평을 율리와 청원군의 경계선 위에 솟아 있는 높이 657m의 산으로, 한남금북정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좌구산 인근에 자연휴양림, 율리휴양촌이 있어 등산과 더불어 산림욕과 야생화 단지 구경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임도시설을 활용한 MTB코스 등도 조성되어 있어 좌구산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준다.

■ MTB코스

▷ 1코스: 율리휴양촌 → 임도 → 좌구산휴양림 → 교육체험지구 → 내봉마을 → 물치폭포 → 점촌마을 → 율리휴양촌

■ 산행코스

▷ 1코스: 율리휴양촌 → 임도 → 관리사무소 → 방고개 → 좌구정 → 율리휴양촌(8.56km)

▷ 2코스: 율리휴양촌 → 삼림욕장안내판 → 제2휴게소 → 정상 → 체력단련지구 → 율리휴양촌(7.25km)

▷ 3코스: 율리휴양촌 → 좌구정 → 방고개 → 제1,2휴게소 → 절마재 → 임도 → 점촌마을 → 율리휴양촌(13.75km)





바위가 드러난 천태산의 정상

충북의 설악산

천태산

초입에 있는 영국사로도 더 유명한 해발 715m의 바위산이다. 암봉으로 이루어진 산세가 빼어나 충북의 설악산이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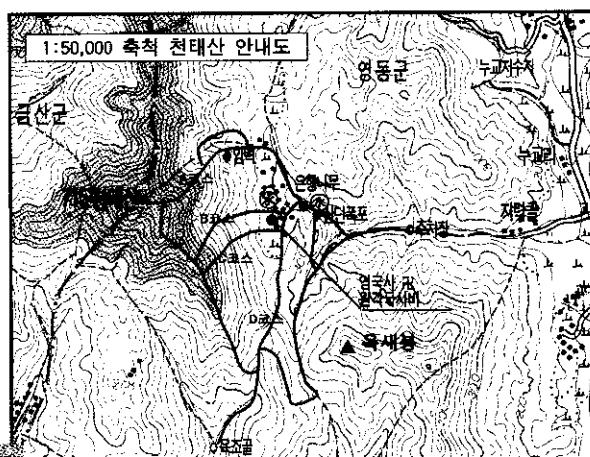
누교리를 지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길을 따라 20여분을 오르다보면 산중에 널따란 분지가 나오고 분지 한쪽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버티고 있는 영국사가 있다. 영국사를 한 바퀴 둘러보고 천태산 정상을 보며 등산을 시작한다.

■ 가는 길

- ▷ 경부고속도로 옥천 IC → 이원 → 501번 도로 → 누교리 → 천태산 주차장
- ▷ 경부고속도로 영동 IC → 양산 → 501번 도로 → 누교리 → 천태산 주차장

■ 산행메모

- ▷ 음식점: 용빈가든 744-4668
- ▷ 특산물: 고추, 마늘, 포도, 곶감, 인삼, 호도, 각종 국악기
- ▷ 주변관광지: 송호관광지, 양산월경, 난계사당, 난계박물관, 옥계폭포,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 산행코스

- ▶ 영국사에서 바라 볼 때 오른쪽부터 A·B·C·D 4개의 등산로가 있다.
- ▶ A코스(미복길)는 제일 북쪽에서 능선을 따라 정상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제일 짧지만 임벽이 있다.
- ▶ 영국사에서 시작되는 B코스는 최근 폐쇄되었다.
- ▶ C코스(원각국사길)는 영국사 남쪽 원각국사비에서 구멍비위를 지나 주능선으로 이어진다.
- ▶ D코스(남고개길)는 남고개로 이어지는 길로 하산할 때 많이 이용한다.
- ▶ 정상에서는 서쪽으로 서대산, 남쪽으로 성주산과 멀리 덕유산·계룡산·속리산이 보인다. 하산은 남쪽 주능선을 따라 남고개를 향해 내려온다.

맑고 깨끗한 계곡

남천계곡 / 다리안계곡	76
덕동계곡 / 능강계곡	78
용하구곡 / 송계계곡	80
화양계곡 / 선유계곡	82
쌍곡계곡	84
갈은계곡 / 괴산지역의 계곡들	85
만수계곡 / 물한계곡	86



유언지

온달관광지 / 다리안관광지	88
탁사정 / 삼탄유원지	90
옥화9경 / 장계관광지	92
송호관광지	94



인적드문 형령계곡

남천계곡

남천계곡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북쪽 지역으로 구봉팔문을 타고 내리는 계곡이다. 물이 맑으며 도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까지는 인적이 드물고 천연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계곡에서 더위를 나기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 가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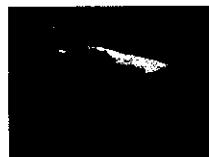
단양(0.6km) → 고수대교 건너 좌회전(영월방면 59번 국도) 19km → 영춘교 건너 우회전(2km) → 영천면 하2리 좌회전(3km) → 남천계곡 접어듬

■ 맛있는 음식점

영춘 금강식당 423-2594 도토리닝면과 산채비빔밥
군간나루 식당 422-6121 남한강 쏘가리매운탕

■ 숙박

단양관광호텔 423-7070
대명콘도 420-8311
민박 및 펜션 다수



온달산성의 모습



신록의 구인사



장대한 북벽의 위용



자석벼루를 깨는 사람

■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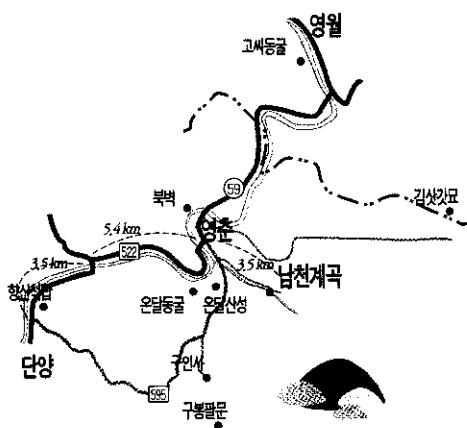
제천터미널 → 영춘면간 1일 12회 직행버스 운행
단양, 남천리 시내버스 1일 4회

■ 둘러볼 곳

온달관광지(드라마 촬영장, 온달동굴, 온달산성, 전시관), 구인사, 북벽, 구봉팔문

■ 관광안내

온달관광지 423-8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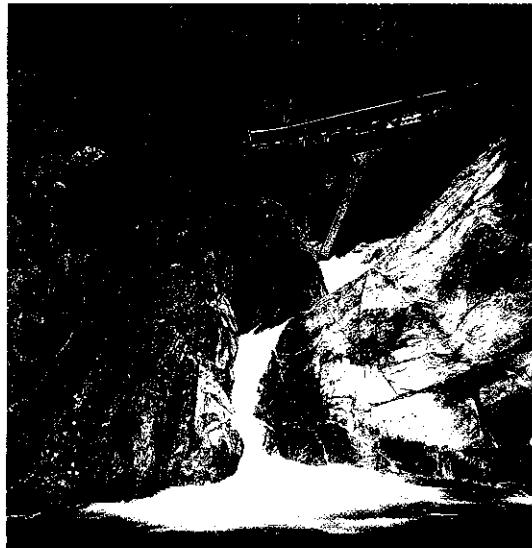


소백산 맑은 물줄기

다리안계곡

소백산 비로봉과 제1연화봉 사이의 계곡으로, 골이 짧아 수량은 많지 않지만 울창한 숲과 조화를 이루고 물이 맑고 시원하여 여름의 더위를 삭이게 해준다.

계곡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 아래로 펼어지는 물줄기가 '다리안에서 잡은 듯하다'는 다리안폭포가 일품이다.



계곡

■ 가는 길

단양 0.6km → 고수대교 건너 직진(6.1km) → 천동관광지→다리안관광지

■ 맛있는 음식점

오학식당 422-3313 목발정식, 돼지고기 수육
장다리식당 423-6660 온달장군마늘술밥

■ 숙박

단양관광호텔 423-7070
소백산유스호스텔 421-5555
대명콘도 420-8311
펜션 및 민박 다수

■ 교통

단양에서 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

■ 둘러볼 곳

도담삼봉, 석문, 고수동굴, 천동동굴, 노동동굴(공개제한), 소백산

■ 관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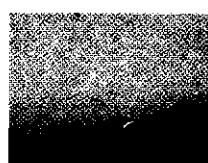
도담삼봉 422-3037 고수동굴 422-3072
천동동굴 422-2972 노동동굴 422-2251(공개제한)



고수동굴의 신비한 종유석



도담삼봉의 뗏목



영봉산 패러글라이딩



최고품질의 단양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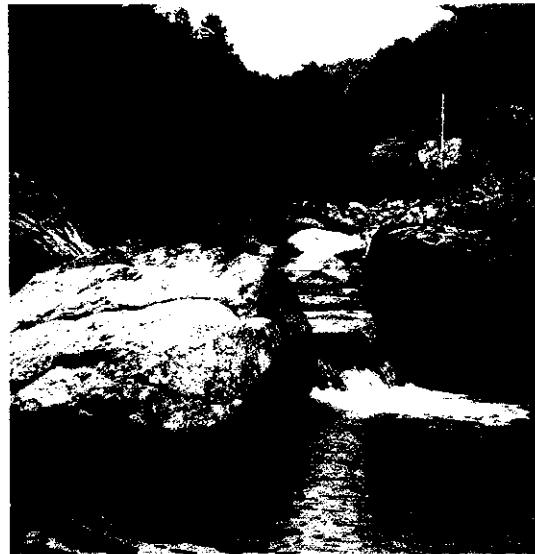


백운산 맑은 물

덕동계곡

백운면 덕동리 5km의 계곡. 맑은 물과 바위, 울창한 수풀이 어우러져 찾는 이가 많은 계곡이다.

구수애에 있는 물 한 복판에는 커다란 바위가 세워져 있는데 예로부터 마을 젊은이들이 길가에서 그 바위를 향해 틀을 던져 바위 위에 잘 앉아지는 사람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 가는길

제천 백운면소재지에서 402번 지방도를 타고 15km 진행 덕동교를 지나 좌회전하면 매표소가 나온다.

■ 교통

동서울터미널에서 제천행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면 제천까지 무궁화호로 1시간40분 소요.
제천시내에서 덕동리까지 오전 / 오후 하루 두번 버스 운행한다.

■ 맛있는 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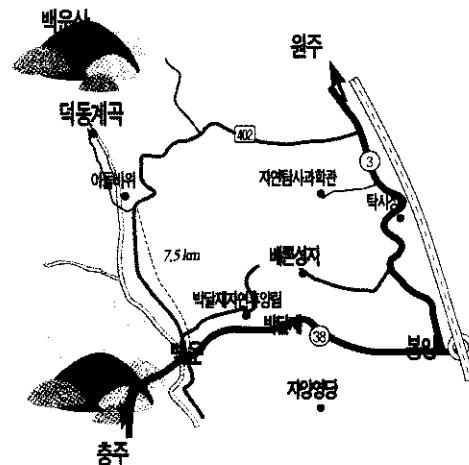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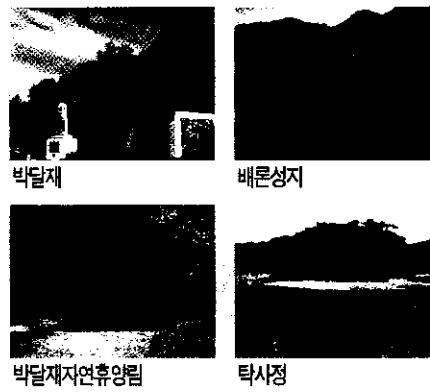
박달재 휴게소 652-9477 약수기사식당 652-6892

■ 숙박

박달재자연휴양림 652-0910 솔뫼너마펜션 651-4412
박달재 수련원 652-9222 박달재 파크텔 652-6655
덕동민박(문의: 백운면사무소) 640-4188
이름다운세상(펜션) 651-5251

■ 둘러볼 곳

박달재자연휴양림, 배론성지, 탁사정, 지양영당



금수산의 숨은골

능강계곡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는 금수산 자락의 숨은 계곡.

계곡 양쪽에 그림 같은 병풍을 이룬 곳이 있는가 하면 꿈속에 노닐던 도화원 같은 곳이 있고, 예쁜 소와 알맞은 폭포가 어우러진다.

입구에 있는 ES리조트가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고, 금수산으로 내쳐 오르면 신비한 얼음골에 놓게 된다.



계곡

■ 가는길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 → 금성면 → 높은다리 → 청풍랜드 → ES리조트
(ES리조트를 지나면 원편으로 계곡입구 매표소가 있다).

■ 맛있는 음식점

남한강횟집(민물정식) 643-4458

■ 숙박

청풍리조트(레이크, 힐호텔) 640-7000
월악유스호스텔 651-7001
수산관광농원 648-2277~9

■ 금수산 등산코스

1코스 : 상리-당집-절터-금수산-서부 능선-갈림길-얼음굴-능강계곡-능강교(약 4시간 30분 소요)

2코스 : 백운동 정류소-용담폭포-선녀탕-망덕봉-금수산-능강계곡(약 3시간 소요)

3코스 : 백운동 정류소-용담폭포-선녀탕-망덕봉-금수산-광산터 일부-백운동 정류장(약 2시간 30분 소요)

4코스 : 백운동 버스정류장-용담폭포-독수리바위-얼음골-갈림길-금수산-795봉-백운동(약 4시간 30분 소요)



청풍호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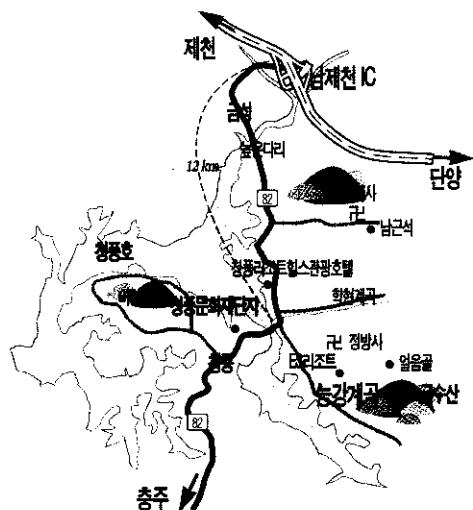
금수산 용담폭포



청풍호반의 수경분수



한여름에 일몰이 있는 얼음골



월시림과 바위의 향화

용하구곡

월악산의 뒷편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계곡, 송계계곡에 가려져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백두대간을 이루는 문수봉, 대미산, 등 천미터 고봉들에 둘러싸인 16Km의 계곡에 인적이 닿지 않은 월시림과 바위들이 조화를 이루어 절경을 빛내고 있다.



■ 가는 길

충주→수안보방면→수안보휴게소 삼거리 우회전(단양방면)→
송계입구→탄지삼거리 우회전→용하구곡 방면→월악리→용하
계곡

■ 맛있는 음식점

월악산체식당 653-7506 용하휴게소 651-6555
억수휴게소 653-0295

■ 특산품

월악산더덕 651-6532
월악산채, 송이버섯, 한약재(황기, 흥화씨, 당귀, 자연송이 등)

■ 숙박

월악유스호스텔 651-7001
월악리 억수민박(문의 : 덕산면사무소 641-4442)

■ 둘러볼 곳

송계구곡, 수인보온천, 신륵사, 미륵리사지

■ 관광예모

- (용하구곡) 수문동폭포, 수곡용담, 관폭대, 청벽대, 선미대, 수룡담, 활래담, 강서대, 수령선대
- 국립공원지역으로 취사 및 야영을 할 수 없다.



용하구곡의 관폭대



용하구곡의 수룡담



신륵사삼층석탑



월악산더덕



너력바위 경연당

송계계곡

송계계곡에 들어서면 바위들이 한결 같이 크고 넓게 펴져있어 보기만 해도 쉬었다 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월악산(1,094m)자라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송계계곡은 계곡물이 얼음처럼 차가와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월악산 영봉과 덕주사가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계곡

가는길

충주 수안보방면→용천삼거리 좌회전(단양방면) →월악나루를 지나 송계입구에서 우회전

숙박

송계휴게소 651-1086 닷돈자휴게소 651-9416
월악유스호스텔 651-7001

■ 특산품 고본주(월악주조) 653-0251

둘러볼 곳

덕주시, 덕주산성, 월악산, 황강영당, 미륵리사지, 수안보온천
송계팔경 (자연대, 월광폭포, 학소대, 망폭대, 수경대, 외룡대, 팔랑수, 월악영봉)

월악산 등산코스

- 1) 송계리 - 계곡길림길 - 주능선안내판 - 정상 - 안내판 - 960봉
- 덕주사 - 덕주사입구(9.6km, 약 4시간 30분 소요)
- 2) 월악리 - 신륵사 - 수령선대 - 영봉(정상) - 신륵사 - 월악리
(8km, 약 4시간 소요)

맛있는 음식점

대장군식당	846-1757 평샤브샤브
명산가든	848-3131 산채정식
영화식당	846-4500 산채비빔밥
산밀애집	845-5107 메밀죽
월악산휴게소	653-7801 버섯전골
토속식당	651-1028 산채비빔밥
송계가든	653-1003 된장정식



이보다 통을 수는 없다

화양계곡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계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유학자인 송시열이 은거하며 사림을 움직여 일찍부터 그 절경이 세상에 이름을 떨친 곳이다.

속리산에서 발원한 물이 때묻지 않은 속리산의 첩첩산중을 휘감아 돌다 도명산 아래 바위계곡에서 천혜의 휴양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 가는 길

중부고속도로 증평IC-증평-청천-화양동(약 1시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연동IC)-괴산-청천 화양계곡

■ 특산물

괴산청결고추, 괴산시골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인삼, 사과, 친환경 농산물

■ 둘러 볼 곳

선유계곡, 쌍곡계곡, 산막이옛길



■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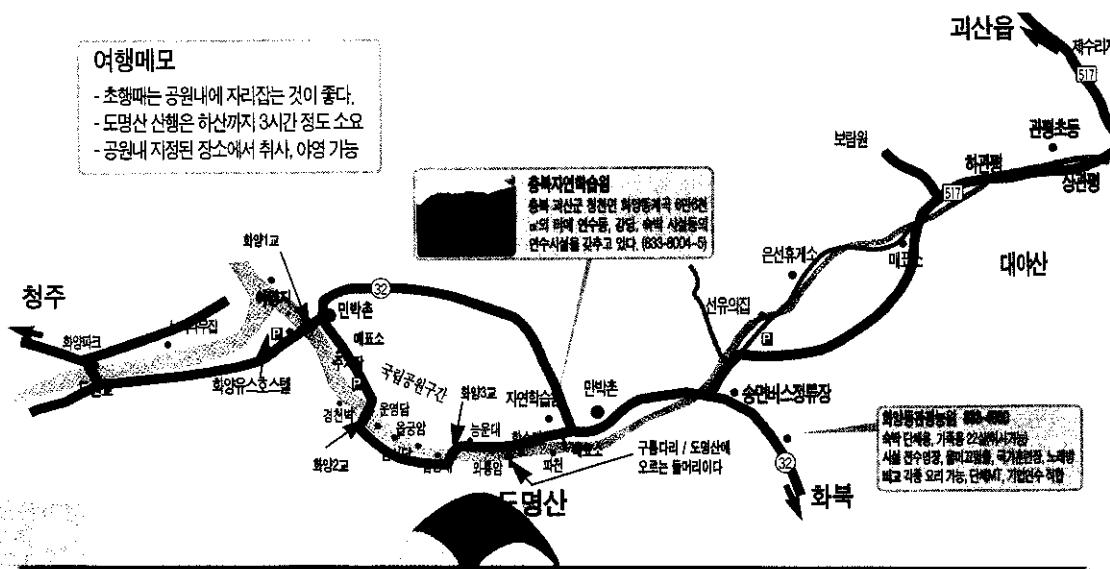
화양ユス호스텔	832-8803~4	보람원	833-1711
화양동관광농원	833-4900	화양여인숙	832-4392
화양여관	832-4365	금성여인숙	832-4351
심화여인숙	832-4574	화양파크	832-6860
화양동민박	832-4580	동원식당	832-4572
느티나무집식당	832-4983		

■ 맛있는 음식점

화양식당	832-4392	토종닭, 파전, 도토리묵, 매운탕 등
정화식당	832-4310	닭볶음탕, 백숙, 매운탕 등
동원개마식당	832-4282	닭볶음탕, 도토리묵, 파전
우정가든	832-4080	송어, 향어회, 멧돼지, 오리주물럭
신토불이	832-5376	한방오리백숙, 올갱이국
동원주막촌	832-6919	오리양념구이, 윗닭, 백숙
청수정	832-2288	닭볶음탕, 오리백숙

여행메모

- 초행때는 공원내에 자리잡는 것이 좋다.
- 도명산 산행은 하산까지 3시간 정도 소요
- 공원내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 이영 가능



신선처럼 놀다

선유계곡

화양계곡의 상류지역으로 송면에서 동북쪽으로 2km에 걸쳐 있는 아름다운 계곡이다.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퇴계 이황이 송정에 있는 함평 이씨택을 찾아왔다 가 산과 물, 바위, 노송 등이 잘 어우러진 절묘한 경치에 반하여 아홉 달을 돌아다니며 9곡의 이름을 지어 새겼다고 한다.



계곡

■ 가는길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괴산)→괴산→문광→송면→선유계곡
중부고속도로 증평IC→청천→송면→선유계곡

동원개미식당 832-4282
조원식당 833-8054
닭도리탕, 도토리죽, 파전
삼겹살, 닭볶음탕 등

■ 숙박

화양파크(15실)	832-5169	보람원	833-1711
화양 유스호스텔	832-8803~4	24시매점	833-8339
몰래방아식당	833-6657	삼화식당	833-8313
선유동민박	833-8056	손동찰민박	833-8274
선유동후문슈퍼	833-8186	유팔궁민박	833-8108

■ 특산물

괴산청결고추, 괴산시금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인삼, 사과,
친환경 농산물

■ 관광메모

- 상관평 관평교회 뒤편의 관평초등학교 자리에는 단체 행사에 적합하다.(관리자와 협의)
- 대야산(931m)과 남군자산(827m)은 좋은 등산코스이다.

〈선유계곡〉 선유동문, 경천벽, 학소암, 연단로, 와룡폭, 난기대, 기국암, 구암, 은선암

■ 맛있는 음식점

명암식당	833-8371	닭볶음탕, 백숙
솔뫼골	833-7959	버섯전골
연리지가든	833-0222	토종닭, 매운탕
송림가든	832-8249	보신탕, 닭볶음탕, 백숙
화승식당	833-6954	토종닭, 백반, 배운탕 등

■ 화양계곡의 명소



금사담의 설경



만동묘



구름이 비치는 운영담



물좋은 화양계곡의 피서



선유동문



나무꾼의 전설 - 난가대



절구모양의 연단로



삼승리의 왕소나무숲



금강이 바로 예로다

쌍곡계곡

쌍곡계곡은 괴산 8경중의 하나이다. 보배산과 칠보산, 군자산을 타고 내리는 계곡으로 산이름만큼이나 아름다워 작은 금강이라 불린다.

예로부터 퇴계 이황, 송강 정철 등 많은 유학자와 문인들이 즐겨 찾았다.

율창한 노송의 숲과 기암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이 곳곳에 절경을 만들 어내고 있다.



■ 가는길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괴산IC)→칠성방향→태성리→
쌍곡계곡
중부고속도로 증평IC→괴산→칠성→태성→쌍곡계곡

■ 숙박

쌍곡파크 832-8998 소금강민박 832-8877
쌍곡예당 832-1770 제일민박 832-0778
떡비위산장 832-9982 비악산민박 832-5833

민박

소니루민박 832-5986 쌍곡휴게소가든 832-1002,3
쌍곡질말할마니집 832-5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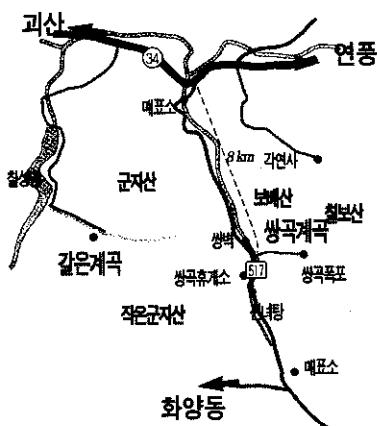
■ 맛있는 음식점



떡암식당	832-5696	도증 닭볶음탕, 오리탕
도미골식당	832-5783	닭볶음탕, 백숙
소금강휴게소	832-3943	오리불고기, 닭볶음탕
쌍곡휴게소가든	832-1003	자연산 버섯찌개
느티울집	832-3419	매기매운탕
비악산식당	832-5833	버섯전골
그린하우스	832-5594	버섯전골
칠보산산장식당	832-5594	닭볶음탕
금호쉼터식당	832-7566	백반정식

■ 둘러볼 곳

괴산방면(14km): 홍범식고택, 괴강관광지, 산막이옛길
연풍방면(6km): 각연사, 수옥폭포, 미애불좌상, 연풍성지
(쌍곡계곡) 호릉소, 소금강, 떡비위, 문수암, 쌍벽, 용수, 쌍곡폭포, 선녀탕, 장암



갈은계곡

갈은구곡은 칠성면에서 괴산수력발전소를 지나 5km정도 들어서면 갈론이란 마을에 달게 된다. 갈론마을을 지나 2~3km 남짓 계곡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비경이 갈은구곡으로 신선이 내려왔다는 강선대를 비롯하여 같은동문, 갈천정, 옥류벽, 금병, 구암, 고송유수재, 철학동천, 선국암이 9곡을 형성하고 있다.



계곡

■ 가는길

괴산 괴강다리(칠성·연풍방면)→칠성삼거리(외사방향),
갈은계곡: 17km

■ 특산물

괴산청결고추, 괴산시금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인삼, 사과,
친환경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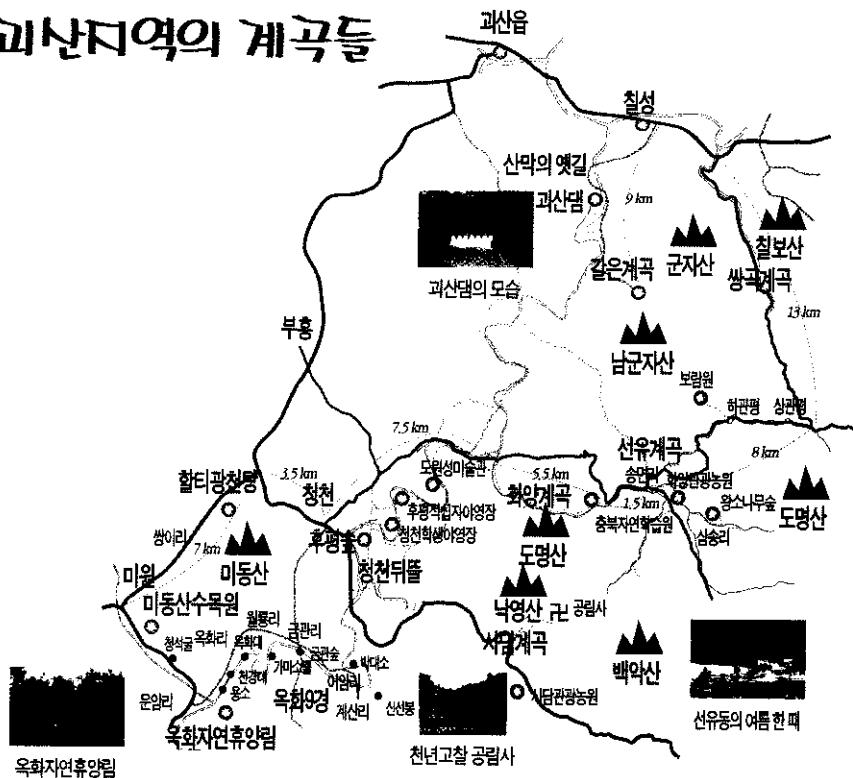
■ 숙박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 832-3527

■ 둘러볼 곳

비학봉 마을, 산막이옛길, 괴산수력발전소, 둔율울갱이마을

괴산지역의 계곡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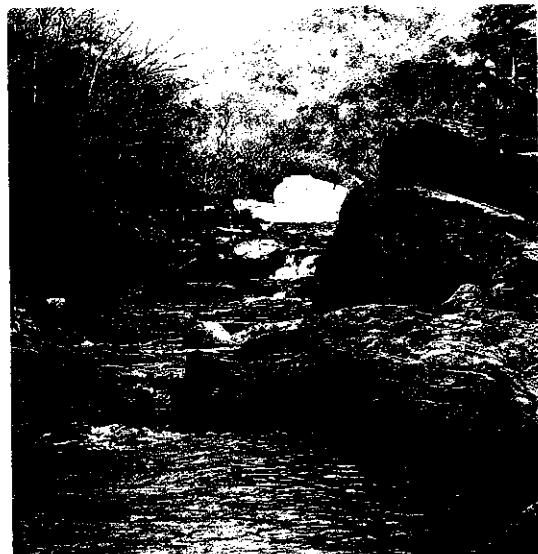
속내의 땅을 벋다

만수계곡

속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한 삼가천에서 삼가지수지에 이르는 4km의 계곡.

주위의 우거진 숲과 깍아지른 듯한 바위가 절경을 이루고, 물속까지 보이는 맑고 깨끗한 물이 보기만 해도 더위를 잊게 한다.

만수리에 들어서서 어느 계곡에 걸터 앉아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색에 잠기기에는 안성맞춤이다.



■ 가는 길

- ▷ 보은·상주방면 → 대야리 삼거리 → 밀티고개 → 갈목리
→ 만수계곡
- ▷ 보은→대야리 삼거리 → 상주방면 → 장내리 삼거리 → 서원계곡→만수계곡

■ 숙박

서당골관광농원·청소년수련원	542-0981
밀티재자연휴양림	543-6282~4
남경가든민박	543-9302
청운별집민박	542-5327
만수농장민박	542-5336

■ 맛있는 음식점

남경가든 542-9302 토종닭도리탕, 버섯전골

■ 특산물

영지버섯, 산채, 약초, 양봉꿀
만수리 버섯 작목반 542-5329
보은농협장안지소 542-5813

■ 둘러볼 곳

속리산국립공원(법주사, 문장대, 정이풀송, 구병산, 천문대
선병국 가옥, 삼년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법주사 대웅전



속리산 청법대



구봉산



보은의 명품 - 대추



심산유곡 맑은 물 물한계곡

이름그대로 물이 맑고 차서 물한계곡이다. 삼도봉과 석기봉, 민주지산등 해발 1,100m~1,200m의 고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쌓아 20여km의 깊은 골을 만든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물이 차다는 한천 마을의 상류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로부터 여름피서지로 이름높아 수도권에서도 찾는 이들이 많다.



계곡

■ 가는길

- 경부고속도로 황간 IC → 매곡면 → 상촌면 물한리
- 영동읍에서 상촌면 물한리까지 시내버스 이용 (1일 5회 운행)
영동에서 물한리 계곡입구 시내버스 1일 5회 운행 (시간 30분 소요)
- 황간에서 물한리 버스 이용 (30분 소요)

호도, 감(곶감), 포도, 표고버섯, 더덕, 두릅, 고로쇠 약수
상촌농협 743-3580

■ 둘러볼 곳

횡룡사, 조동산촌마을, 월유봉, 반야사

■ 특산품

계곡에 호도와 밤이 많아 가을여행을 즐겁게 한다.

■ 민주지산 산행코스

물한리 주차장 → 잣나무숲 → 육수폭포 → 의용골폭포 → 음주암폭포 → 삼미골재 → 삼도봉 → 석기봉 → 주능선안부 → 민주지산 → 쪽시골갈림길 → 합수마리 → 잣나무숲 → 주차장 (산행거리 11km, 약 5시간 소요)

조동산촌마을

조동산촌마을은 산간오지마을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을내 곳곳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숙박: 조동시연수원 746-8866

특산품: 고로쇠 수액, 표고버섯, 호도, 포도, 산, 물, 약수



한천마을 민박집
대구면박 746-0040
노데월 746-1389
이미경 746-8297
남성현 746-0805
호도나루 민박집
: 745-3476
버스종점 민박집
: 746-1360

온달과 평강의 사랑

온달관광지

온달관광지는 소백산국립공원 서쪽, 온달산성 아래쪽에 있다.

온달과 평강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과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잔디광장, 야외무대와 온달과 평강의 사랑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온달전시관과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매년 10월이면 단풍과 국향처럼 고운 온달문화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 가는길

단양 -> 고수대교 건너 좌회전 → 군관교 건너서 우회전 → 영춘교 건너서 우회전 → 온달관광지

■ 숙박

영춘면내에 다수의 펜션과 민박 등이 있으며 인근 가곡면과 단양시내에도 많은 숙박시설이 있음

■ 맛있는 음식점

온달동굴 부용식당	423-7706
온달동굴 식당	423-8864
가든온달산성	423-7199

■ 교통

제천 터미널→영춘면 1일 12회 직행버스 운행
단양에서 영춘행, 구인시행 버스를 이용.

■ 둘러볼 곳

단양벌경, 고수동굴, 천동동굴, 노동동굴(공개제한), 신라적성비, 향산석탑, 온달산성, 구인사, 천동관광지, 소백산판광목장, 소백산국립공원, 온달동굴, 방곡도예촌, 북벽

온달동굴관리사무소 423-8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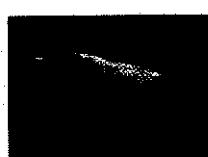
신록의 구인사



깎아지른 듯한 북벽



신비한 온달동굴



남한강변의 온달산성



다리안의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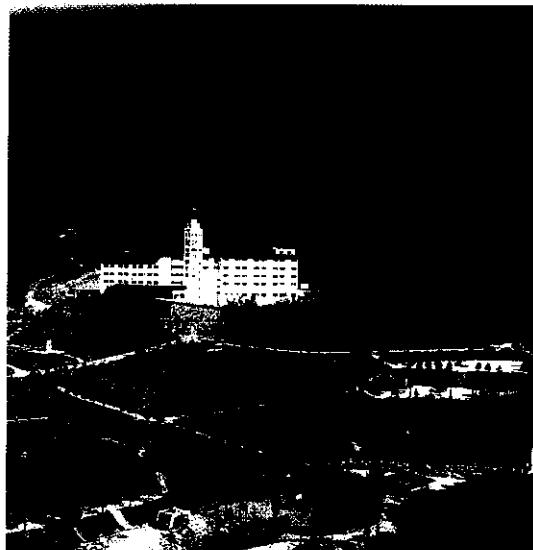
다리안관광지

다리필의 폭포가 일품이라 다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소백산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줄기가 휘돌아 흐르는 곳이다.

관광지내에는 원두막 26개, 주차장 3개소, 야영장, 그리고 1,3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백산유스호스텔이 있어 관광휴양지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계곡에서 소백산을 오르는 등산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유원지

■ 가는길

단양 → 고수대교 건너 우회전 → 고수동굴 → 다리안관광지

■ 숙박

소백산유스호스텔 421-5555

다리안관광지내 야영장 및 민박, 펜션 다수

■ 맛있는 음식점

개질그리기 423-8836

동굴식당 423-1113

샘골산장 423-4100

■ 교통

단양에서 천동다리안 방면 버스 이용

다리안관광지 423-1243 (단양에서 6.7km)

천동관광지 423-1242 (단양에서 5.6km)

■ 둘러볼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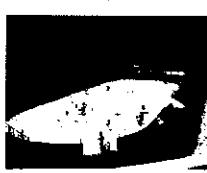
고수동굴, 천동동굴, 소백산, 온달관광지, 크레이사격장, 천동관광지(돌놀이장, 파3골포장)



고수동굴의 석순



노동동굴(공개재한)의 비경



천동돌놀이장



소백산관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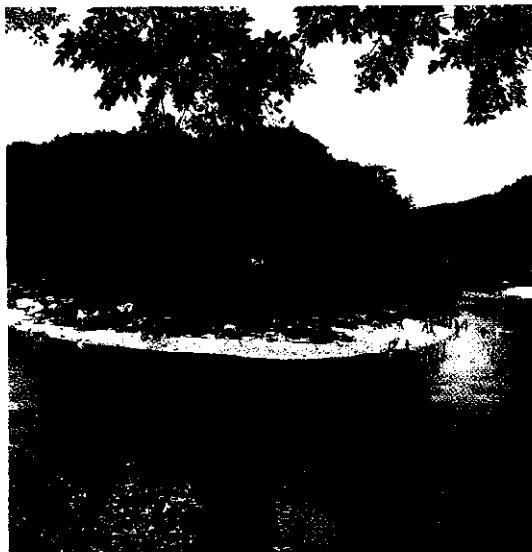
간을 빚는 곳

탁사정

탁사정 유원지는 치악산에서 내린 물이 휙감아 가는 곳에 깨끗한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탁사정은 중국 '굴원'의 '어부사'에 나오는 '청사탁영(淸斯濯艶), 탁사탁족(濁斯濯足)'에서 따온 것이다.

해송 여덟 그루가 있는 팔송정과 잠방이로 자루를 만들어 고기를 잡았다는 자루바위가 있다.



가는 길

제천시내에서 5호선국도 원주쪽으로 13km 지점에 제천→원주를 잇는 국도변에 있다.

현지 교통 : 제천에서 원주 방면의 직행버스가 운행된다. (20분 소요) 시내버스는 제천에서 수시로 운행하며 약 25분이 걸린다.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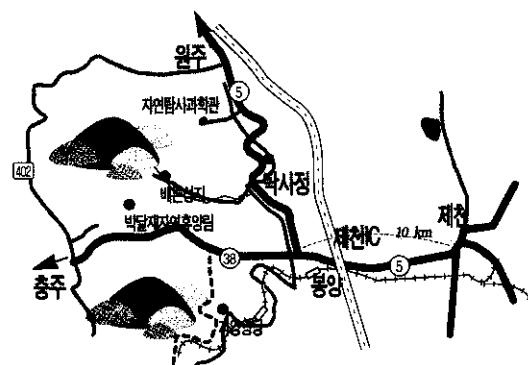
제천관광호텔	643-4111
박달재자연휴양림	652-0910
아름다운세상(펜션)	651-5251
솔뫼너마(펜션)	651-9921
산마루(펜션)	651-4412

맛있는 음식점

길상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651-5663
탁사정 궁골식당	653-2665
별장식당	651-4772
강촌기사식당	651-1536
아리랑토면(제천시내 10km)	647-8658
시또가든	653-4960

둘러볼 곳

배론성지, 박달재자연휴양림, 덕동계곡, 의림지, 자양명당



인적드문 여울

삼탄유원지

산척면 명서리 상류에 관천소여울, 소나무여울, 따개비소여울이 약 1km 걸쳐 있어 삼탄(三灘)이라 한다.

화전민들이 가끔 머물렀을 정도로 인적이 드물어 전쟁 등 큰변란이 있을 때마다 피난처로 삼았던 오지였다.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주변의 산과 조화를 이룬 명승지로, 학생들의 MT장소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우리마을

■ 가는길

기차 충북선→충주→동랑역 삼탄역
충주→제천방면 산척면소재지→산척초등학교 우회전→덕해
교 건너기전 조회전→삼탄역

■ 숙박

술밭산장	852-8495
빅딜자수련원	652-9222
빅딜자자연휴양림	652-0910
삼탄청소년수련원	851-9938
충주호리조트	851-2800

■ 맛있는 음식점

술밭산장식당	852-8495
삼탄액수기든	852-6936
중원가든	854-7227 육류
봉서식당	853-6025 한식

■ 둘러볼곳

충주댐, 박하사탕 촬영지, 자양영당



자양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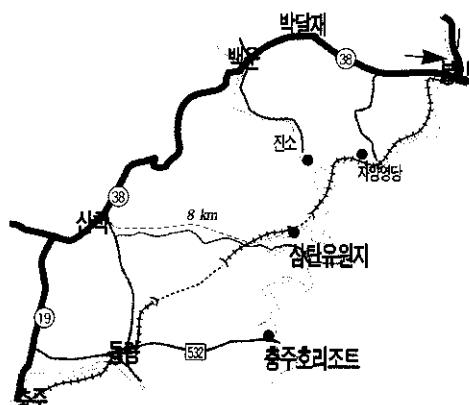
충주호리조트 전경



택견전수관



영화 박하사탕 촬영지 진소



달천따라 편설따라

옥화9경

달천이 만들어낸 약 12km의 천연 피서지이다. 물길이 완만하고, 천연의 숲이 조화를 이루 단체행사에 적합하다.

굴안에서 용이 나왔다는 청석굴,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이무기가 되었다는 용소, 하늘의 거울 천경대, 참나무가 물정한 옥화대, 금봉, 30m의 골참나무숲인 금관숲, 그리고 가마소뿔과 신선봉, 박대소를 옥화9경이라 한다.



■ 가는길

청주→미원→보은방면→운암삼거리 좌회전

■ 숙박

옥학자연휴양림(하루 200명 수용) 297-3424

옥학자연휴양림 입장료

성인 1000(단체 500)

청소년 500(단체 300)

어린이 300(단체 200)

금관숲 입장료

일반 800, 학생 500, 개인택트 3500

■ 맛있는 음식점

강변식당 225-9075

금관숲식당 225-9249

금관절경 225-8114

상촌매운탕 297-9933

■ 둘러볼 곳

신체호사당, 미동산수목원

옥학9경: 청석굴, 용소, 천경대, 옥화대, 금봉, 금관숲,

기마소뿔, 신선봉, 박대소



신체호사당



금관숲



문화재단지



대청댐



대청호반의 넝마

장계관광지

안내면 장계리는 대청호의 상류로 물길이 완만하고, 호반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다.

장계관광지는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절경을 이용해 향토전시관, 정자용 시인을 테마로 한 "멋진 신세계" 등을 조성하여 가족단위관광객 및 청소년의 휴식공간으로 명실상부한 종합관광지이다.
(043-730-3418)



유원지

■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옥천 IC에서 보은방면 국도로 약25분
옥천버스터미널에서 안내, 안남, 보은방면 시내버스 이용. 장계리에서 하차, 20분 소요.

새 강변식당	043-733-3678
대전가든	043-732-5603
소양방매운탕	043-733-6601
뿌리깊은나무	043-731-0567

■ 숙박

숲속파크	043-733-3906
큰엄마네 민박	043-733-3736
장자마을	043-733-7472

■ 특산물

옥천포도: 주위의 포도밭이나 옥천농협(730-6007)

■ 둘러볼 곳

장령산자연휴양림, 정자용생가, 육영수 생가

■ 맛있는 음식점

옥천IC에서 보은방면으로 4Km 지점에 향토음식촌이 있다. 향토음식인 도리뱅뱅이, 민물회, 매운탕, 윗장어구이가 유명하다



정자용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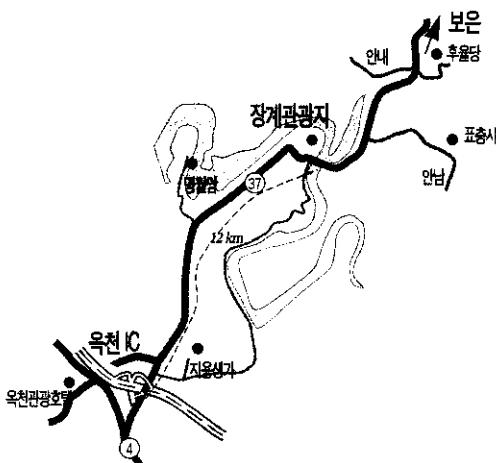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유원지



장령산자연휴양림



옥천 명물 도리뱅뱅이



선인들의 자취가 가득

송호관광지

양산은 수려한 산세와 금강불이 어우러지고, 선인들의 자취가 담긴 누각과 정자들이 많은 곳이다.

송호관광지는 휴양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물놀이장은 특히 인기가 높다.

선녀가 목욕했다는 강선대, 용이 그 경치에 반하여 승천을 못했다는 용암, 영국사, 비봉산, 봉황대, 향벽정, 여의정, 자풍당을 양산팔경이라 한다.



■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옥천 IC→0이원→양산 송호리(35분)

경부고속도로 황간 IC→영동→양강→학산→송호리(45분)

- 서울에서 경부선 기차를 타고 영동에 도착, 영동역에서 5분 걸어서 영동공용버스정류장에 가면 송호리행 버스가 수시로 있다.

■ 숙박

송호유스호스텔 743-9081~3 송호파크 745-0048

송호관광지 740-3210

입장료 어른 1000(단체 900),

청소년 800(단체 700), 어린이 500(단체 400)

숙박 방갈로 2만원(1일), 원룸 6만원 1일(숙박 가능)

■ 맛있는 음식점

영일식당 743-9064 한솔식당 744-0294

신금강식당 744-4333 금호가든 743-9012

송호리 솔밭을 거닐다보면 금호가든이 보인다. 양산 인근의 금강에서 잡은 삐가사리를 뚝고아 육수를 만들고 된장을 풀어서 비린내를 없애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얼큰한 맛을 낸 어죽이 일품이다.

■ 둘러볼 곳

천태산(영국사), 마니산, 옥계폭포, 난계사, 심천유원지,

난계국악박물관, 난계생가



선녀가 내려온 강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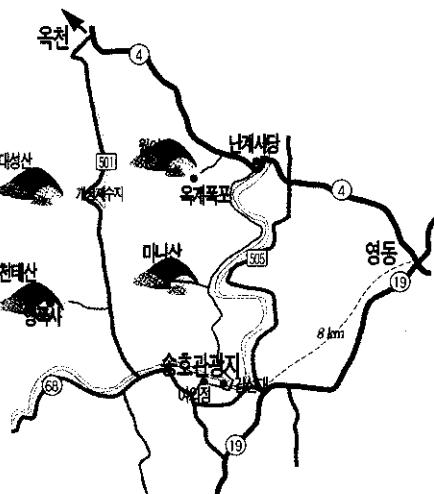
여의정



영국사



별미인 도리뱅뱅이



억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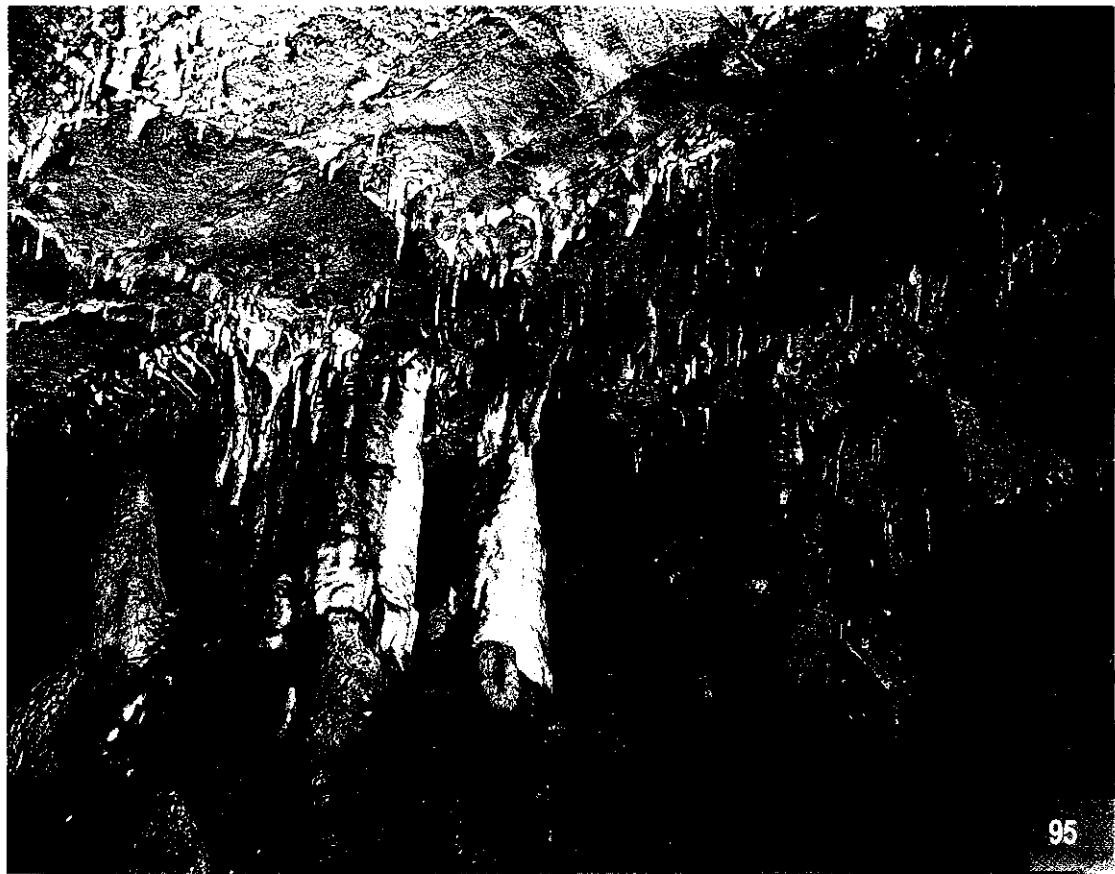
동굴의 신비

동굴

고수동굴 96

천동동굴 97

온달동굴 98



가장 아름다운 동굴

고수동굴

약 4억 5천만년 동안 생성되어온 석회암 자연동굴로서 천연기념물 256호로 지정.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중 하나로 꼽힌다.

독수리 형상의 「독수리 바위」, 나신의 미녀가 날렵하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미녀승무바위」, 100년이라야 1cm가 자라 몇십 만년 후에야 만남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사랑바위」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 가는 길

단양(0.6km) → 고수대교 건너 직진 → 500m

■ 숙박

단양관광호텔 423-7070

대명콘도 420-8311

여관, 펜션, 민박 다수

■ 맛있는 음식점

오학식당 422-3313 묵밥정식, 돼지고기 수육

장다리식당 423-3960 온달장군 미늘솥밥

대교식당 422-6500 쏘가리 매운탕

■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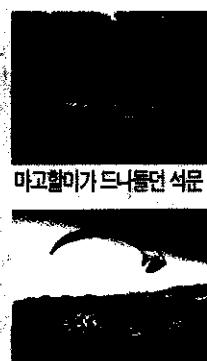
단양에서 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

■ 관광메모

▷ 동굴은 시계절 섭씨 15℃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방된 길이는 1.7km로 약 50~60분 정도가 걸린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다.



꽃쟁반바위를 아시나요

천동동굴

여성적이고 섬세한 자연의 극치를 체험할 수 있는 천동동굴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9호로 약 4천만년의 연륜을 갖는 길이 470m의 천연 석회동굴이다.

입구가 협소하여 20여m를 기어 들어 가야 하는데 아직도 덜 여문 듯한 석주와 쏟아질 듯이 박힌 아기자기한 종유석들은 장대하지는 않으나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동굴

■ 가는길

단양(0.6km)→ 고수대교 건너 직진[6.1km]→ 천동관광지 입구

■ 교통편

시내버스는 단양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
열차는 청량리역에서 단양역까지 1일 6회 간격 운행

■ 숙박

단양관광호텔 423-7070
대명콘도 420-8311
여관, 펜션, 민박 다수

■ 맛있는 음식점

온누리식당 423-3312 미늘쌈밥정식, 능이버섯전골
장다리식당 423-3960 온달장군마늘술밥
동원회집 422-3457 쏘이리(회) 매운탕

■ 둘러볼 곳

도담삼봉, 석문, 고수동굴, 천동동굴, 노동동굴(공개제한), 소백산



천동물놀이장



소백산 능선의 주목군락



다리안관광지



단양마을



온달장군이 있었다네

온달동굴

남굴이나 성산굴이라고도 불렸다.

동굴의 생성연대는 약 2억 5천만년 동안 생성된 석회암 자연동굴로서 현재 개방된 길이는 760m, 입구높이 5~10m, 폭 5m로 관람에는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

이 동굴은 온달장군이 수도하였던 장소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6.25때에는 피난처로 이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 가는길

단양→고수대교 건너 좌회전(영월방면 595번지방도)→영춘교 건너 우회전→온달산성 아래

■ 숙박

단양관광호텔	423-7070
대명콘도	420-8311
민박, 펜션 다수	

■ 맛있는 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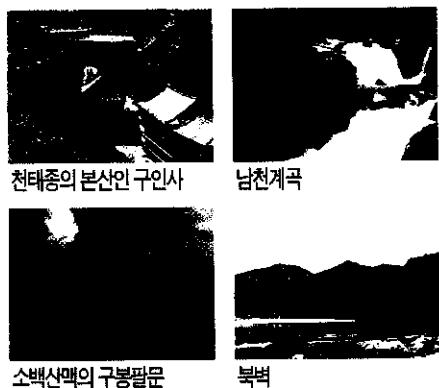
온달동굴부용식당	423-7706
온달동굴식당	423-8864
기든온달산성	423-7199

■ 교통

제천터미널→영춘면간 1일 12회 직행버스 운행
단양↔남천리 시내버스 1일 4회

■ 관광메모

지하수가 풍부하여 다른 동굴과는 달리 담회백색 석순과 종유석이 잘 발달되었고 동굴 내부의 온도는 여름철에 섭씨 16도, 겨울철에 섭씨 14도, 수온 12도로 피서지로서 적합하다.
특히, 동굴 보존지역으로 남아 있는 동굴 끝부분에는 다양한 종 유석, 석순 케비티 등이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다.
(온달동굴 관리사무소 423-8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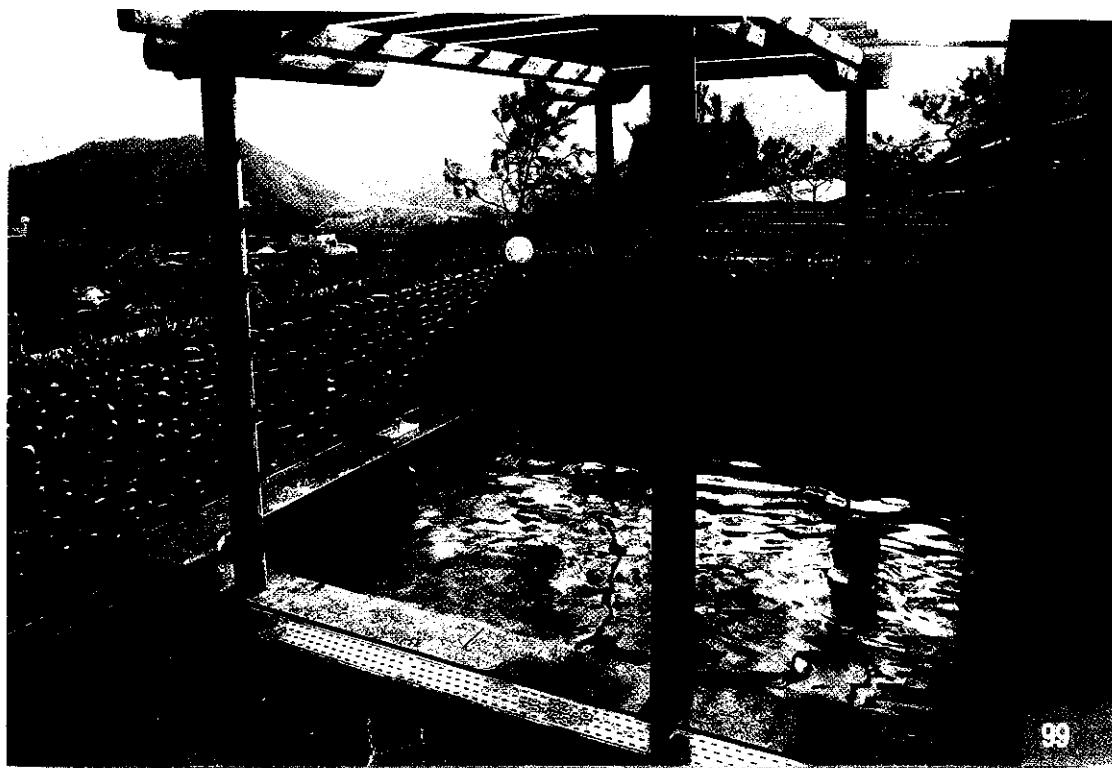


몸을 살린다

온천의 고장

온천

- 수안보온천 100
- 양성탄산온천지구 101
- 문강온천 102
- 초정약수 103



국내 퇴고의 온천

수안보 온천

수안보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한 전국 최초의 온천으로 그 유래가 깊다.

지하 250m에서 용출되는 수온 53°C 산도 8.3의 약 알카리성 온천 원액으로 인체에 이로운 각종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온천수이다.

일찍부터 개발되어 각종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가는길

중부고속도로 음성 IC→금왕→주덕→충주→수안보
영동고속도로 여주 JCT→충주IC→수안보

■ 특산물

조령민속공예촌 (도기공예, 한지공예)
월악산고본주

■ 관광코스

수안보온천 → 수옥폭포 → 조령삼관문 → 조령산자연휴양림
수안보온천 → 미륵대원자 → 덕주사 → 월악산

■ 숙박

수안보상록호텔 845-3500 수안보파크호텔 846-2331
조선관광호텔 848-8833 수안보한화콘도 846-8211
수안보한국콘도 846-0451
시조마을유스호스텔 846-0751

■ 맛있는 음식점

대장군식당 846-1757 주정산가든 846-7791
행나무식당 846-2813 영화식당 846-4500

■ 관광메모

- 조령3관문을 넘어 1관문까지 좋은 산행코스이다.



양성탄산온천 지구

장호원에서 충주방면의 국도변에 있다. 탄산온천은 모세혈관을 자극하고 확장시켜 주는 작용을 하여,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 이 물을 마시면 위장활동이 활성해지는데, 특히 식후에 마시면 복부의 압박감, 팽만감이 제거되며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준다. 돈산지구, 충온지구, 중원지구, 능암지구 등이 있다.



음악

■ 주요 온천

충은지구	肯성타워리조트 854-3100	산천파크 854-5004
돈산지구	돈산라이프케어 855-6001	
중원지구	중원온천개발 855-7366	능암파크 855-7011
	가마골단산온천 855-8877	양성단산온천 855-7360
능암지구	능암온천리저 854-6800	리베라 호텔 853-0093
	송암단산온천호텔 854-3656	능암온천랜드 844-2020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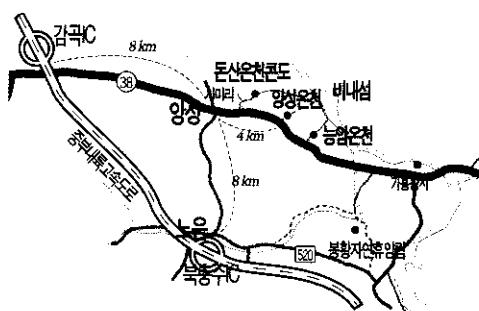
- ▷ 경부·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여주JCT → 중부내륙고속도로 강곡 IC → (38번 국도) 양성온천
- ▷ 충주→조정지댐→가흥삼거리→능암

■ 맛있는 음식점

돈산온천가든	851-6001	소머리국밥
중庸읍오리집	855-3756	오리백숙
나의실던고향은	854-7856	
노들갈비	855-9933	연동하찌

■ 목록

중앙탑, 고구려비, 충주박물관, 탄금대, 양성참한우마을,
충주고구려처무과학과



전국 제일의 유황온천

문강온천

월악산, 조령산, 수주팔봉 중간에 위치한 문강 유황 온천은 물 좋기로 이름난 전국 제일의 유황 온천수로 특히 피부의 각질을 연화시켜 피부병, 만성 피부염, 만성 류마티스, 부인병, 동맥 경화, 당뇨병과 무좀에 뛰어난 효험이 있다.



■ 가는 길

충주 → 수인보방면 (6km) 직진후 자연기든 삼거리에서 우회전 이정표 (괴산·문강)

■ 숙박

문강유황온천호텔 848-5115

■ 맛있는 음식점

용천기든 851-8069
자연기든 851-8431 한식
진풍기든 843-0778 꿩요리

길마기든 851-8026 오리불고기
귀골산장 851-8818 민물어페류
명산기든 851-7208 한정식

■ 둘러볼곳

수옥정, 수옥폭포, 조령삼관문, 사조리조트스키장, 연풍성지
월악산, 계명산자연휴양림, 충주호, 송계계곡, 충렬사,
사조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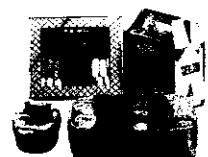
충주의 우륵당



임경업장군의 충렬사



추첨미선나무자생지



충주한과



병을 낫게 하는 약수

초정약수

초정약수는 『약(藥)이되고 병(病)이 낫는다』는 신효(神效)의 물로써 세계 광천학회에서 미국의 샤스터, 영국의 나포리나스 와 함께 세계3대 광천수(鑛泉)로 꼽고 있다.

예로부터 7~8월 한여름에는 초정약수의 약효가 제일 좋다고 하여 북날과 백중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온천

■ 가는길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 증평 → 내수 → 초정

중부고속도로 오창 IC → 내수 → 초정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 청주 → 내수 → 초정

청주 → 음성 → 증평 → 초정

청주시내에서 초정리까지 시내버스 수시운행 (40분 소요)

■ 숙박

옥화자연휴양림 297-3424



손병희선생 유하지



옥화자연휴양림



운보의 집



초정약수 제품들

■ 맛있는 음식점

대왕약수촌 213-1660 한솔가든 213-7300

장호식당 214-0255 청일가든 213-9345

■ 관광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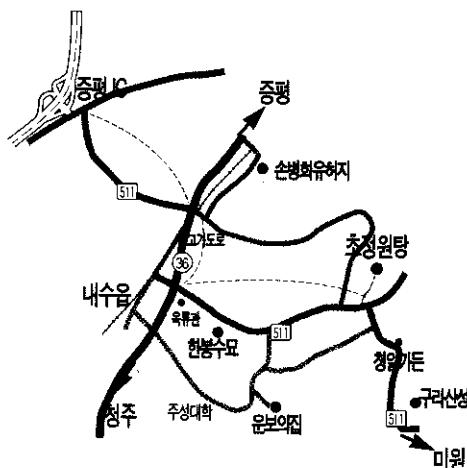
손병희선생유하지 → 한봉수묘 → 운보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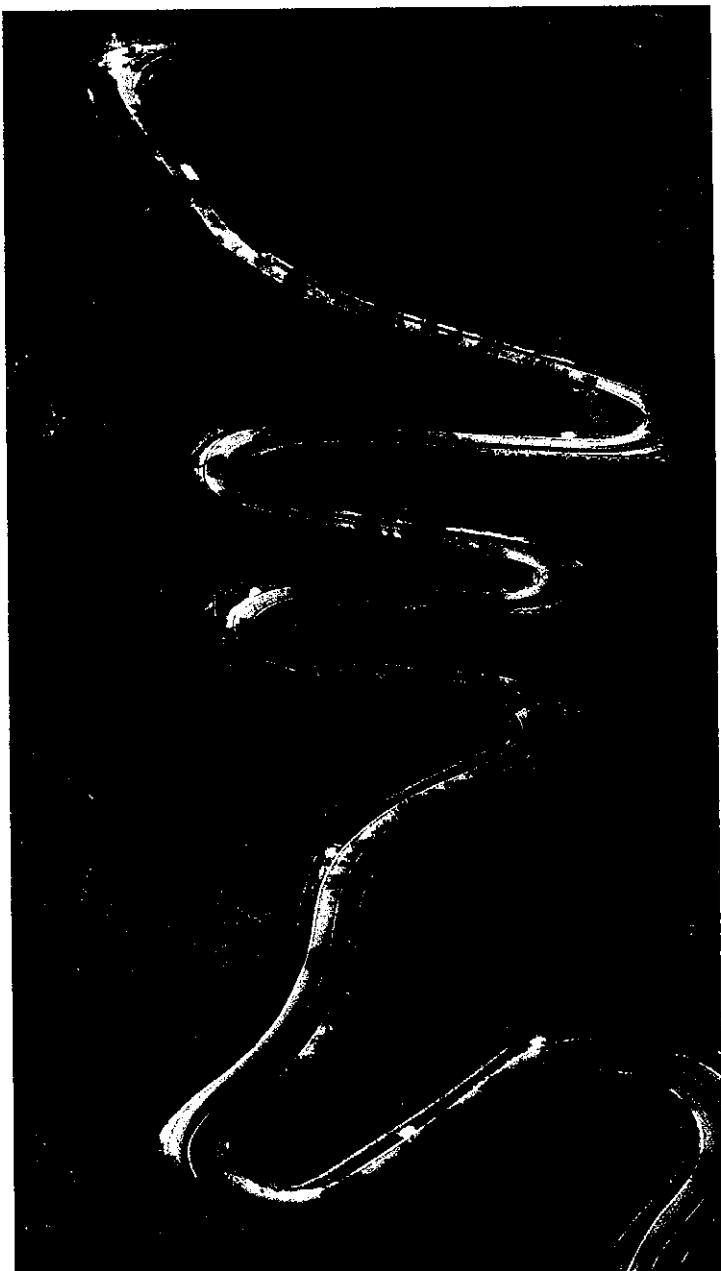
→ 초정약수 광천욕

■ 관광메모

- 초정지역에는 약수탕, 숙박지, 식당 등이 잘 갖춰져 있다.

- 구라산성 계곡을 따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많이 있다.





속리산으로 가는 길 - 말티고개

지키고 가꿔야 할

생태와의 만남

소백산 주목군락	106
영천측백수림	107
망개나무자생지	107
왕소나무숲	108
제천 망개나무자생지	108
진천 왜가리번식지	109
미선나무자생지	109
가시연꽃자생지	110
두꺼비 생태문화관	110
용정산림공원	110

생태



소백산 정상의 주목군락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천연기념물 제 244호

소백산 주목군락의 주목은 해발1,200~1,400m의 소백산 능선을 따라 서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정면적 45,000평에 100여그루씩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소백산에 총 3,400여 그루가 집단 자생하고 있다.

고산지대의 비바람으로 주목 높이가 7m내외이며 둘레는 일정치 않으나 2m정도로 나무기지가 사방으로 뻗어 관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가구 재료로 사용하였고 희귀목으로 금표에 의하여 보호되었으며 일반인은 정원에 심는 것 조차 어려워 대가집이나 궁궐의 정원수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노동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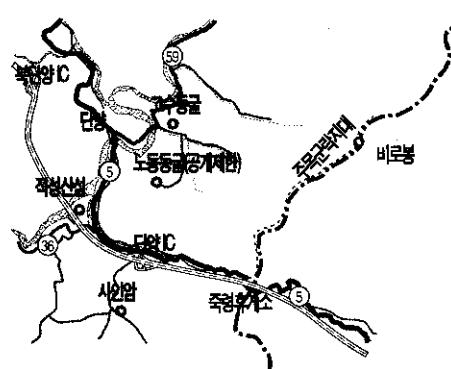
소백산 관측소



소백산 철쭉군락



적성비



영천 측백수림

단양군 배포읍 영천리
천연기념물 제 62호



단양군 배포읍 영천리 단양-제천 국도변의 석회암 지대에 1~2m 정도의 측백나무가 집단으로 자생하여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또 반치식물의 일종인 '도깨비고비'가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곳이 '도깨비고비'의 북한계지이어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측백나무숲 사이에서는 한국 특산종인 줄맹기나무도 자라고 있다.



생태

망개나무자생지

과천군 청천면 사당리
천연기념물 제 266호



망개나무는 갈매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며 길이 7~12cm이다. 꽃은 결잎으로 녹색의 잔꽃을 6~7월에 피우며, 과실은 8월에 흥동색으로 익는다. 밀원식물로 가을에 노란색 단풍이 든다. 천연기념물 266호이다.

자생지는 덕가산과 백악산, 남산 사이의 계곡으로 경사가 급하고 암석지대라 접근이 어렵다.

약 260여주가 자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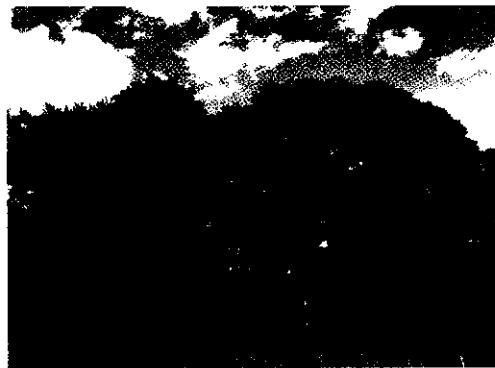
왕소나무숲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대촌부락
천연기념물 제 290호

가슴높이 둘레 4.91m, 키 13.5m. 보는 순간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이 왕소나무는 수령이 60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이 승천한 자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무 밑동부터 끝까지 용이 꿈틀거리듯이 꼬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아름드리 소나무 17그루가 주위에서 시중을 들고 서 있어, 틀림없이 깊은 곡절이 있는 소나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왕소나무는 한 나무에 암, 수가 있고, 4~5월이면 꽃이 핀다.



제천 망개나무자생지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46-1
천연기념물 제 337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에 드물게 자라는 희귀종으로 황색단풍이 매우 아름답다.

송계리의 망개나무는 해발 400m에 위치하고, 수령 150살로 추정되며, 높이는 17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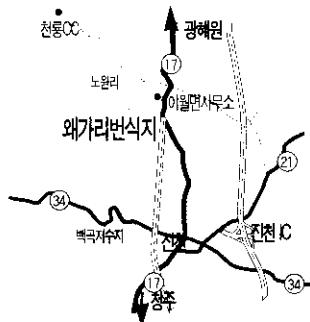
진천 왜가리번식지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노곡마을
천연기념물 13호



이월면 노원리 노곡마을 뒤에 수령이 약 8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20m, 둘레는 약 8.6m이다. 이 나무 및 주변이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된 왜가리 번식지이다. 나무의 밑동에서부터 큰 가지가 하늘로 뻗어있고 중간 부분부터 맨 위까지는 왜가리 등지와 배설물로 인해 거의 말라죽어 살아 있는 가지는 중간부분 이하이다.

현재 왜가리 번식지는 은행나무 뒤편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생태

미선나무자생지

과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 144-2
천연기념물 220호

과산군 장연면 송덕리
천연기념물 147호

과산군 칠성면 올월리
천연기념물 221호



세계에서 1속 1종밖에 없는 희귀종이면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 이른 봄,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꽃 색깔은 흰색, 분홍색, 상아색이 있으며, 열매가 등근 부채모양을 닮아 미선나무라 불리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20호로 화귀성과 생태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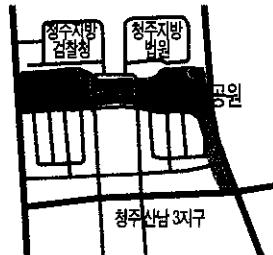
이곳은 작은 야산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기울어진 급경사지로서 사방을 높은 철망으로 둘러쳐 보호하고 있다.

가시연꽃자생지

보은군 보은읍 자선리 우포늪
과산군 불정면 지장리 석정마을

희귀 수생식물인 가시연꽃은 오래된 연못에 자라는 한해살이 물풀로서 타원형의 큰 잎과 가시가 있으며, 7~8월경에 가시 돋은 긴 자루 끝에 한개의 자주색 꽃이 피며, 낮에 벌어졌다가 밤에는 닫힌다.

이곳은 수질이 깨끗하여 가시연꽃을 비롯한 각종 수생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두꺼비생태문화관

-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흥로 22(산남동)
- ▶ 문의 : 043-200-7732
- ▶ 홈페이지 : <http://www.wonheungi.net>

전국 유일의 두꺼비생태공원으로 두꺼비 생태를 관찰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장이다. 원흥이 마을발전하기, 두꺼비 가족과 대화하기, 두꺼비친구 이해하기, 두꺼비 지키기 등 4개 테마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전시실에는 두꺼비를 비롯해 양서류 등의 생태를 공부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원흥이 방죽과 인근 구룡산의 동·식물에 대한 자료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 개관시간 : 10: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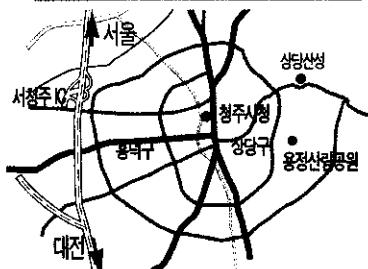
용정산립공원

-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34-1
- ▶ 문의 : 540-7071~5 ▶ 시행청 : 보은국유림관리소

김수령양궁장 옆 산록에 조성된 도시숲 생태체험장으로 2Km의 산책로와 쉼터2곳, 숲속 헬스장, 정자 1곳, 산립환경해설관 8곳이 설치되어 있다. 산책로 주변에 수목명찰과 안내판을 달아놓아 주민들이 숲속 산책로를 걸으면서 숲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동을 하면서 숲의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낙가산~것대산(봉수대)~상당산성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2월~11월(공휴일 제외)에는 숲해설사로부터 숲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 휴관일 : 연중무휴 ▶ 관람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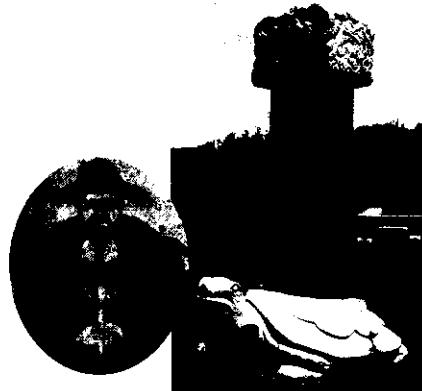
시인묵객의 풍류를 따라



책벌레 김수온	112
관란정의 원호	113
가시문학의 정철	114
단양군수 이황	115
청풍명월의 시인 김득신	116
방랑시인 김삿갓	117
영동문향의 숲	118
감자꽃 권태웅	119
옥계폭포의 박연	120
진천의 조명희	121
임꺽정의 홍명희	122
향수의 정지용	123
연풍현감 김홍도	124
신필(神筆) 김생	125
조각가 김복진	126
운보의 집	127
탄금대의 우륵	128

예술

책벌레 김수온



책을 뜯어 벽에 밟아놓고 본 책벌레

조선시대를 통틀어 3대 문장가로 꼽히는 괴애 김수온 선생은 1409년(태종 9)에 영동군 용산면 토용리 오았골에서 태어났다.

괴애선생은 젊어서 책읽기를 무척 좋아해서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신숙주와의 일화가 유명하다.

신숙주에게 임금이 하사한 『고문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어느날 괴애는 긴장을 해서 그 책을 빌려와서는 책을 뜯어서 벽에 밟아놓았다. 뒤에 신숙주가 책을 찾으러 와서 따지니 괴애선생이 말하기를 “제가 누워서도 책을 외우느라 그랬습니다.”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책을 가까이 하고 학문에 힘쓴 것이다.

괴애선생은 벼슬을 하고나서도 학문과 문장을 계을리하지 않아 당시의 대학자 서거정, 강희맹 등과 문명을 다투었고, 4서 5경의 구결을 정하였으며 중국의 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등 국어 발전에 크게 힘썼다.

『식우집』 이외에도 수많은 문집들을 남겼으며, 다른 학자들과 함께 『치평요람』을 만들었고 종합의료서인 『의방유취』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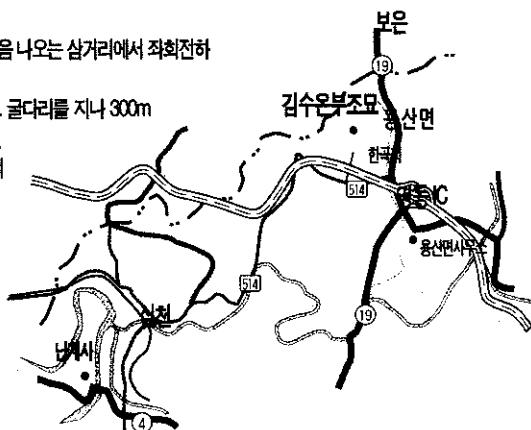
부조묘(不祧廟)는 종곡에 있던 것을 송시열이 보은읍 지산리 선학동으로 옮겼다고 한다.

■ 가는 길

- ▷ 경부고속도로 영동 IC에서 나와 보은방면으로 돌아 처음 나오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심천면으로 가는 길이다.
- ▷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이어진 굴다리가 나오고 굴다리를 지나 300m쯤 가면 오른쪽으로 경부고속도로 밑에 굴다리가 나 있다.
- ▷ 굴다리를 통과하면 나오는 마을이 한국리이고, 한국리 뒷산에 김수온 선생의 부도묘가 있다.
- ▷ 가는 길에 한과를 생산하는 장군식품이 있다.

■ 관광예모

- ▷ 심천면으로 가면 난계사당, 난계국악체작촌 등이 있다.



관란정의 원호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울어 지나가다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울어 지나가다
이제와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슬러 흐르고져 나도 울어 보내도다.

조선 세조때 생육신의 한사람인 원호가 단종을
그리며 지은 충심가이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던 이 시조는 제천의 끝자락 송학면 장곡리
이름없는 농로 옆의 빗물에 새겨져 있다.

농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서강가 언덕위
에 정자가 하나 있는 데 바로 원호의 충절을 기
려 후손들이 세운 관란정이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자 원호는 벼슬을 버리고
원주에 은거하며 지냈는데, 단종이 영월로 유배

당하자, 원호는 이곳 서강가에 단을 쌓고, 아침
자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망배하였다고 한다.

서강이 흘러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청령포 앞
을 지나는데, 원호는 서강에 그릇을 띄워 음식
과 글월을 올렸다고 한다.

단종이 죽음을 당하자 원호는 영월로 가서 삼년
상을 지낸 뒤 원주에 은거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변화하는 세태에 마음이 어지러움을 느낄 때
면, 훌로 나서 이곳 관란정에 올라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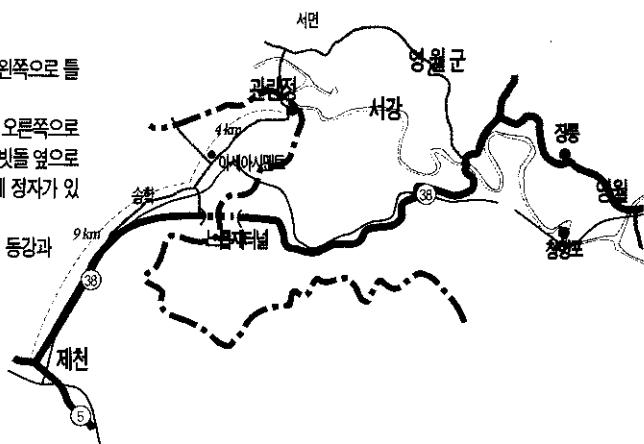
예술

■ 가는 길

- ▷ 제천에서 영월방면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바라보며 왼쪽으로 틀
면 장곡리가 나온다
- ▷ 장곡리를 지나 시멘트 포장된 농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길가에 빗물이 하나 서 있다. 빗물에 글이 새겨져 있고, 빗물 옆으로
송림이 우거진 길을 따라 10여분쯤 올리기면 산마루에 정자가 있
다. 관란은 원호의 호이다.
- ▷ 관란정 앞에 흐르는 강이 서강이다. 서강은 영월에서 동강과
만나 남한강을 이룬다.

■ 둘러볼 곳

영월로 건너가서 단종이 유배됐던 청령포와 단종
이 묵힌 장릉을 둘러보고 고씨동굴을 거쳐 영춘으로
넘어온다.



가사문학의 정철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물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랄 일이 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전줄 때 노여업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의 대표작인 〈사미인곡〉의 시작이다.

선조 18년, 동인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려나 전남 창평에谪거할 때 지은 작품으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임과 생이별한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를 빌어 표현하고 있다.

송강의 고향은 창평이고,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 빼어난 작품들을 썼던 곳은 전남 담양인

데, 정작 송강의 묘지와 사당은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어은마을 환희산에 있다.

선생의 묘소는 원래 경기도 고양군에 있었는데, 현종6년(1665)에 송시열이 지금의 묘소로 자리를 정하고 그의 후손이 이장하였다.

유물전시관에는 송강선생의 은배, 옥배, 연행일기 65일분과 친필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송강사 원편 숲속에 송강의 묘소가 있다.
교과서에 실렸던 〈훈민가〉를 읽어보자.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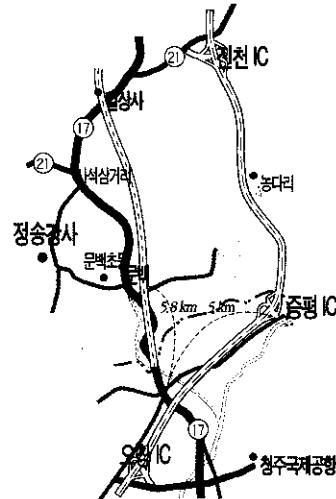
청주→진천방면→문백삼거리 좌회전→정송강사

■ 돌아볼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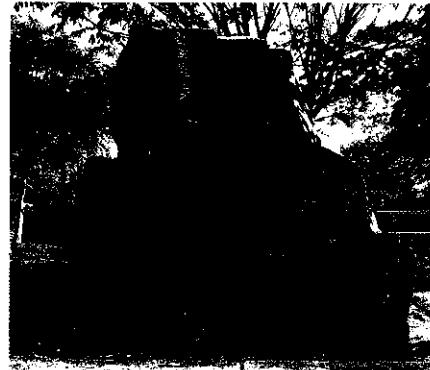
길상사,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 연곡리 보탑사, 농다리, 노은영당, 진천왜가리 번식지

■ 특산물

진천의 쌀은 전국 쌀품평회에서 손꼽히는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생거진천쌀(진천농협) 532-0672



단양군수 이황



「탁오대」에서 마음을 씻다

조선시대의 대유학자 퇴계선생이 46세때 단양군수로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칭유하며 많은 자취를 남겼다.

퇴계선생은 부인을 병으로 앞세운 뒤 관직에서 물러나려 하였으나 명종은 놓아주지 않았다. 퇴계선생이 요양할 뜻을 청하자 명종은 마침 자리가 비어 있던 단양군수로 명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부임 10개월만에 선생의 넷째 형인 이해가 충청감사로 부임하자 선생은 형제가 한 지방에서 위 아래의 관직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다며 사표를 제출하였고, 조정에서는 선생을 소백산맥 넘어 풍기군수로 임명한다.

옥순봉의 바위에 퇴계선생이 쓴 「단구동문(丹

丘洞門)」 글씨나, 기생 두향이 퇴계선생의 부음을 듣고 투신한 강선대는 충주호에 묻혀 가물 때나 물 밖에 드러난다.

퇴계선생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단성면 하방리 선암계곡 입구에서 손발을 씻었는데, 퇴계 선생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뜻에서 바위에 친필로 「탁오대(濯吾臺)」라고 새겨 넣었다.

또 퇴계선생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하방리에 「복도소(復道沼)」라는 보를 쌓고, 자주 와서 심신의 피로를 풀었는데, 한 옆의 바위에 「복도별업(復道別業)」이라고 써서 새겨 넣었다.

바위들은 모두 단양적성 입구의 수몰기념관 마당으로 옮겨져 있다.

예술

■가는 길

- ▷ 옥순봉과 구담봉은 장화나루에서 관광선을 타고 돌아볼 수 있다.(충주호 유람선 422-1188)
- ▷ 탁오대 암각자는 원래 우화교에서 선암계곡으로 약 200m쯤 올라간 곳에 있었고, 복도별업 암각자는 그곳에서 다시 500m쯤 올라간 곳에 있던 복도소 옆 길가에 있었다.
- ▷ 단양과 영주를 잇는 5번국도에서 충주방면으로 36번 국도가 갈라지는 곳이 SK주유소가 있는 북하삼거리이다. 북하삼거리에서 충주방면으로 1km 조금 더 가면 단성삼거리이고, 삼거리에서 오른쪽 면소재지 쪽으로 500여미터를 가면 단양능협 단성지소 옆에 적성으로 오르는 길이 나온다.
- ▷ 단양적성으로 가는 길에 단양이주수몰기념관이 있고, 그 미당에 탁오대 암각자, 복도별업 암각자, 우화교 신사비 등이 옮겨져 있다.



청풍명월의 시인 김득신



백이전을 1억번이나 읽다!

조선 중기의 시인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栢谷)이다. 어릴 때 천연 두를 앓아 노둔한 편이었으나,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도를 받아 서서히 문명을 떨진 인물이다. 당시 한문 사대가인 이식(李植)으로부터 “그대는 시문이 당대의 제일”이라는 평을 들음으로써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백곡은 공부할 때 선현과 문인들이 남겨 놓은 글 등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백이전은 1억번이나 읽었다 하여 유명하다. 주요 저서로는 백곡집, 종남총지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숙종 10년(1684) 그의 나이 81세로 생을 마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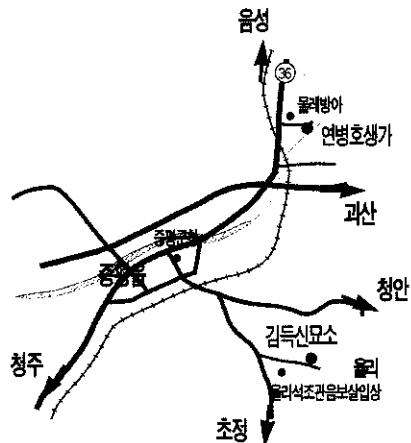
으며 증평읍 올리에 묘소가 있다. 김득신기념사업회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하여 학술발표회,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 가는 길

- ▷ 청주에서 증평쪽으로 36번 국도를 따라 달려 증평시내에 이르러 과산 청안방면으로 길을 가다보면 증천교 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 ▷ 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직진하다 보면 삼기저수지가 나온다. 저수지를 지나면 올리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마을 뒤편 낮은 언덕 위에 백곡 김득신의 묘소(향토유적 제 6호)가 있다.

■ 관광 예보

- ▷ 안근 삼기저수지 왼쪽 편에는 문화재자료제 36호로 지정된 올리 석조관음보살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방랑시인 김삿갓



인간개유칠십사

二十樹下三十客 四十門前五十飯
人間豈有七十事 不如歸家三十食

이 망할 나무 아래에서 설은 나그네가
망할 놈의 마을에서 쉰 밥을 먹노라
인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차라리 집에 돌아가 설은 밥을 먹으리

김삿갓이 황해도 지방을 떠돌다 어느 집에서
쉬어빠진 밥을 받아들고 읊은 시이다.

영춘면 의풍리의 충북도계에서 냇물을 따라
40m 정도 떨어진 언덕위에 방랑시인 김삿갓의
묘가 있다. 묘에서 강원도쪽으로 3km 쯤 떨어진
묘역 입구의 시비에 이 숫자지가 새겨져 있다.

홍경래의 난때, 선천부사 김익순은 반군에게
항복하였다가 난이 평정된 후 역적으로 몰려 처
형당하였다. 이때 며느리는 회를 피해 아들을
데리고 영월에 숨어 살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김병연이다.

내막을 모르고 자란 김병연은 영월 관아에서
열린 백일장에서 '선천부사 김익순을 규탄하라'
는 시제가 나오자 "한 번은 고사하고 만 번 죽
어 마땅하고"라고 질타하는 시를 써서 장원급제
를 하였다.

뒤에 김익순이 조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병
연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삿갓을 쓰고 전국
을 떠돌아 김삿갓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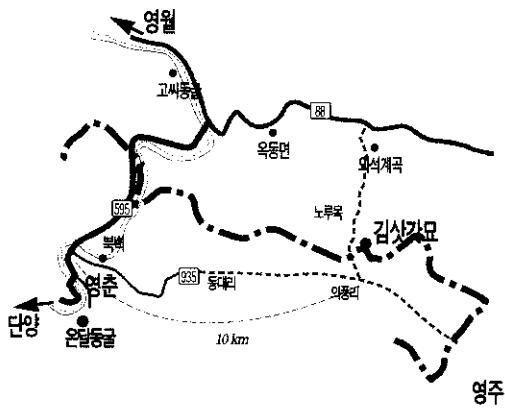
예술

가는 길

- ▷ 의풍은 충북의 최북단이고, 강원·경북·충북이 경계하는 지역
으로, 산좋고 물맑고 인심이 좋은 '삼풍'의 고장이라 한다.
- ▷ 영춘면 소재지에서 의풍으로 향하는 935번 지방도를 따라
10km 정도 가면 비포장의 삼거리가 나오고, 왼쪽길로 들어서면 곧
충북도계임을 알리는 팻말이 나오고, 팻말에서 약 50m 정도 내려
가면 된다.
- ▷ 영월쪽으로 길을 잡으면 조선민화박물관, 김삿갓계곡 등을 둘러
볼 수 있다.

■ 메모

- ▷ 김병연은 전남 화순 동복에서 일생을 마쳤는데, 차남 김익균이
시신을 모셔 영월에 안치했다.



영동 문향의 숲



경개 좋은 곳에 문인도 많고

영동군 양산면 송호관광지내에는 울창한 소나무숲이 있는데, 영동출신 시인들의 시비가 많이 있어 문향의 숲이라 부른다.

산전이 맑고 아름다운 영동은 문인을 많이 배출하였는데 김수온으로부터 근대에 들어서는 권구현, 구석봉, 이영순 등이다.

외로운 별 하나
외로운 별 하나
멀어 질 듯 활박이고 있는 천마령 높은 채를
이슬 찬 이 밤에 어찌나 넘으려노?
〈구천동 솟장사〉의 일부

구천동 솟장수의 시인 권구현은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에서 태어났다. 영동 현대문학의 근원으로 꼽히는 그는 일제하에서 민족문제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나키즘을 선택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산막리에는 아직도 그가 살던 집이 있고, 고향 집 뒤에 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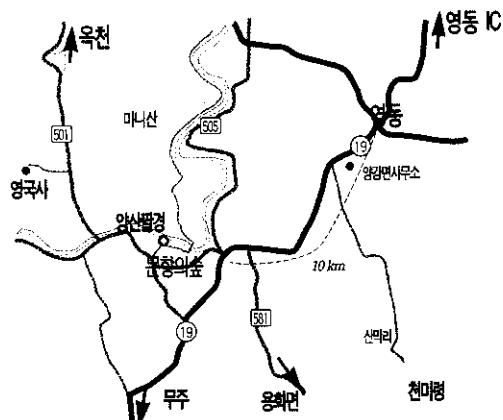
〈나비〉의 시인 이영순은 1922년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에서 태어났다. 문향의 숲내에는 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양산가비도 있다.

■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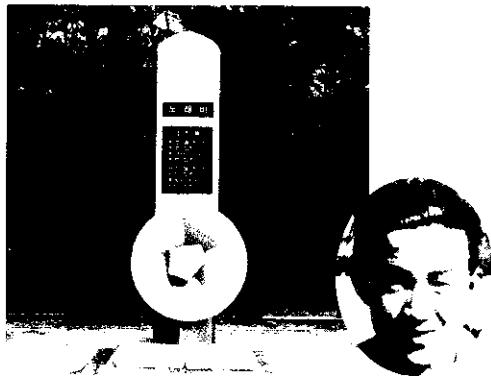
- ▷ 양산을 가려면 대전방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옥천 IC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 천태산 영국사 입구인 누교리를 지나간다.
- ▷ 경부고속도로 영동 IC에서 영동읍을 지나 19번도로를 따라 무주방면으로 나서면 양강면사무소가 있는 가동리가 나온다.
- ▷ 가동리 삼거리에서 원편으로 꺾어 천마산을 바라보며 달리면 포장도로가 끝나는 부근에 30여호의 부락이 있는데, 바로 권구현의 생기가 있는 산막리이다.

■ 관광예모

- ▷ 영동제일의 특산품은 김이고, 부근 박계리에는 산골오징어작업장이 있다.



감자꽃 권태응



자주 꽂 편 건 자주 감자

자주 꽂 편 건 자주 감자
파보나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꽂 편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동요로 불렸던 「감자꽃」의 전문이다. 이 「감자꽃」의 시인 권태응이 태어난 곳이 바로 충주시 칠금동이다.

1918년 태어난 권태응은 충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창시절에도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권태응은 항일정신도 강했는데, 일본유학중에 독서회를 조직했다가 투옥되기도 하였고, 결핵으로 출獄후에도 충주로 돌아와 시를 쓰는 한편 앙장을 열어 마을사람들에게 항일사상을 불어넣었다.

권태응 시인은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정서로 절망을 회망으로 승화시키는 시를 썼으나, 아쉽게도 1951년 동족상잔의 포연이 날리는 가운데 폐결핵으로 서른 셋 짟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시인은 금릉동 광명산 기슭에 잠들어 있고, 탄금대에는 「감자꽃」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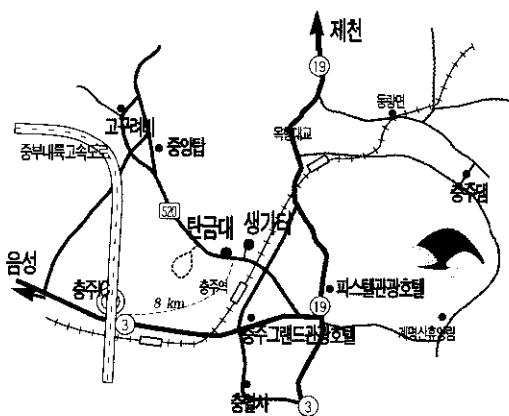
예술

■ 가는 길

- ▷ 충주시내에서 나서면 탄금대 못 미처 오른편으로 가지를 친 길 옆에 권태응 생가를 알리는 커다란 표지판이 있다.
- ▷ 골목안으로 200여미터 가면 오른편에 생가표지석이 있다.
- ▷ 탄금대 공원안에는 권태응시인의 「감자꽃」시비가 서 있다. 감자꽃 모양의 하얀 시비는 196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일고보시 절 동기인 이해곤과 아동문학가 윤석중이 중심이 되어 세운 것이다.

■ 관광메모

- ▷ 봉황자연휴양림과 계명산 자연휴양림이 있다.
- ▷ 탄금대 아래에 횟집이 많이 있다.
- ▷ 탄금대 건너 청동은 월북시인 정호승의 고향이다.



옥계폭포의 박연



대금소리가 폭포소리를 잠재우다

난계 박연은 지금도 밀양 박씨 세거지로 유명한 심천면 고당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노년에 다시 고향에 내려와 옥계폭포에서 대금을 불었고, 그곳에 묻혔으니 그곳이 박연의 고장인 것이다.

고당리에는 박연의 사당과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세워져 있으며 그 옆에는 국악기를 직접 만드는 난계국악기제작촌이 있다.

어려서부터 박연은 음악에 큰 관심과 재능을 보였는데, 그의 음악은 얼마나 신묘했던지 그가 산에 올라가 악기를 연주하면 산새들이 그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하고, 토끼와 너구리들은 한 편에서 춤을 추곤 했다고 한다.

난계는 조선 초기의 궁중음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특히 여러 악기를 조율하는 12율관과 편경을 직접 제작하여 우리 음악의 기준을 세웠다.

단종복위사건에 아들이 연투되어 죽음을 당하자 난계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때 나이가 여든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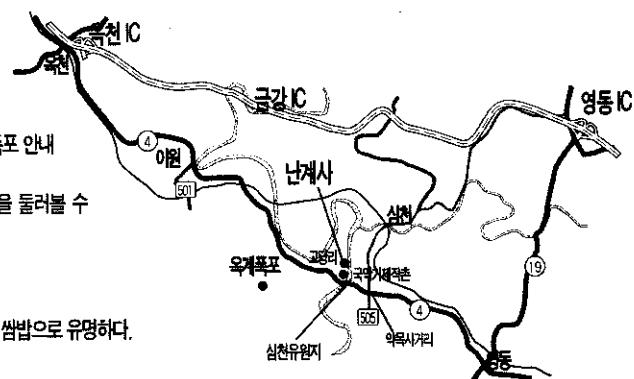
영동에서는 매년 난계를 추모하는 난계국악축제를 열어 전국국악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군립국악단인 난계국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는길

- ▷ 경부고속도로 옥천 IC를 나와 영동방면으로 길을 잡는다. 묘목단지가 유명한 이원을 지나 금강변을 따라 달리면 오른편으로 옥계폭포 안내판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심천면 고당리이다.
- ▷ 난계국악기제작촌에서는 국악기제작과정을 둘러볼 수 있으며,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맛있는 음식점

- ▷ 옥계폭포 입구의 폭포가든(742-1777)은 우렁쌈밥으로 유명하다.



진천의 조명희



러시아 조선문학의 아버지

진천에서 34번 국도를 따라 백곡저수지를 향해 나서면 왼편으로 보이는 벽암리 솟말마을은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긴 포석 조명희와 벽암 조중흡의 고향이다.

1894년 동학혁명의 불길이 치솟던 해에 벽암리에서 태어난 포석 조명희는 일찍부터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작품활동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신극사상 두 번째 창작희곡집인 「김영일의 사」, 날카롭게 일제하의 현실을 비판한 창작시집 「봄잔디밭위에」, 소설 「낙동강」 등 여러 문학장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조명희는 일제의 마수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땅 연해주로 가서 활동하며 '러시아 조선문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으나 소련의 한인 강재이 주 과정에서 불운하게 숨을 거두었다.

같은 벽암리에서 태어난 조중흡은 바로 조명희의 조카이다.

벽암은 삼촌 포석의 지도를 받는 한편 이기형과 정지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소설과 시의 세계에 들어섰는데, 해방후 홍명희 등과 손잡고 활동하다 월북하였다.

벽암리에 있던 포석과 벽암의 생가 자리논으로 변해있고, 그 한켠에 빗들이 세워져 있다.

예술

■ 가는 길

▷ 진천읍에 다다라 아월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200m 지점에 진천 성모병원이 나오는데 병원을 지나 오른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서 조금만 가면 삼거리에 커다란 돌로 만든 표지석이 있다.

■ 관광예보

▷ 충북지역 일간지인 동양일보사에서 「조명희 전집」을 발행하였으며, 「조명희 문학제」를 열어왔다.
▷ 백곡저수지 뒤편에 안골관광농원이 있다.



임꺽정의 홍명희



미완의 대작, 소설 「임꺽정」

1928년 11월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임꺽정」은 조선 중기 천민계층의 한 도둑을 내세워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양식을 세밀하고도 폭넓게 형상화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우리 문학계의 가장 커다란 성과물로 꼽힌다.

「임꺽정」은 특히 작가 홍명희가 조선의 말, 조선의 어투, 조선의 표현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그야말로 우리 말의 보고로 꼽히는 작품이다.

홍명희는 1888년 7월 현재의 괴산읍 동부리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한 풍산홍씨의 명문세족으로 부친 홍범식은 금산군수로 재직중에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40세의 나이로 자결한 애국열사였다.

일본에 유학하며 이광수, 최남선 등과 어울리며 문학을 공부하던중 부친의 자결소식을 들은 홍명희는 그대로 귀국하여 중국에서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에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1919년 3월에는 괴산에서 충북 최초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투옥되었다. 이때 집안이 어려워지자 홍명희의 가족은 선산이 있는 제월리로 이사를 한다. 지금도 홍명희의 옛집이 남아 있다.

홍명희 생가는 괴산군에서 복원사업이 끝나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 가는 길

- ▷ 홍법식고택(홍명희생가는)은 괴산읍 동부리에 있다. 괴산대교를 넘어 군청 방면으로 기다 30m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 대덕사거리에서 김물방면으로 제월대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원편으로 마을이 보이는데, 마을길로 들어서면 홍명희의 옛집터가 있다.

■ 관광예모

- ▷ 홍명희생가 주변에 괴산민가미술 및 산막이 옛길이 있다.



향수의 정지용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넓은 벌 둑쪽 끝으로 / 옛이야기 자출대는 실
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얼룩배기 황소가 / 해
설피 금빛 계으른 물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
마 꿈엔들 잊힐리야.」

옥천은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정지용 시인의 태어나서 자란 옥천을 하계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지용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휘문고보에 진학하면서부터 고향을 떠나 살게되었지만 안온하고 자족적인 공간으로서의 고향에 대한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시가 「향수」이다.

정지용 생가에는 초기집 한 채와 협간 한 채가

있는데, 생가주변은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생가 옆에는 정지용문학관이 조성되어 있어 찾는 이에게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 문학관 앞에는 정지용의 동상이 있고 시인의 집 앞 실개천에 있던 돌다리가 옮겨져 있다. 또한, 시인의 시문학을 테마로하여 지용시비조형물, 지용시 문학상 시비등으로 꾸민 멋진 신세계 시문학 공원이 장계관광지에 있다.

생가 근처에 있는 죽향초등학교가 지용이 다닌던 옥천공립보통학교인데, 그때의 건물(교실 3칸)이 아직 남아 있다.

옥천군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지용제」를 열어 시인을 기린다.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옥천 IC → 문정삼거리 → 구읍삼거리 → 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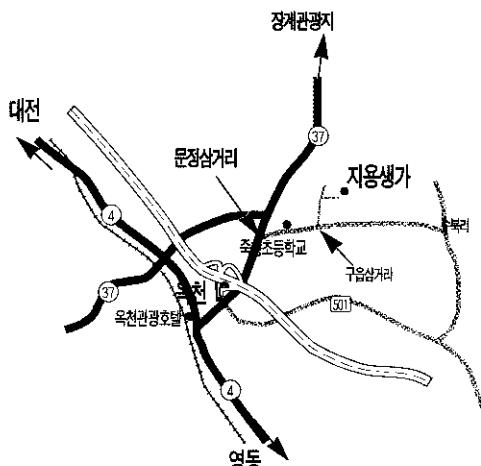
■숙박

장령산휴양림 733-9615 옥천관광호텔 731-2435
춘추민속관 733-4007 명가모텔 733-7744

■맛있는 음식점

금강 IC옆 조령리에 도리뱅뱅이 마을이 있다.
구읍삼거리에 음식점들이 많다.
싸리문열고들어서니 731-3141 이리랑 043-731-4430
미당넓은집 733-6350

■특산물- 포도(옥천 농협 730-6007)



연풍현감 김홍도



연풍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 오시오

괴산군 연풍면은 조선시대에는 현청이 있었던 이화령 북쪽 지역의 중심지로, 지금도 예전의 풍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면소재지에 있는 연풍초등학교가 옛 연풍현 관아 자리로, 초등학교 마당가에 동헌으로 쓰였던 풍락헌이 있고, 교문가에 250년쯤 되었다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남아 있다.

이 풍락헌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1791년부터 1795년까지 연풍현감으로 재직하며 고을을 다스리면서 주변의 뛰어난 풍광들을 화폭에 담았던 곳이다.

정조대왕은 단원의 그림을 특히 좋아했는데, 정조 15년에 정조의 어진(초상화)를 그린 공으

로 단원을 연풍현감에 임명하였다.

이때 정조대왕은 단원에게 산수가 수려한 영춘, 단양, 청풍, 연풍의 4개군의 산수를 그려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까닭인지 단원은 정사를 들보기보다 주변을 돌며 풍광을 즐기고 그림을 그리는데 더 열중하였고, 뒤에 또 그런 이유로 현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단원이 그린 사인일도가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단원절세보첩」에 수록되어 있다. 단원은 또 옥순봉을 둘러보고 「옥순봉도」를 남겼다.

단원 김홍도의 화풍은 연풍현감 재직시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졌는데, 이후의 작품은 매우 개성적이고 자유로워졌다는 평을 얻는다.

■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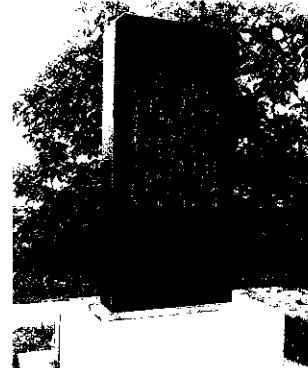
▷ 괴산에서 동쪽으로 34번 국도를 따라 20km가 넘게 달리면 연풍이다. 연풍에 들어서서 오른 편으로 연일식당이 보이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마을길을 따라가면 연풍성지와 연풍초등학교가 보인다. 연풍초등학교내에 연풍동헌이 있다.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C → 연풍면

■ 관광예모

▷ 김홍도의 작품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 연풍에서 3번국도를 따라 충주방면으로 향하면 수옥폭포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과 조령삼관문을 둘러볼수 있다.



신필(神筆) 김생



한국 서예사의 대부

신라시대의 명필로 한국 서예사의 대부로 꼽히는 김생의 자취가 충주의 남한강변에 있다.

김생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지만 글씨에 전념하여 왕희지의 필법을 개발하였고 해서, 행서, 초서에 능했다.

중국에서는 왕희지와 비교되었으나, 원의 조맹부는 김생의 글이 당나라의 명각보다 뛰어나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김생의 글씨를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에서 김생의 글씨를 역사 속의 서예가 4인(신품사현) 가운데 으뜸으로 꼽았다.

중국의 왕희지가 명필이라 하나 그 글씨가 남아 전하지 않아 평하기 어려운데, 김생의 글씨

는 고려초에 화상 단목에 의해 비의 형태로 짐자되어 남아 있다. 짐자비는 글씨를 여기 저기서 모아둔 것으로 글 내용은 없지만 글씨체를 두루 볼 수 있는 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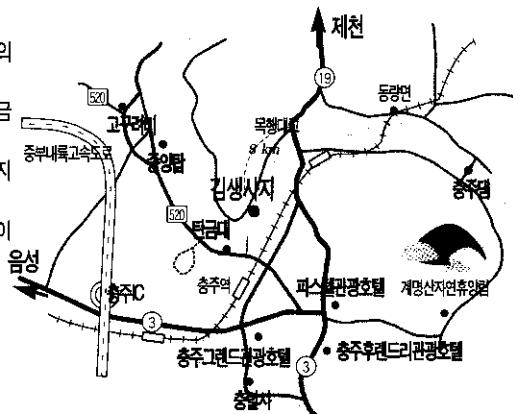
김생의 글씨는 여성스러운 왕희지에 비해 단아하면서도 견고함이 느껴지는 남성스러움이 있다.

김생은 뒤에 북진암에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는데, 북진암터는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남한강변으로 지금은 김생 선생의 짐자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술

■가는 길

- ▷ 탄금대를 끼고 흐르는 남한강의 북쪽에 있는 금가면 동남쪽의 유송리에 김생이 출가하여 수행하였다는 김생사 절터가 있다.
- ▷ 충주에서 목행대교를 건너 원편으로 넘어 탄금대 방면으로 조금 가면 강변에 금가면 유송리 반송부리 정거장이 나온다.
- ▷ 남한강 건너편에 탄금대가 보이는 남한강변 언저리가 김생사지이다.
- ▷ 목행대교 원편의 옛대교는 충주시내로 들어오는 일방통행로이다.



조각가 김복진



옥중에서도 밥을 이겨 조각을 하다

근대 조각의 선구자로 근대 문예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정관 김복진은 청원군 남이면 팔봉산 자락에서 태어났다.

김복진은 배재중학 3학년때 미술부에 가입하여 미술의 세계로 들어섰는데, 배재고보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조각을 배우면서 동생 김기진과 함께 토월회를 창립하여 활동하였다.

귀국후 활발한 프롤레타리아트 문예운동에 앞장섰던 김복진은 노동운동에 종사하는 조각 창작과 여러 미술 형식의 작품 창작으로 인하여 수 차례 걸쳐 일본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는데, 감옥에서도 밥을 이겨 조각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표작으로는 〈여인상〉, 〈소년공〉, 〈청년〉, 〈노

동자상〉, 〈노인〉, 〈백화〉, 〈송설당 초상〉 등이 있는데, 많은 작품들이 김인하고 굳센 노동자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화계 인물의 조각상을 창작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벽초 흥명회〉이다.

김복진은 감옥에서 법주사의 미륵대불을 구상하여 팔생의 작품으로 대불을 만들었지만 머리 부분과 전체의 비례를 만들고 자금난으로 더 이상 작업하지 못하였다. 뒤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대불은 원형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나마 지금은 금동미륵으로 바뀌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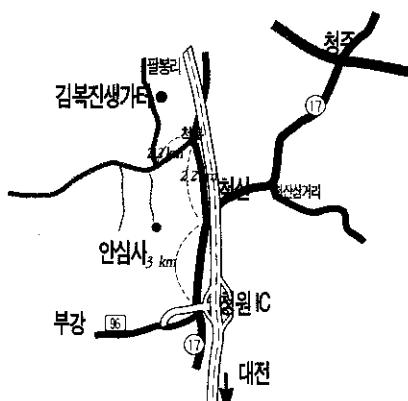
■ 가는 길

▷ 청주에서 대전쪽으로 17번국도를 따라 달려 아트막한 고개를 넘으면 척산이다. 척산을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마자 나오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조금 더 가면 척북 삼거리가 나온다.

▷ 척북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2km 정도 달리면 오른편에 팔봉리 입구표지판이 있고,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면 길 오른편에 팔봉산이 보인다. 그 아랫마을이 팔봉리이다.

■ 예모

▷ 인근 사동리에는 신라 혜공왕 때 창건한 안심사가 있다. 고즈넉한 사골 산사 같은 안심사는 비구니절로 매년 초파일에는 국보로 지정된 쾌불을 내걸고 봉축제를 연다.



운보의 집



독창적인 미술세계, 한국의 피카소

한국 현대화단의 거장인 운보 김기창은 평생의 반려였던 우향을 떠나보낸뒤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에 새로운 터를 마련하였다. 그곳은 운보의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인연이 있었다.

우향을 잃은 슬픔을 달래며 정원을 가꾸고, 우향기념관을 만들고, 작품 전시실도 만들고, 도예 공방도 만들고, 그렇게 20여년이 지나고 나니 운보의 집은 청주의 명소가 되었다.

운보는 어려서 열병을 앓아 청력을 잃었는데, 어머님은 어려운 살림에도 각별한 정성을 쏟아 운보의 재능을 만개시키는 뿌리가 되었다.

운보는 이미 20대에 당시의 국전인 선전의 심사위원까지 하기도 하였는데, 선전을 통해 만나

게 된 우향은 지방 갑부의 딸로 촉망받는 재원이었으나 집안의 반대를 뿐리치고 운보의 반려가 되었다. 우향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끈기 있게 노력하여 입모양으로 가르쳐 운보의 입을 열어주었다.

운보는 끝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여 예수의 일생을 한국인의 모습으로 담기도 하였으며, 독창적인 바보산수화를 그려내는 등 끝없는 창작의욕을 불태웠다.

운보는 농아들을 위해서도 많은 애정을 쏟았다. 이제 더 이상 빨간 양말을 고집하던 운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운보의 집에서는 그의 체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예술

■ 가는 길

▷ 중부고속도로 증평 IC를 나와 우회전하면 다리를 건너 심거리가 나온다. 내수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달리면 청주와 충주를 잇는 36번 국도와 만나고 청주쪽으로 우회전해서 고가를 넘으면 만남의 광장이 있는 내수사거리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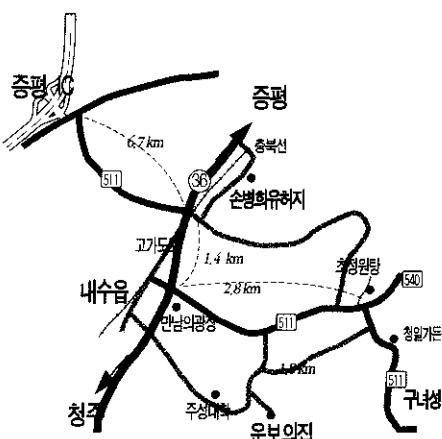
▷ 초정 악수방향으로 4km 남짓 달리면 조그만 다리를 건너 주성대학과 운보의집 안내판이 보인다. 안내판을 따라 우회전해서 2km 남짓 달리면 운보의집과 주성대학이 길리는 삼거리.

■ 맛있는 집

초정의 청일가든(213-9345) 오리요리가 유명하고, 내수읍내 장호식당(214-0255)의 뚝배기 떼지갈비찌개와 청국장, 메밀국수가 별미이다.

■ 위치

청원군 내수읍 혼동리 428-2 (213-0570)



탄금대의 우륵



가야금 소리 강을 따라 울려 퍼지고

가야사람이었던 우륵이 신라로 귀화한 이후 주로 활동했던 곳이 충주지역이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이 낭성에 이르러서 우륵의 명성을 듣고, 연주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후 진흥왕은 우륵을 국원(國原)에 살게 하였는데, 바로 지금의 충주이다. 우륵은 충주에 살면서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대문산에 자주 올라 가야금을 탔는데, 그후로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을 탄금대라 부르게 되었다.

우륵이 탄금대에서 타는 가야금소리는 강을 건너 인근지역에 널리 울렸는데, 그 소리에 이끌려 모여든 사람들이 부근에 부락을 이루었고 그

곳이 지금의 칠금동, 금능리, 청금리라는 것이다.

우륵은 탄금대에서 진흥왕이 보낸 범지, 계고, 만덕 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 가야금의 소리를 널리 전하였다.

충주에는 우륵당이 있고, 시립가야금연주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학교를 열어 가야금, 사물놀이, 장고, 무용 등을 무료로 강습하고 있다.

또 매년 우륵문화제를 열어 우륵을 기리고 가야금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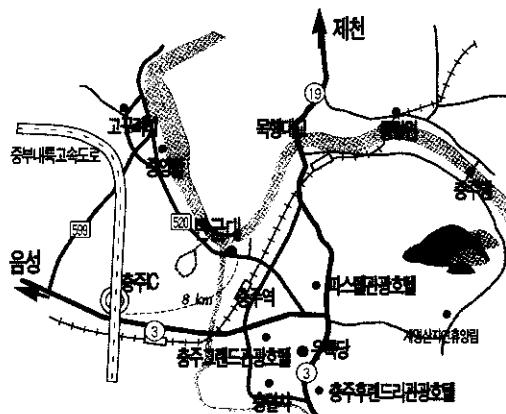
한편, 제천의 의림지를 우륵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가는 길

- ▷ 탄금대는 남한강변에 있다. 충주에 가면 웬만한 도로에는 탄금대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 ▷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은 탄금대에서 배수전을 쳤다가 징렬하게 전사하였다.
- ▷ 우륵당은 호암지 호수가에 있다.

■ 메모

- ▷ 우륵당 옆에는 택견전수관이 있고, 뒤편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자리잡고 있다.
- ▷ 탄금대에는 탄금정, 야외음악당, 달천고촌위령비, 신립장군 손절비, 경태옹시인의 김자꽃 노래비 등이 있다.



역사의 숨결을 찾아



청원의 선사유적	130
단양의 선사유적	131
충주고구려비	132
적성비	133
관산성과 구진벼루	134
삼년산성	135
김유신 탄생지	136
송상현 충렬사	137
조령삼관문	138
의병장 조헌	139
청주성 탈환	140
진주대첩 김시민	141
임경업의 자취	142
동학의 함성	143
자양영당과 유인석	144
의병장 이강년	145
번개대장 한봉수	146
헤이그정사 이상설	147
독립선언대표 손병희	148
민족의 스승 신채호	149
애국지사 연병호	150
무극전적국민관광지	151
육영수 생가	152

역사



청원의 선사유적

소로리 범씨와 흥수아이

소로리 범씨

청원 소로리 구석기 유적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일대로 충북대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찍개·긁개·흙날·몸돌·격자 등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토탄층에서는 범씨가 찾아졌다.

소로리에서 찾아진 범씨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중국 강서성 仙人洞 동굴 10,500bp, 중국 호남성 玉蟾岩 동굴유적 11,000bp)와 비교하여 보아도 가장 오래 된 범씨인 것으로 밝혀져, 벼의 기원·진화·전파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흥수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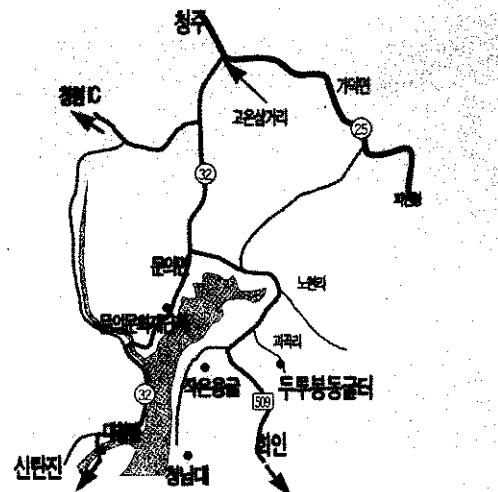
청원 두루봉동굴유적은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에 있는 석회암 동굴유적으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동굴유적으로 지금은 멸종된 많은 동물화석과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흥수굴에서는 약 4만년 전의 사람뼈가 2개체분이 찾아졌는데 그 중 1호는 완전한 개체로 5~6세 가량의 어린아이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북대학교 박물관에는 흥수아이를 비롯하여 쌍코뿔이·동굴곰이 완전하게 복원되어 있으며, 여러 유물,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가는 길

- ▷ 옥산면 소로리 범씨 발굴 현장은 보존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공사를 맡은 토지공사는 계획대로 개발을 계속할 태세이다.
- ▷ 두루봉 동굴은 노천 석회석 광산 현장에 있었으나 채굴로 인하여 모두 해손되어 인터넷이다.
- ▷ 문의에서 대청호를 따라 원쪽으로 둘연 노현리 다음에 과곡리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버스정류장을 지나 원편 마을이 보이는 곳으로 들어서서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닌 흔적을 따라 가면 두루봉동굴이 있던 석회석 채광 현장이나온다.
- ▷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충북대학교에 있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단양의 선사유적



선사 유적의 보고, 단양

제천 점밀동굴은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동굴유적이며, 이를 기점으로 남한강 유역, 특히 석회암 지대인 제천, 단양지역에서 많은 동굴유적들이 발굴되었다.

도담리 금굴유물은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동굴유물로 동굴 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70만년 전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상시바위 그늘, 구낭굴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

충주댐 건설로 남한강 수몰지역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단양 애곡리의 남한강변에서 수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었다. 바로 수양개유적이다.

수양개유적은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

대, 청동기시대까지 걸쳐 있는데, 특히 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석기 제작 수법인 간접기와 놀려떼기로 만들어진 석기들이 다양으로 나와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또 제천 창내, 명오리 큰길가 등의 한데유적도 함께 발굴되어 충주호 주변이 선사유적의 보고로 떠올랐다.

애곡리 현장에는 단양 인근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전시할 수양개유물전시관이 있고, 발굴을 주도한 충북대 박물관에서도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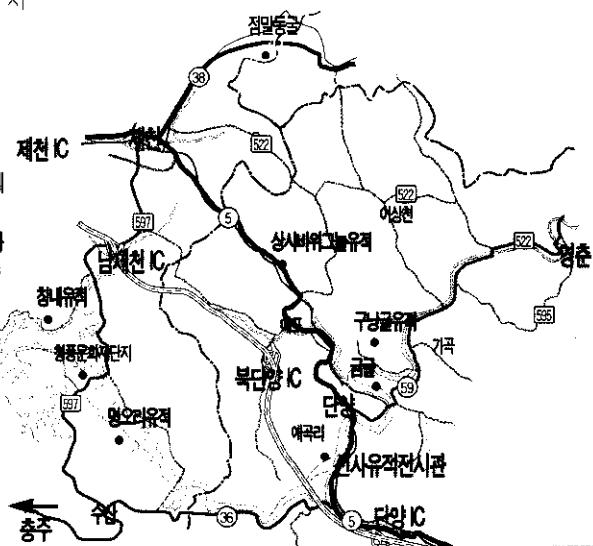
■ 가는 길

▷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은 신동문 시인이 은거하던 애곡리에 있다.

▷ 금굴 유적은 남한강변에 있는데 충주호에 물이 많으면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 도담삼봉 유람선을 타면 배위에서 볼 수 있다.

▷ 구낭굴 유적지는 단양에서 고수대교를 건너 59번 국도를 타고 가곡쪽으로 가다 덕천대교를 건너면 나오는 여천리의 산중턱에 있다. 철문으로 잠가놓아서 군정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420-3544)

▷ 상시바위 그늘 유적은 매포읍 영천리 촉백나무 군락지 옆의 주유소로 들어가면 안내문이 있다.



충주고구려비



아, 고구려!

고구려가 응성했던 시절, 그 영토가 서로는 요동, 북으로는 북부여, 동으로는 연해주, 그리고 남으로는 충청도까지 이르렀다.

남한강가에 자리잡은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마을에 바로 그 표시가 남아있다. 바로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이다.

1979년 충주 지역의 문화재 등호인 모임에 의해 발견된 이 비석은 오래도록 비바람에 방치되고, 사람들의 손을 타서 글씨를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확인되는 글자를 통해서 이 비가 고구려비임을 알게 되었다.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와 신라가 사이좋게 지내던 때의 일과 두 나라의 사이가 나빠져서 백제

와 신리가 힘을 합해 고구려에 대항한 내용이 있다. 고구려와 신리가 백두대간을 경계로 하고 고구려가 형님, 신리가 아우가 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비의 내용으로 보아 고구려가 가장 강성 하던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펴서 이곳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서 세운 기념비로 추정된다.

중원고구려비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로 민주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깊은 모습이다. 강성했던 고구려의 힘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비석이다.

■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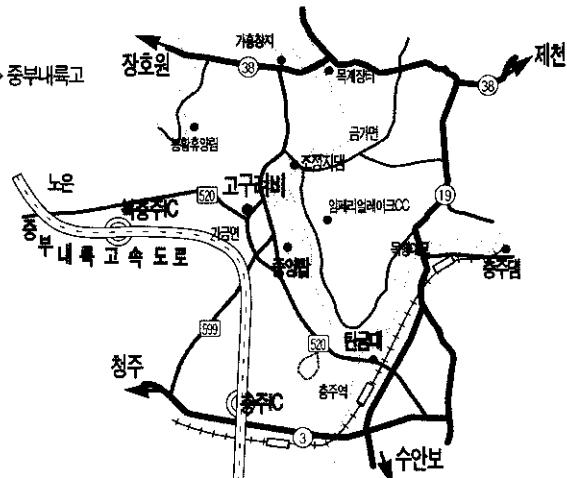
▷ 경부·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여주JCT →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 → 가금면 입석리
▷ 청주→ 음성→ 주덕→ 가금면 (599번 군도)

■ 숙박

봉황지연휴양림 850-7315
보훈휴양림 854-2121

■ 맛있는 음식점

중앙밥식당(립평리) 855-3756
가금복지식당(립평리) 854-3851
유명기든(용전리) 854-2831-2
기홍농장기든(기홍리) 854-2810



적성비



중원을 향한 꿈

신라가 국가의 틀을 갖추고 소백산맥을 넘어 한반도의 중원지역에 등장한 것은 진흥왕 때가 되어서이다.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맞서기 위해 백제와 공수동맹을 맺고 죽령을 사수하던 신라는 진흥왕 때에 이르러 중원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 첫번째 표시가 단성면의 남한강가에 있는 적성산성과 적성비(국보 제 198호)이다.

적성비가 발견된 것은 1978년이다. 반쯤 깨졌지만, 나머지는 땅 속에 묻혀 있어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있는 덕분에 이 돌이 신라시대의 비석이고, 그곳이 적성산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적성비의 비문은 신라가 적성지역을 점령할 때

많은 공을 세운 적성 사람 아이차의 노고를 기리고 충성을 드려하는 내용으로, 당시 북방개척에 앞장섰던 열 명의 장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장군도 있다.

신라는 이렇게 영토 확장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점령지 백성들에 대한 선무활동을 종시하여 점령지를 확실하게 다져나갔던 것이다.

적성산성은 죽령을 넘어 남한강가로 진출한 신라가 강을 사이에 두고 강 건너 고구려군에 대응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일부의 성벽만 남아있었는데 최근 북동쪽 남한강변을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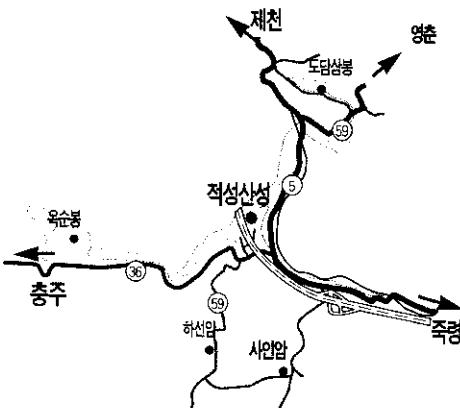
역사

■ 가는 길

- ▷ 단양에서 구단양으로 가는 길에 중앙고속도로를 지나기 전 오른 편 단양수몰이주기념관쪽으로 오른다.
- ▷ 단양수몰이주기념관은 물에 잠기기 전 구단양의 풍광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다.
- ▷ 옆에는 우화교 신사비, 복도별업 암각자, 탁오대 암각자가 이전 되어 있다.

■ 교통

- ▷ 대중교통은 동서울에서 1일 12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단양행 버스를 이용한다.
단양-단성간 1일 13회 시내버스 운행(소요시간 20분)



관산성과 구진벼루



신라와 백제, 명운을 가르다

옥천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군서면으로 접어들면 왼편 삼성산자락에 관산성이 있고, 오른편 서화천을 따라 구진벼루라는 벼랑이 있다. 이곳이 바로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가른 관산성 전투의 현장이다.

서기 554년 7월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의 공수동맹을 깨고 한강유역을 기습하였다. 분노한 백제의 성왕은 대가야의 협력을 받아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관산성은 삼년산성의 구원병이 도착하여 합락위기를 모면했는데, 아울러 순찰중이던 성왕이 신라의 매복공격을 받아 체포되었다. 당시 신라의 장수는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장군이었는데, 성왕은 이곳 구진벼

루에서 좌평 4명과 함께 참수를 당하였고, 전세는 급속히 기울어 백제연합군은 크게 패하였다. 이로써 백제의 세력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실히 장악하여 삼국통일의 터전을 닦게 되었다.

당시의 전황은 주위의 지명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진을 쳤던 진터벌, 군량을 조달한 곳이라는 군전리, 진영이 있었다는 군진(軍陣), 군사들이 말먹인 들판이라는 마릿들, 부상한 말을 처치하여 불었다는 말무덤고개 등이 그것이다.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와 군서면 오동리 사이에 있는 숯고개(炭峴)는 김유신의 신라군이 넘었던 고개라고 전한다.

■ 가는 길

옥천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금산방면으로 나서자마자 오른편에 월전리로 건너는 다리가 있다.

■ 숙박

금천관광농원 732-4580 장령산휴양림 733-9615

■ 맛있는 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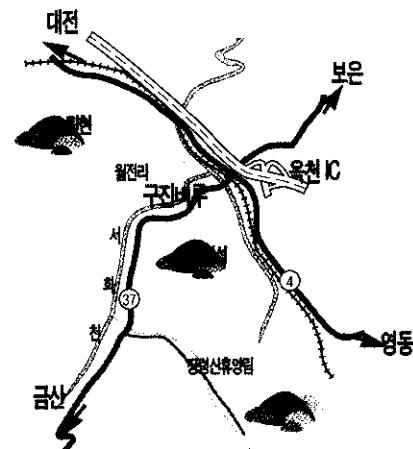
조령리 도리뱅뱅이 마을 (금강 IC옆)

구읍할매목집 732-1853

금강울갱이 731-4880

■ 특산물

포도 옥천농협 730-6007



삼년산성



중원을 향한 신라의 전초기지

보은읍 어암리 오정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석축 산성으로 둘레가 1,680m에 이른다.

신라가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고구려 백제와 충들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인 자비왕 13년 서기 470년, 상주 지역을 점령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보은으로 나온 신라는 튼튼한 성을 쌓았다.

삼년이 걸렸다는 삼년산성의 축성으로 소백산맥 넘어 교두보를 확보한 신라는 옥천, 영동지역까지 세력권에 넣었고,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되었다.

진흥왕 15년 백제의 성왕이 옥천의 관산성으로 쳐들어왔을 때도 이 삼년산성의 군사들이 출병하여 응원함으로써 백제군을 쿠별시킬 수 있었

다. 삼년산성은 삼국통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뒤에 김현창은 난을 일으키며 이곳을 거점으로 이용하였고, 고려 태조 왕건은 직접 이곳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다.

삼년산성은 포곡형으로, 납작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자 모양으로 한 켜는 가로쌓기, 한 켜는 세로쌓기로 축조한 성으로 이는 신라의 대표적인 축성방식이어서 성을 답사하는 학자들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산의 능선을 따라 문지 4개소, 웅성 7개소, 우물터 5개소와 교란된 수구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역사

■ 가는 길

▷ 청원·상주고속도로 보은IC → 금굴교차로 직진 → 보은군청·어암리 방향 → 보은정보고 방향 → 삼년산성

■ 숙박

정이풀그랜드모텔	543-9983
밀타자연휴양림	543-6282~4
이송파크	542-7778

■ 둘러볼 곳

동학 전적재복실, 장내리, 서원계곡, 선병국가목, 법주사



김유신 탄생지



삼국통일, 꿈을 이루다

진천은 김유신 장군이 태어나서 자란 고장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17년(595년) 만노군(지금의 진천)태수 김서현공이 화성과 토성의 두 별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꿈을 꾸고, 부인 만명부인은 금갑옷을 입은 동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뒤에 임신하여 20개월만에 김유신을 낳았다고 한다.

김유신의 집안은 가야왕족 출신으로 할아버지 김무혁은 구진벼루에서 백제의 성왕을 벤 장수이고, 아버지 김서현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장군이다.

태령산 정상에는 산성형태의 석축안에 봉분형

태의 태실이 있는데, 이 태실은 곡목(曲玉) 형태로 축조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탄생지에서 태령산으로 올라가보면 당시 태수 관저의 우물이었다는 연보정이 있다.

태령산 자리에는 김유신이 말을 달리며 훈련하였다는 치마대가 있고, 이월면 사곡리에는 김유신이 무예를 닦다가 신인을 만났다는 장수굴이 있다.

진천읍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길상사는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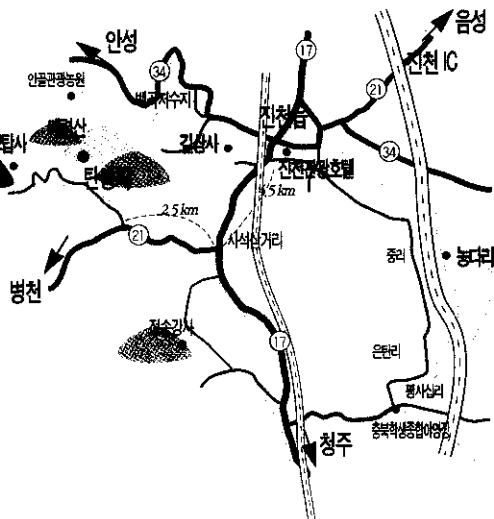
- ▷ 중부고속도로 진천 IC → 진천 → 청주방면 → 사석삼거리
리우회전 → 탄생지
- ▷ 중부고속도로 오창 IC → 오창 → 문백 → 사석삼거리
좌회전 → 탄생지
- ▷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 애우내 → 진천방면 → 연곡리
입구

■ 숙박

안골관광농원 532-0405 삼총관광농원 536-3745
진천관광호텔 533-0010

■ 맛있는 음식점

연곡기든 533-6423 풍경소리 533-8245
두부촌 533-9946



송상현 충렬사



싸워서 죽는 것은 쉬워도 ...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동래성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순사한 동래부사 송상현은 청주 강서 사람으로, 그 신위를 모신 사당과 기념관이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에 있다.

1592년 4월 14일 오전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곧 동래성으로 달려들어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달라”(戰則戰矣 不戰則假我道)라고 요구하였다.

송상현의 답은 단호했다. “싸워서 죽는 것은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戰死易假道難)이라고 답하였다.

다음날 적의 대공세가 시작되었고, 송상현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독려하며 결사항전하였으나,

워낙 막강한 왜군의 공격에 동래성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송상현은 조복으로 갈아입고 북향사배한 뒤에 호상에 걸터 앉아 움직이지 않은 채 왜적의 칼을 받았는데, 그의 의연한 죽음 앞에 왜장들도 감복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모습을 그린 「동래부사순절도」(보물 393호)는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광해군 2년에 묘소를 청주로 이장하고 사당을 창건하였고, 뒤에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충렬사 뒷산에는 송상현의 묘소와 현종 원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고 사당 입구에는 선조 28년에 건립한 충신문이 있다.

역사

■ 가는 길

- ▷ 경부고속도로 청주IC → 청주방면 3분, U턴하여 길 오른편으로 펫말이 있다.
- ▷ 청주고속터미널 → 조치원방향 → 도로 우측편(기로수주유소 이르기 전) → 강촌마을 어귀 놀이터 중앙에 있다.
(택시로 약 10분, 택시요금 약 2,500원)
- ▷ 신도비는 길 옆에 있고 묘소는 강촌의 목방산 중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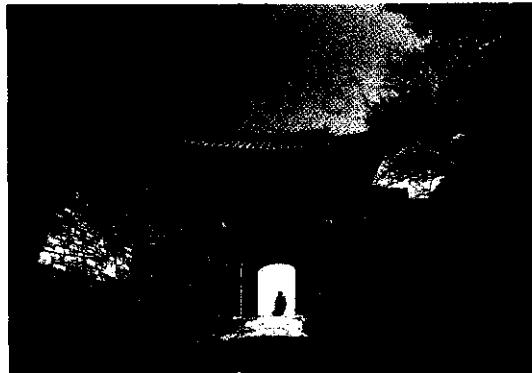
■ 맛있는 음식점

강촌기든

231-0470



조령삼관문



장군! 조령관을 막아야 합니다

문경새재는 옛날 영동의 추풍령, 단양의 죽령과 더불어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3개의 고개로 꼽는다.

조선시대때 영남지역에서 과거길에 나선 선비들은 조령을 넘었는데, 추풍령과 죽령을 넘으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동쪽 계립령을 이용하였고, 고려초부터 조령을 교통로로 이용하여 점차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왜장 고니시 유끼나가 경주에서 북상해오는 카토오 키요마사의 군사와 문경에서 합류하여 이곳 조령을 넘었다. 조정에서 신립장군을 내보냈을 때

휘하에서는 조령을 막을 것을 건의했지만 신립장군은 기병전을 중시하여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었다.

1597년 충주인 신충원이 선조대왕께 건의하여 지금의 제 2관문에 성을 쌓아 관문이 처음 생겼고, 숙종 34년(1708)에 이르러서야 3중의 관문을 완성하였다.

문경에서 조령으로 오르는 길에 처음 나오는 제1관문을 주흘관, 제2관문을 조동문 혹은 조곡관, 그리고 제3관문을 조령관이라 한다.

조령관을 넘어 문경쪽으로 내려서도 둘러볼 것이 많이 있어 가벼운 산행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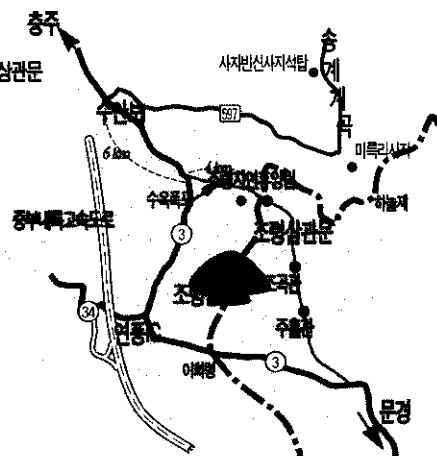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연풍면 → 수목정관광지 → 조령삼관문

■ 숙박

호텔에스토브기나안	833-8814	스토리모텔	832-0908
조령산자연휴양림	833-7994	세계파크여관	833-8901
행운여인숙	833-5887	이화장여관	833-3237
수목파크여관	833-4900	온천모텔	833-8803

■ 맛있는 음식점

신성봉가든	833-6868	심산유곡	833-5827
조령산휴양림식당	833-5609		



의병장 조헌



끌까지 의로움만 생각하라

중봉 선생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율곡이 죽자 보은현감직을 버리고 옥천으로 건너와 ‘율곡을 잊는다’는 후율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

처음 후율당을 지은 곳은 안내면 용촌 밤티마을인데, 고종원년(1864)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후율당에서 의병을 창의한 조현은 먼저 청주성으로 달려가 영규대사, 의병장 박춘무와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고, 곧바로 군진을 정비하여 금산으로 내려가서 절대불리한 군세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싸워 700여명의 의병과 함께 장렬히 산화하였다.

금산싸움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조현은 동요하는 사람들에게 “끌까지 의로움만

생각하라”며 독전하였다 한다.

청주시내 중앙공원에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충남 금산에는 칠백의총이 있다.

안남면 도동리에는 조현 의병장의 묘소가 있고, 이원면 구룡리에는 조현 의병장을 따라 순절한 괴자방을 기리는 충신문이 서 있다.

군북면 이백리에도 중봉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이지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중봉 조현 선생이 친필로 쓴 「각신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충의 지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 가는 길

후율당 옥천 IC→보은방면→안내면 시거리→도이리
밤티마을 옥천 IC→보은방면→안내면사무소→용촌리
적자방충신문 옥천읍→이원면→이원교 차내 경부고속철
도 아래로 좌회전
이지당 옥천읍→환경시설사업소 방향으로 우회전→
이지당마을

■ 숙박

금천관광농원	732-4580
장령산자연휴양림	733-9615
춘추민속관	733-4007
리베라모텔	731-8712

역사



청주성 탈환



조현, 영규대사, 박춘무 의병장

1592년 4월 14일 부산항으로 쳐들어온 왜군은 보름도 되지 않아 충청도를 장악하였고, 청주읍성에는 구로다의 왜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갑자기 기습을 당한 조선군이 진용을 추스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드디어, 1592년 8월 1일, 옥천에서 거병한 의병장 조현과 승장 영규대사가 청주로 달려오고, 청주의 관군과 의병들이 힘을 합쳐 청주성 탈환에 나섰다. 의병군은 서문을, 청주출신 의병장 박춘무의 의병군은 남문을, 그리고 관군은 북문을 맡아 공격을 시작하였다.

3,600여명의 승병, 의병, 관군 연합군이 집중공격을 펴보자 왜군은 그날 밤 야음을 틀타 북문

을 빠져 나와 죽산방면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청주읍성의 탈환은 조선군이 육상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로 일본군의 군량 공급로를 차단하여 왜군에게 큰 타격을 가한 쾌거였다.

이후 조현과 영규대사는 금산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700의병과 함께 산화하였으며, 박춘무 의병장은 진천방면에서 왜군을 공격하였다.

청주시내에 있던 청주읍성은 일제시대에 시가 정비를 하면서 모두 없어졌고, 지금은 4대문 표지석만 남아있다.

청주시 강서동에는 당시에 활약했던 청주출신의 의병들을 모신 민충사가 있다.

■ 가는 길

- ▷ 청주시내 한가운데 있는 중앙공원에는 조현 장군 전장기적비, 박춘무 장군 전적비, 영규대사 전장기적비가 있다.
- ▷ 경부고속도로 청주IC에서 청주로 진입하면서 시내로 접어들 무렵 기로수 터널 원편으로 있는 산이 부모산이다. 신정에 올라서면 임진왜란 때 물이 솟아서 의병들을 구했다는 모유정이 있다.

■ 둘러볼 곳

- ▷ 중앙공원 내에는 망선루,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이 있으며, 이를 꼭 선생이 청주목사로 재직할 때 시행했던 서원향약을 기념하는 서원향약비를 볼 수 있고, 인근에는 국보인 용두사지철당간이 있다.



진주대첩 김시민



진주성을 막아라

괴산읍 능촌의 고강가에 진주대첩의 명장 김시민 장군의 묘소와 사당이 있다.

김시민 장군은 외가인 충남 병천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을 보내고, 장성해서는 문중의 세거지인 괴산에서 보냈다.

어릴적부터 의기가 넘치던 김시민은 많은 일화를 남겼다. 여덟살 때 동네 아이들과 전쟁놀이 중에 군수의 행차가 지나가며 길을 비키라고 하자, “성이 어떻게 비키겠는가 사람이 비켜가야지” 했다 한다.

무과에 급제한 김시민은 임진란 중인 1592년 8

월 진주목사가 되어 성을 수비하게 되었다. 왜군은 이순신 장군에게 바닷길이 막히자 호남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2만의 대군을 몰아 진주성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진주성의 군세는 각지의 의병들을 합하여 3800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시민 장군은 병사들과 진주 백성들을 독려하여 필사적으로 싸워 마침내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물리쳤는데, 장군은 전투가 끝날 무렵 왜군의 조총에 맞아 순절하였다.

옛사당에 제향된 숙부 김제갑은 임진왜란 때 원주목사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고, 그의 아들 김시백과 부인 이씨도 순절하였다.

역사

■ 기는 길

▷ 괴산에서 충주방면으로 가다보면 감물에 가기 전에 원편으로 사당이 보인다.
다리가 높아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다. 충주방면에서는 수안보에서
괴산방면으로 넘어 감물을 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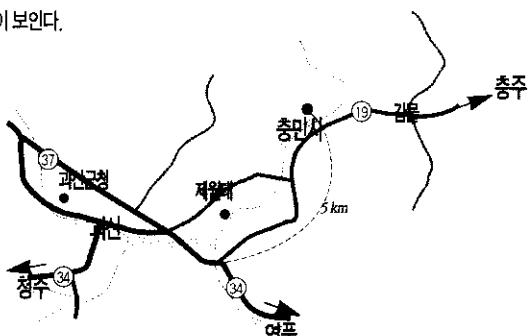
■ 맛있는 음식점

얼음골식당 833-9117 목도민물고기집식당 833-7153

■ 관광예모

▷ 처음 진주 충렬사에 제향되었으나 고종3년에 훼철되어 충주시 실미면 무릉리에 있던 숙부 김제갑의 충열사에 합사했고, 1978년 충주댐 수몰로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 태어난 곳은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이다.
병천아우내 장터에서 조치원방면으로 나서자 마자 다리를 건너기전에 오른편 길을 따라 가면 백전부락이 나온다.
윗마을 입구에 장군이 어릴적 마을사람들을 괴롭히던 커다란 구렁이를 활로 쏘이 잡았다는 ‘사사저’ 표지석이 있다.



임경업의 자취



청나라에는 굽힐 수 없다

어렸을 적에 한 번은 읽었음직한 「임경업전」의 주인공 임경업장군은 충주 사람이다.

임경업은 선조 27년(1594)에 대림산 기슭의 달천에서 태어나 대림산 서쪽 기슭의 삼초대와 속리산에서 무예를 닦았다.

대림산 기슭에는 그가 매일 절벽을 세발씩에 뛰어내렸다는 삼초대가 있고, 속리산에도 많은 일화가 전하는데, 비위 능선에 우뚝 서 있는 입석대는 임경업이 일으켜 세운 것이라 한다.

임경업 장군은 정묘호란으로 우리 강토가 청나라 군사들에게 유린된 데 분개하여 국경인 의주에서 군사를 길러 백마산성을 굳건히 지켰다.

청나라가 또다시 병자호란을 일으키자 임경업 장군은 백마산성에서 청태종을 맞아 싸웠으나, 청태종이 우회하여 한양을 공격하는 바람에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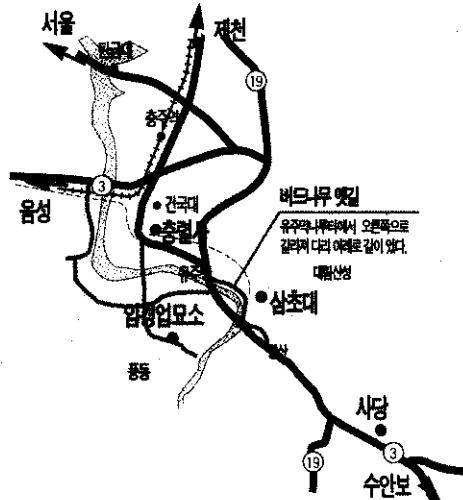
그러나 임장군은 의기를 굽히지 않고 돌아가는 청나라 군사들을 공격하여 포로들을 구해냈으며, 조정의 명에도 청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청나라의 미움을 사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으나 중간에 탈출하여 명나라로 가서 장수가 되기도 하였다.

명나라가 망한 뒤 조선으로 압송되어 김자점 등의 무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 임경업장군의 자취들

- ▷ 임경업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충렬사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정문 부근에 있다. 대로변에서 찾기가 쉽다.
- ▷ 유주막에서 수안보 방면으로 버드나무가 울창한 옛길을 따라 가면 길 옆에 정심사 표지판이 있다. 정심사로 올라가는 충충계단을 올라가면 삼초대이다.
- ▷ 삼초대에서 단월강 건너편으로 임장군의 묘소가 보이며, 대림산을 계속 오르면 대림산성 자리가 나온다.
- ▷ 살미면 세성리에는 영정을 모신 사당과 장군이 죽은 뒤 자결한 정경부인 전주이씨를 모신 생호각이 있다.



동학의 함성



장내리에 남아 있는 난쟁이성터.

척양척왜의 깃발을 높이 들다

구한말 민중들의 자주적인 개혁 움직임인 동학 혁명은 충북 보은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들불처럼 확산되던 동학이 정부의 탄압으로 교주까지 사형을 당하는 위기를 넘기고 다시 교세를 확충한 근거지가 바로 보은 장내리이다.

1893년 음력 3월 11일, 세를 회복한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장내리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교조신원과 동학에 대한 탄압중지요구를 위해 전국의 교도들을 불러모았는데, 장내리는 순식간에 척양적 왜창의의 깃발이 펼려이는 혁명의 기운이 자배하였다.

동학교도들은 옥녀봉 아래 큰 기와집을 도소로 정하고 삼가천의 냇돌을 가져다 성을 쌓았고,

주변 산에 파수를 설치하고, 400여채의 초막을 지어 농성을 하였으며, 이후 동학혁명의 흐름을 주도하는 동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장내리 농성은 20여일 정도만에 끝났지만, 이 농성은 1894년 갑오농민봉기를 순식간에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까운 보은읍 종곡리 북실은 동학혁명군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뒤, 후퇴하던 2,600여명의 농민군이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처참하게 폐멸된 곳이다. 한겨울 날씨는 혹독하게 춥고, 강풍에 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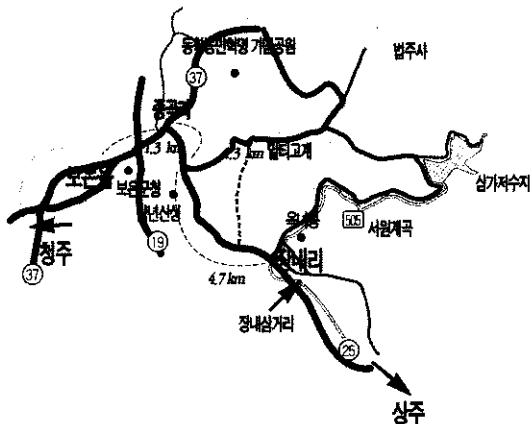
역사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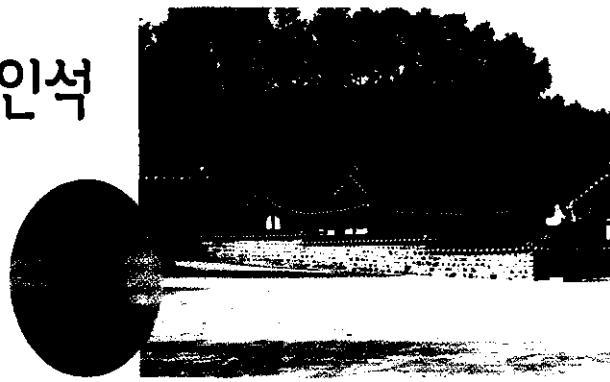
- ▶ 장내 삼거리에는 농협지소가 있다. 원편에 우뚝 솟은 산이 옥녀봉이고 그 아래 마을이 대도소가 있던 곳이다. 당시 혼적을 찾기는 쉽지 않고, 마을 입구의 마을 유래비에 혼적이 보인다.
- ▶ 종곡리 입구는 자칫 지나치기 쉽다. 장내리에서 보은쪽으로 가다 대야삼거리에서 원편으로 크게 굽는데, 핸들이 똑바로 될 무렵 오른편으로 종곡리 입구 안내판이 있다. 종곡리 마을 끝까지 가면 동학군이 묻힌 망나니골이 있다.

맛있는 음식점

- 월드컵기든 543-4614 대추한정식, 고등어정식
장재송어장기든 543-4455 향어회, 송어회



자양영당과 유인석



팔도열읍에 고하노라

제천 봉양읍 공전리에 있는 자양영당은 구한말 제천지역 의병 운동의 불씨가 된 곳이다.

자양영당은 구한말 척사위정론의 학맥을 세운 화서학파의 거두 유중교가 서당(자양서사)을 세우고, 뒤에 조카인 유인석이 학맥을 이어가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었다.

단발령 이후 유인석의 제자 이필회, 이춘영, 안승우, 이범직 등 젊은 소장파들이 인근 지역의 포수들을 규합하여 먼저 의병을 일으켜 제천을 장악하고, 스승 유인석을 의병대장으로 받들어 진용을 갖추고 전국에 「팔도열읍에 고함」이라는 격문을 돌렸다.

의병들은 제천 지역을 장악하여 의병 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관찰부가 있는 충주를 점령하고, 나아가 가흥과 수안보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제천 남산성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여 의병부대는 해산하게 되었다.

남산성 전투에서 의병장 안승우는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으나 끝까지 관군들을 꾸짖다가 살해되었고, 안승우의 제자로 18세 소년이었던 흥사구는 끝까지 스승의 곁을 지키며 항거하다 같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후 사재간의 의리를 죽음으로 지킨 소년 의병 흥사구의 마지막 모습이 널리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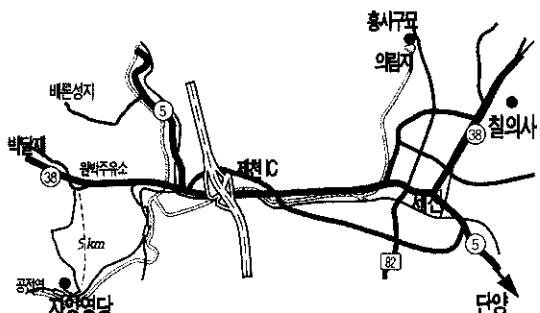
자양영당 옆에는 의병전시관이 세워져 있다.

■ 가는 길

- ▷ 봉양에서 충주방면으로 가다 박달재고개로 오르기전에 원박주 유소에서 좌회전하여 6km 가량 가면 나온다.
- ▷ 충주방면에서는 박달재를 넘어 산판촌에서 공전리방면으로 우회전한다.
- ▷ 국도변에 자양영당과 제천의병전시관 안내판이 있다.

■ 둘러볼 곳

- ▷ 자양영당 옆의 제천의병전시관은 의병들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 역사교육에 좋은 곳이다.
- ▷ 소년 의병 흥사구의 묘는 고암동에 있다.
- ▷ 의병골로 불리는 고암동에는 칠의사총이 있다.



의병장 이강년



나랏일로 죽는 것은 내가 바라던 바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의병운동은 다시 전국에서 분출되었는데, 그중 제천의병이 가장 군세가 크고, 활약이 컸다.

일찌기 을미의병운동 때 문경에서 창의하였다가 유인석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던 이강년은 을사조약에 분개하여 다시 의병을 일으켰는데, 1907년 군대해산 이후 많은 해산군인을 합류시키고, 무기를 확보하여 마침내 제천 의림지의 영호정에서 이강년은 의병장들의 추대로 도참의 대장에 올랐다.

이강년부대가 제천을 장악하면서 제천은 다시 의병천하가 되었다. 이강년부대는 소백산맥을 넘나들며 전투를 벌였고, 다른 지역의 의병과

연합 작전을 펼치기도 하며 곳곳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1907년 11월에는 전국 의병과 함께 서울 진공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제천의병은 1908년 들어 일본군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강년은 청풍 작성산에서 부대원을 이끌고 행군하다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부상당한 뒤 체포되어 결국 사형을 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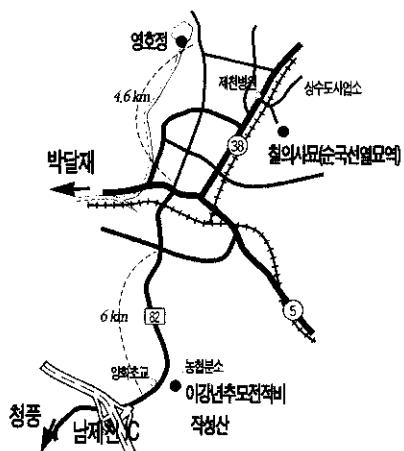
역사

「나랏일로 죽는 것은 내가 바라던 바이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절대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수의를 입은 그대로 아무데나 묻어라.」

의병장 이강년의 마지막 유언이다.

■ 둘러볼 곳

- ▷ 금성면 양화리 농협앞에 이강년의병장 추모 전적비가 있다.
- ▷ 이강년 선생의 생기는 경북 문경시 가온읍 왕장리로 기념관과 사당이 건립되어 있고, 최근에 묘소도 생가부근으로 이장하였다.
- ▷ 이강년 선생의 묘소는 처음에는 과천의 선선에 있었으나 그 후 전국 유림장으로 제천으로 이장되었다가 일제가 도로공사를 빌미로 산소 위치를 가르므로 다시 상주로 이장했고, 다시 최근에 문경으로 이장하였다.
- ▷ 고임동 칠의사묘에 이강년의 의형제였던 김상태, 군사장 최옥영 등의 묘소가 있다.
- ▷ 덕산면 월악리에 이강년대장의 촉근이었던 의병장 이만원의 총절을 기리는 창의비가 세워져 있고, 청풍 비봉산 아래 도곡리에 권용일 의병장의 묘소가 있다.



번개대장 한봉수



34전 33승 1패

일본군 장교와 군인 3명이 진천 고개를 넘는 것을 본 한봉수는 샛길로 달려 옥성리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번개같이 총을 쏘아 일본군을 쓰러뜨리고 유유히 산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한봉수는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을 괴롭혔는데, 옥성리에는 한봉수전적비와 일본이 세운 추모비가 함께 있다.

내수읍 세교리에서 태어난 한봉수는 1907년 군대해산이후 전국적으로 의병봉기가 활발해지자 지게를 벗어던지고 의병에 합류하였다.

여러로부터 사냥을 자주 떠나니 총다루는 솜씨가 남달랐던 한봉수는 소규모 기습공격에서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게 되고, 스스로 대원들을

이끌고 청주와 미원, 보은, 멀리는 경기도 평택과 충남 전의 등지까지 이동하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을 벌였다.

괴산 유목리, 청원 미원, 낭성 가래을 등에서 크게 싸웠고, 마지막 경북 문경에서 일본군에 포위되어 크게 패배할 때까지 4년동안 모두 34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다.

그후 중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다 서울에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얼마후 한일합방 때 사면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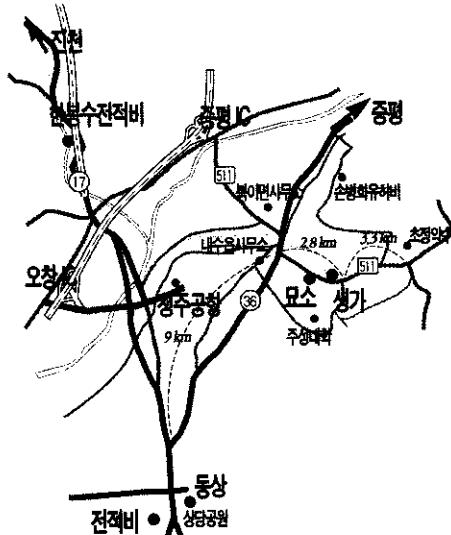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고향 세교리에서 만세시위를 주동했다가 다시 육고를 치렀다. 1973년 청주에서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 한봉수의 지취

- ▷ 내수에서 초정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금수강산 별장 건너집이 한봉수의 생가터이고, 생가터 1km 정도 مت 미쳐 오른편으로 공장 옆으로 난 길로 500m쯤 가면 묘소가 있다.
- ▷ 문백면 옥성리에는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 ▷ 청주시내 중앙공원에는 전적비가, 상당공원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 ▷ 초정리 지금의 스파텔 자리에는 한봉수 선생이 일본군에게 총을 쏜던 「한봉수 바위」가 있었는데, 인터넷에도 공사로 없어졌다.

■ 둘러볼 곳

청주 상당공원 동상 → 문백 전적비 → 세교리 생가터와 묘소



헤이그정사 이상설



이 밀서를 가지고 헤이그로 떠나시오

헤이그정사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상설(1870~1917) 선생은 진천군 진천읍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현 가옥에서 학자이신 이행우의 아들로 태어나 1894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는데, 일찍부터 영어, 프랑스어 등 7개 국어를 구사하여 신학문을 깨우쳤다.

관직에 있으면서 1904년 협동회를 조직하는 등 민족 운동을 하였다. 1905년 의정부 참찬에 재직 때 일본은 대신회의의 실무 책임자인 선생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이완용 등을 앞세워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1906년 4월에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심하고 이동녕, 정순만과 같이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을 건립하고 자비로 항일 민족교육을 시켰으며, 1907년 6~7월 고종황제의 위임장을 받고 이준, 이위중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실권과 국권의 회복문제를 국제 여론에 호소하였다. 이 때 이준은 현지에서 순사하였다.

사건 후 선생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일본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 후 소련령으로 옮겨서 한흥동에 한인마을을 건설하고 민족교육에 앞장서다 1917년 47세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역사

■가는 길

진천 → 초평방면 약3km → 도로 좌측 생가입구 팻말 → 2km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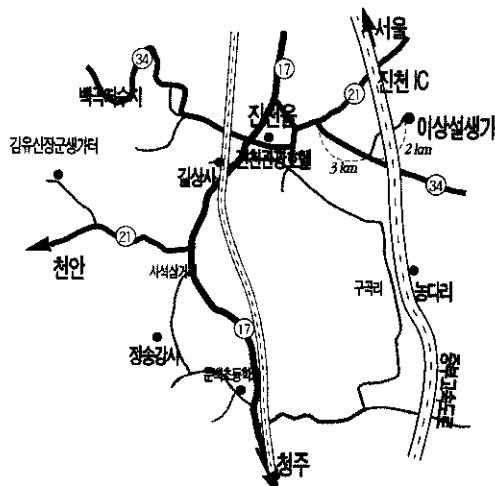
삼총관광농원 536-3755
안골관광농원 532-0405
진천관광호텔 533-0010

■맛있는 음식점

오복식당(옹정리) 532-6359 정화식당 532-6659

■둘러볼 곳

길상사, 정송강사, 보탑사, 초평지, 백곡지



독립선언 대표 손병희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을

손병희 선생은 1861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서 청주 관아 서리인 손의조와 경주 최씨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의기있는 남아로 품성이 호탕하고 불의에 조금도 굽하지 않았으며 악하고 불우한 사람을 도우려는 의협심도 남달리 뛰어났다.

손병희 선생은 일찍이 동학에 입문하여 2대교 주인 최시형을 모시며 동학을 이끌었고 1894년 동학혁명 때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10만의 민중을 이끌고 관군과 싸웠다.

북실에서의 패배후 일본을 거쳐 상해로 망명하였으며 1897년에는 동학의 3대 교주가 되어 동학을 재건하는데 진력하였다.

1907년에 귀국하여 천도교라 개칭하고 교세확장에 힘쓰다가 경술국치 이후 보성전문학교와 보성중학교를 천도교 명의로 인수하여 인재양성에 힘썼다.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필두로 조선독립을 선언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상춘원에서 요양 중 1922년 향년 62세로 서거하였다.

생기는 새롭게 정비하여 영당 및 삼문, 담장과 의암기념관을 건립하였다.

■ 가는 길

- ▷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 증평 → 청주방면 → 옥녀봉 휴게소에 서적화전
- ▷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 청주 → 내수 → 증평방면 → 옥녀봉 휴게소에서 우회전

■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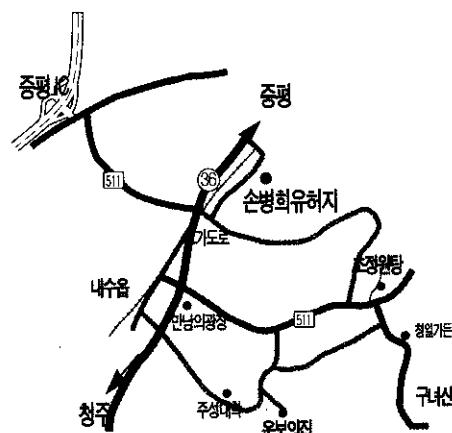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385-2(251-3287)

■ 관람팁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가능

■ 둘러볼 곳

초청악수원탕, 운보의집, 한봉수 묘소



민족의스승 신채호



민족정신을 일깨우다

단재 영당은 일제때의 독립지사이며 사학자이며 언론인이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1978년에 그의 영정을 봉안하고 그의 묘소 바로 앞에 세워졌다.

신채호 선생의 묘소와 영당이 있는 청원군 남성면 귀래리는 신채호 선생이 어린시절을 보낸 곳이다. 선생은 이곳에서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웠다.

22세 때에는 가덕면 인자리의 문동학원 강사로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25세 때에는 신규식과 함께 산동학원을 설립하여 신교육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아쉽게 그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영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의

목조기와집인데 내부는 통간 마루방에 분합문을 달고 앞마루를 놓았으며 「단재영각」이라는 편액을 걸었고 사당 앞에 정기문이라 이름 불인 삼문을 세우고 돌레에는 담장을 둘렀다.

선생은 1936년 2월 21일에 여순 감옥에서 순절할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내 시체가 왜놈들의 발길에 채이지 않게 화장을 하여 그 재를 멀리 바다에 뿌려달라”고 유언하였는데, 부인이 일제의 눈을 피해 선생의 옛 집터에 안장하였다.

묘정에는 한용운, 오세창, 신백우 등이 세운 묘표와 사적비가 있고, 사당옆으로 단재기념관이 있다.

역사

■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청원 IC→ 척산→ 고은삼거리 → 미원방면 → 관정삼거리 지나서 좌회전
청주→보은방면→고은삼거리→미원방면→관정삼거리 지나서 좌회전

■ 위치

청원군 남성면 귀래리 306(251-3286)

■ 관람팁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가능

■ 맛있는 음식점

회락식당(미원리) 298-0228 황토집 298-0013

■ 둘러볼 곳

문화재지단지, 대청댐, 청남대, 미동산수목원



애국지사 연병호



상해임시정부에서 제헌의회까지

연병호의 자(字)는 순서(舜瑞), 호는 원명(圓明)으로, 1894년 도안면 석곡리(산정)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하자 밀형인 병환을 뒤따라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으며 1919년 상해임시정부수립후 조국에 돌아와 임시정부 후원과 국제외교를 위해 이병철, 안재홍 등과 비밀 결사단체인 청년외교단을 조직·활동하다가 일경에게 발각되어 대구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1년 다시 중국으로 망명해 북경에서 독립혁명당(獨立革命黨)을 조직했으며, 이듬해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피선되었다.

1937년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어 조선총독부로 인계된 후 8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과 공주 감옥 등에서 옥고를 치렀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과 1950년 제 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헌의원시절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 1963년 석곡리 생가에서 타계했으며, 그해 3월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추서됐다.

선생이 태어난 생가는 도안면 석곡리(산정)에 위치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토벽 초가집으로 남향해 있다. 생가 뒤편에는 삼문과 사당이 건립되어 있다.

■ 가는 길

▷ 청주~음성 방면의 36번 국도를 타고가다 물레방아휴게소 앞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50m를 더 가면 도안농공단지 입구 갈림길이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하여 150m 가면 연병호 생가가 나온다.

■ 관광예보

생가인근에는 전통사찰 경덕사가 있다. 사찰내에는 고려 초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이 있다.

